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선교사

1839. 9. 7 ~ 1866. 9. 2 (만 27세)

- "英" 하노버교회 한국인 담임 유재연 목사가 맡았다.
- 대동강 순교 "英 재복음화로 갚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영적 고향 영국 하노버교회를 가다.
- 토마스 선교사 생애
- 그가 남긴 복음의 씨앗
- 토마스 선교사가 떠난 후...
- 토마스 목사의 최후 순간에 관한 여러 가지 서술들 - 김택규(전 감신대 객원교수, UMC 원로목사)
- 토마스 선교사의 입국, 활동 그리고 죽음 - 이상규(고신대학교, 교회사학)
- 로버트 토마스(Robert J. Thomas) 선교사, 역사적 평가 - 박용규(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



유재연(왼쪽 세 번째) 하노버교회 목사와 영국 성도들

2014년은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서 순교한 지 148년째가 되는 해이다. (1866년 순교)

2014년 1월 25일 영국 하노버 교회에 유재연 선교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유 목사는 2000년 바울선교회 소속으로 파송되어 모로코 선교사로 활동해오다 2년 전부터 영국교회를 도와 왔다. 유 목사의 취임은 교회 설립 370년 만에 첫 외국인 담임목사 취임이라는 사실에도 이목을 끌었지만, 영국 현지 교회들이 보통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단독으로 목회자를 청빙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번 청빙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英" 하노버교회 한국인 담임 유재연 목사가 맡았다.

국민일보 / 2014. 1. 24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신상목 기자)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1840~1866 / 사진)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 하노버교회에 한국인 선교사가 담임목사가 된다. 주인공은 영국 선교사로 활동 중인 유재연(55) 목사로 25일 취임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목회에 나선다. 교회 설립 370년 만에 첫 외국인 담임이자 토마스 선교사 순교 148년 만이다. 순교의 피가 뿌려진 땅의 후예가 순교자를 배출한 모교회를 맡게 된 것이다.

유 목사는 23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교회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하노버교회를 목회하게 돼 감격적”이라며 “웨일스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노버교회는 영국 웨일스 몬머스셔주 작은 마을인 흘라노버에 위치한 교회로 토마스 선교사가 성장하고 파송을 받았다. 당시 교회의 담임은 토마스 선교사의 부친인 로버트 토마스(1810~1884) 목사였다. 그는 아들의 선교편지를 받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로 후원했다.



토마스 목사의 고향교회인 영국 웨일즈 하노버교회

하노버교회는 1644년 설립돼 회중교회로 출발했다. 이후 영국개혁신교단(URC)에 합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국 교회의 쇠퇴로 1991년부터는 전임 목회자 없이 은퇴 목회자나 평신도 설교자들이 예배를 인도했다. 유 목사는 지난해 11월 교회의 청빙을 받아 그달 25일부터 사역해 왔다.

유 목사에 따르면 하노버교회는 현재 매주 10~2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인 대부분이 60대 후반 노인들이다. 하지만 기도모임이나 성경공부 모임 등이 활발해 부흥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교인 중에는 북한 선교에 참여하는 부부도 있다고 유 목사는 전했다. 성도들은 유 목사가 담임이 되자 토마스 선교사가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노버교회는 매년 3000여명의 한국인들이 다녀가며 토마스 선교사를 기리고 있다.

교회역사가들에 따르면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9월 통역 겸 선교활동차 미국 상선 제너럴서먼호를 타고 대동강까지 들어왔다가 최치량 등 4명에게 성경책을 전하고 순교했다. 그러나 끝은 아니었다.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믿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졸 박춘권도 후에 신자가 됐다. 최치량은 영문주사(營門主事) 박영식에게 성경을 전했고 그는 성경을 찢어 벽지로 발랐다. 이 집은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이 됐고 나중에 평양대부흥의 근원지였던 장대현교회가 됐다.

유 목사는 장신대신대원을 졸업하고 94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2000년부터 바울선교회 소속 모로코 선교사로 활동했고 2년 전부터는 영국 교회를 돕고 있다. 그는 “영국은 한국교회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선교지”라며 “교회가 박물관처럼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한 영국 하노버교회에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유재연 목사가 담임으로 취임한다. 유 목사 뒤로 하노버교회 건물이 보인다. 하노버교회 제공

■ 대동강 순교 “英 재복음화로 갚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영적 고향 영국 하노버교회를 가다.

쇠락한 예배당엔 순교패 오롯이...

2000년대 초부터 목회자 없다 작년 韓人 목사 오며 활기 되찾아

국민일보 / 2015-03-17 / 란오버(영국) = 글·사진 백상현 기자

‘HANOVER United Reformed Church(하노버 개혁신교회)’

빛바랜 간판에 적힌 고풍스런 영문체가 교회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서울 사랑의교회 성도들과 함께 찾아간 영국 웨일즈 란오버의 하노버교회는 아담했다. 란오버는 런던에서 서쪽으로 240km 떨어진 시골 마을이다. 짙은 흑갈색 돌로 세워진 예배당과 이끼 낀 돌담, 교회 앞마당에 늘어선 100여개의 비석들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 한국교회 최초 순교자 토마스의 영적 고향

☞ 하노버교회는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1839~1866·사진) 선교사가 청소년기를 보낸 신앙의 ‘모판’이다. 역사적인 이 교회는 영국교회가 처한 현실과 한국교회의 미래, 희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하노버교회는 1644년 설립돼 1839년 지금의 예배당을 헌당했다.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는 아들이 8세 때인 1847년 이 교회에 부임했다. 교회 출입문 위에는 전도서 5장 1절, 시편 84편 1절 등 성경구절 4개가 새겨진 반원 형태의 돌판이 붙어 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 문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집’(전 5:1)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겼을 것이다.

예배당 내부는 80㎡ 규모로 좌석 사이에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었다. 바닥은 나무로 돼 있어 걸을 때마다 삐걱덕 소리가 났다. 고동색 강대상과 칠이 벗겨진 장의자, 주황색 방석 등을 보니 1970년대 한국교회 시골 예배당이 생각 났다.

복층은 가파른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다. 강대상을 중심으로 ‘ㄷ’자 모양이다. 가로 4m의 나무 강대상은 2m 높이에 위치해 있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런던대 뉴칼리지로 진학한 토마스 선교사는 1863년 졸업한 뒤 이곳 예

배당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설교도 했다. 그는 그해 런던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됐다.

그러나 3년 뒤 성도들은 토마스 선교사가 미지의 땅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려다 평양 대동강변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끔찍한 소식을 접한다. 당시 분위기는 교회 벽에 붙어 있는 토마스 선교사 순교패에 잘 나타나 있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6세 때인 1866년 두 번째로 코리아를 방문했다가 살해당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욥 17:11).’ 욥의 고통스런 절규는 토마스 선교사뿐 아니라 하노버교회 성도 모두의 것인 듯했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아버지 토마스 목사와 성도들은 ‘죽어야 사는’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에 공감하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했다.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는 1884년까지 이 교회를 맡았다. 순교한 아들을 가슴에 묻고 18년 간 목회한 것이다.

◇ 2014년 한국인 목사 청빙 후 활기 되찾아

☞ 하노버교회는 안타깝게도 순교정신을 잊지 못했다. 세속화와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 앞에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다. 2000년대 초반부터 목회자 부재상황이 벌어졌다. 60~70대 성도 10여명은 10년 넘게 자체 예배를 드렸다. 지난해 1월 영국 개혁신교단(URC)으로부터 유재연 목사를 파송 받은 뒤에야 비로소 생기를 되찾고 있다.

유 목사는 장신대 학부와 신대원을 졸업했으며, 바울선교회 소속으로 2000~2011년 모로코 선교사로 활동했다. 그는 2010년 URC에서 하노버교회 목회자를 청빙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유 목사는 “2004년 안식년 때 1명의 목사가 서너 개 교회를 순회해야 하는 영국교회의 열악한 상황을 목격했다”면서 “역사적인 하노버교회를 그냥 지켜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도 웨일즈 지역엔 URC 교회 99개가 있지만 목회자는 21명밖에 없다.

2014년 기준으로 URC에는 13개 노회, 1472개 교회, 5만800여명의 성도가 등록돼 있다. 전년대 비해 15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800여명이 줄었다. 유 목사는 “URC에 소속된 교회는 성도 수가 20명 미만인 곳이 많고 이들 성도는 대부분 70세 이상”이라면서 “교인이 계속 줄어 URC는 문 닫은 교회 건물을 매각해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 “영국 재복음화 위해 목회자·청년 필요”

☞ 유 목사는 URC에 소속돼 있지만 본부 재정 부족으로 사례비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유 목사 부부는 매일 새벽기도를 드린 뒤 심방을 하고 성경공부를 인도한다. 수요예배, 주일 아침·저녁예배를 꼭 드리면서 1년 만에 성도가 30명으로 늘었다. 주요 절기 때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 미니 콘서트 등을 개최했다.

유 목사는 “영국 재복음화에 한국 목회자와 청년들이 꼭 필요하다”면서 “영국 젊은이들은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세대나 마찬가지이고 교인의 자녀들도 99%는 신앙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슬람교 등 타종교들이 젊은층을 적극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복음전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복음전파의 열정과 영어실력을 갖춘 목회자라면 URC나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오순절교회 등 현지 교단을 통해 영국선교의 문을 두드려 달라”면서 “영국인들은 특히 찬양을 좋아하는데 한국 젊은이들이 와서 찬양 사역을 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회자들은 면접 후 목사 신분을 취득하면 비자가 나오고 자녀교육과 의료 등의 혜택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유 목사는 “한국교회나 영국교회나 복음의 원초적 능력, 열정만 있다면 부흥하게 돼 있다”면서 “영국교회든 한국교회든 교회를 살리는 힘은 목숨을 건 기도”라고 강조했다.

매년 1,000여명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노버교회를 찾지만 교회 상황은 열악하다. 예배당 옆에 30㎡ 정도의 공간이 있지만 담임목사 사무실, 식당, 친교실 등으로 사용하다 보니 어린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장실도 남녀 공용이다. 마룻바닥이 썩고 있지만 재정 부족으로 손도 못 대고 있다. 교회 옆에 토마스 선교사가 거주했던 사택도 있지만 교회 운영비 부족으로 오래 전 매각됐다.

■ 토마스는 과연 한국 최초의 선교사이며 순교자인가?

- 기자명 코닷 / 2015.04.03

저메인 토마스는 과연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이며, 또한 최초의 순교자인가? 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장로교신학회(학회장 이상규 박사) 제25회 학술발표회가 3월 21일 오후 2시 서울서문교회(한진환 목사)당에서 열린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 연구의 장을 열어준 고무송 박사(한국교회인물연구소장)의 주제강연이 있는 뒤 서요한 박사가 “순교자 로버트.J.토마스 목사의 역사적 의의”로 임희국 박사의 “토마스 연구에 관한 보고서”를 나동관 박사의 “한국선교의 밑알 토마스의 생애와 선교”에 대한 발제가 각각 있었다.

● 발글자료를 보면 토마스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이고 최초의 순교자가 분명하다. ✎ 고무송 박사

○ 긍정과 부정

고무송 박사는 주제강연에서 토마스의 평가가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뉘는 것은 분명하다.

긍정적인 입장은

- (1) 토마스는 한국교회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이다.
- (2) 토마스는 한국교회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이다.
- (3) 토마스는 동시통역사로 한국에 왔다.
- (4) 토마스는 항해안내자로 한국에 왔다.
- (5) 다량의 한문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 (6) 토마스는 런던선교회(LMS) 소속 선교사 신분으로 순교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입장으로

- (1) 제너럴 셔먼호는 무역선으로 위장, 중무장을 한 제국주의 해적선이었다.
- (2) 토마스를 비롯한 승무원 24명 전원이 무장을 했다.
- (3) 제너럴셔먼호는 왕릉의 금을 절취하고자 한 도굴단이다.
- (4) 따라서 토마스는 도굴단 앞잡이라 할 수 있다.
- (5) 토마스는 자신도 무장을 한 제국주의 앞잡이라 할 수 있다.
- (6) 토마스는 불법적으로 입국, 그의 순교는 재평가를 받아 마땅하다이다.

○ 발글자료에서 본 토마스

(1) 토마스의 신학교 입학지원서와 선교사 지원서 및 그가 선교본부나 가족에게 보낸 선교편지 등에서 소명감과 헌신도를 가늠해 보면 그는 분명한 선교사의 입지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2) 토마스는 첫 번째 선교지인 상해에서 돌연한 아내의 죽음을 맞아 LMS를 사임했지만 산둥반도 연대로 옮겨 변함없이 무소속 선교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한 모습을 보여준다.

(3) 조선인과의 만남을 통해 조선에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경을 번역하고자, 조선을 새로운 선교현장으로 서 그의 소명을 확인한다.

(4) 당시 조선은 3차에 걸친 천주교박해를 겪었으며, 바야흐로 9명의 서양 선교사를 처형하는 등 병인교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는 음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개신교 선교사로서 조선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조선을 향하고 있었다. 물론 LMS 선교사 신분을 재취득하였다.

(5) 토마스가 비록 무역선이 제너럴셔먼호에 승선, 조선에 입국한 것으로, 중무장한 선원 24명과 함께 있었지만, 이는 19세기 당시의 상황을 참작, 역사해석을 하여야 한다. 그들은 신변안전을 위해 무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19세기 후반에 입국한 선교사들 역시 내지 선교사역에 투입될 때는 무장을 했다는 사실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 과연 순교인가?

토마스의 죽음이 과연 순교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지막 선교편지이다. 그의 편지를 보자. “최근 조선에서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선교사를 대표하여 한 개신교 선교사로서 내가 그 나라(조선)에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을 찾아가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나의 방문을 통해 이 나라 수도(서울)에서 우리들의 선교사역에 아주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를 보건데 토마스는 순교를 각오하고 조선에 왔으며 그는 선교사로서 최초로,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 확실하다.

○ 연구 과정

토마스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기록들을 수집해 보면

(1) 토마스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가 소속돼 있었던 런던선교회가(LMS: London Missionary Society) 출판한 ‘런던선교회 100년사(History of LMS 1795-1895)에 의한 것인데, 공식적인 기록은 너무 간단하고 부정적이었다. In 1866, R.J.Tomas B.A. was appointed, but never settled down to work in the capital, and is supposed to have been drowned while on a voyage to corea. “토마스는 선교사로 파송됐으나 임지인 수도(중국 메이징)에 정착하려고는 아니하고 조선 향해 중 익사한 것으로 추정됨”

(2) 그리피스 교수는 ‘은자의 나라 조선’에서 토마스 목사의 조선 선교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너럴서먼호)승무원들은 평화적인 통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중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 그들의 향해 성격은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여러 왕조의 왕들이 묻혀있는 평양의 왕릉은 순금으로 되어있다고 중국에는 소문이 났던 터이니만큼 그들의 향해는 금을 얻어보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3) 한국에서 최초로 토마스에 관해 관심을 갖게 한 것은 마포삼열 목사가 ‘토마스목사 순교기념회’를 조직 토마스에 관한 자료를 수집, 역사 무대에 등장시켰다.

(4) TMA 총무로 활동했던 오문환 장로(당시 숭의학교 영어교사)에 의해 1928년 출판된 ‘토마스의 일대기를 서술한 토마스전을 펴냈는데 이는 한 권으로 된 최초의 토마스에 관한 단행본이다. 이를 예일대학교 도서관에서 찾아냈다.

(5) 토마스에 관한 최초의 한국의 학문적 연구는 백남준 박사의 ‘한국개신교사’에 의한 것이다.

(6) 토마스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는 민경배 박사에 의해서이다. 1970년 런던대학교에서 연구하는 동안 토마스에 관한 자료를 일부 발굴, ‘교회와 민족’속에 36면에 걸쳐 신학교 시절의 토마스를 서술하고 있다.

(7) 토마스에 관해 비판적인 견해로 접근한 것은 이만열 교수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기독교100년사’에서 그는 “아무튼 토마스 목사가 상당히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역사에서 그가 위대하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 또 제너럴서먼호 사건 자체도 그 배의 입국 목적이나 불법적으로 입국한 경위로 보아 성스럽다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며, 또 토마스 목사도 그 배의 인도자로 왔으니 그다지 높이 평가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중략) 그리고 그의 죽음이 순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한국교회는 이제 정리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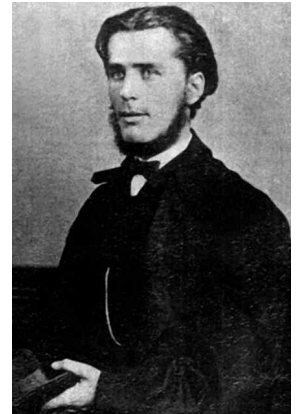
○ 토마스는 한국에 무엇을 남겼는가?

(1) 1866년 토마스가 타고 온 미국 국적의 무역선 제너럴서먼호를 화공으로 수장시킨 연고로 조선은 미국정부로부터 배상을 요구받았고, 이에 불응, 한미전쟁(1871년)이 야기되었고, 그 결과 조미통상조약(1882년)을 체결, 미국 국적의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조선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1884년 알렌선교사의 입국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의 단초를 제공한 1866년 토마스 선교사의 입국을 개신교 최초 조선 선교사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알렌보다 무려 18년이 앞선 것이다.

(2)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토마스는 분명 서양 선교사로 입국하여 순교한 개신교 한국 최초의 선교사이다. 그것은 그가 한국을 향하여 한국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 토마스 선교사 생애

- 1839년 9월 7일 영국 웨일스 중부 라야다에서 회중교회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 1857년~1863년 5월 런던대학 뉴칼리지에서 수학하다.
- 1863년 5월 29일 캐롤라인과 결혼하다.
- 1863년 6월 4일 고향인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안수 받다. (24세)
- 1863년 8월 런던선교회 파송선교사로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 도착하다.
- 1864년 3월 24일 아내 캐롤라인 유산과 감염으로 사망하다.
- 1964년 선교사 사표 제출하다. (아내 잃은 충격, 선임선교사 무어헤드의 월권 이유로)
- 1865년 1월~8월 청나라 해상 세관 통역으로 근무하다.
- 1865년 9월 세관 사임하다.
- 1865년 9월 13일 [1차 한국 방문](#), 항해도 창린도 도착, 두 달 반 동안 스코틀랜드 바이블 협회의 에이전트로 성경을 판매하며 포교하다.
- 1865년 10월 27일 태풍을 만나 Yung Chung이라는 곳으로 떠내려가다.
- 1865년 10월 30일 연평도로 다시 돌아오다.
- 1865년 11월 11일 조선을 떠나다. 태풍 만나 구사일생, 만주 거쳐 북경으로 돌아가다.
- 1866년 4월까지 북경대학 학장서리로 지내면서 평양감사 박규수를 만나 한문 성경 1권을 전달했고, 1년 후 그 성경이 평양에 흘러 들어간 것에 감격하다.
- 1866년 8월 9일 제너럴 셔먼호 동승하다. [2차 한국 방문](#)
 - 미국 제너럴셔먼호 통역관 자격으로 탑승 (동양인 19명, 서양인 5명)
 - 당시 조선은 대원군 치하 쇄국정책으로 '청국의 허락없이 외국과의 통상 불가능'함을 통보했으나
 - 셔먼호는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으로 전진함.
 - 이런 상황에서 조선과 셔먼호가 대치중에 협상을 시도함.
 - 조선은 양쪽 협상을 위해 중국 이익현을 파송했으나 셔먼호 안에서 그를 인질로 붙잡아 두자
 - 결국 박규수는 셔먼호를 불태우기로 결심함.
 - 조선 정부는 대동강 상류에 불타는 나룻배 띄워 셔먼호에 옮겨 붙인 후 포위함.
 - 셔먼호의 선장, 중국 서기 조능봉, 이팔행 등이 참수를 당하고
 - 토마스도 모래사장에서 기도한 후 평양 출신 군인 박춘권에게 성경을 건네주고 순교함.
- 1866년 9월 2일경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와중에 순교 (27세)
- 1932년 그가 순교한 대동강변에 토마스 기념 교회를 건축하다.



■ 그가 남긴 복음의 씨앗

(1) 병졸 박춘권

- ① 심경에 변화 경험 - '도대체 무슨 책 이길래 죽어가면서도 건네주려 했을까?' 생각하다.
- ② 동료 몰래 현장에 다시 가서 훔쳐진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어 영주교회 영수가 되다.
- ③ 조카 이영태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어 평양숭실대학에 들어가 졸업한 후 레이놀즈의 조사가 되어 현재 한글 성경 2/3를 번역하는데 결정적인 공헌하다.
- ④ 병졸 박춘권은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 '넬다리골 교회의 대표'가 되다.

(2) 최치량

- ① 당시 12살 소년 최치량은 토마스로부터 포리에서 한문성경 3권을 건네받음
- ② 성경이 '금서'라는 사실을 알고 겁이나 평양 영문 주사 박영식에게 전달.
- ③ 박영식 집에 자주 놀러 갔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음.

(3) 박영식

- ① 조선 평양 영문주사 박영식, 최치량으로부터 한문 성경 3권을 건네받음.
- ② 질 좋은 종이로 만들어진 성경 2권으로 자기 집의 바닥, 벽, 천장까지 도배함.
(당시 한지류는 종이 질이 우수, 한쪽 단면만 인쇄)

- ③ 어느 날 요 5장 24절이 눈에 들어와 처음에는 무의미하게 읽다 고민에 빠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 ④ 그 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라” 말씀 읽고 예수 영접 후 구원을 얻음
- ⑤ 성경으로 도배한 그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넬다리골교회(장대현교회 전신)”가 되다.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영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아버지와 성도들은 중국에서 사역하던 토마스 선교사가 보낸 편지를 읽고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었다. 그 편지에는 처음 기나긴 항해 끝에 중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해, 어떤 사람들을 만나 무엇을 전했는지 상세히 적혀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엔가 아들에게서 온 편지에는 며느리가 풍토병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한 편지를 읽을 때 아버지 목사님과 교인들은 가슴을 치며 함께 아파하고 무릎 꿇고 밤새 기도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편지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이라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나라에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써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조선말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866.8.1)

편지의 내용은 여기까지였다. 아버지 토마스 목사님과 하노버교회의 교인들은 토마스가 어찌되었는지 몹시 궁금했다. 하지만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고 연락은 끊어졌다. 그러던 중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서먼호를 타고 조선에 도착하긴 했는데 그곳에서 목 베임을 당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목이 잘려 나간 아들의 소식을 듣고 부모님과 성도들은 조선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목 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그를 죽인 병사는 회고했다.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조선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한석진牧사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제가 평양에 온 것은 임진년 10월, 즉 주후 1892년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26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때 저는 성경을 팔며 전도하러 다니면서 토마스 목사의 순교를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너럴서먼호가 불에 탈 때 바깥으로 성경을 던지면서 “야소(예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도하는 내용과 팔러 다니는 책자가 그 서양인이 배에서 던진 책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토마스 선교사가 떠난 후...

“저는 10월(1893년)에 22명의 교리문답 수강생을 모집했고 더 체계적인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나온 토마스 선교사에게 한문 신약성경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1925년 3월 마포삼열 선교사의 선교보고 중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뿌린 성경을 주운 사람은 정부 관원을 포함해 상당수에 달했다. 당시 20세였던 이신행이라는 여인도 성경 한권을 얻어 집으로 왔는데 그후 그녀는 평양 최초의 여자교인이 됐다. 그녀의 아들 이덕환도 평양 장대현교회의 장로로 시무했다. 제너럴서먼호를 구경하러 대동강변으로 나온 11세 소년 최치량도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 세권을 얻어 돌아왔다. 당시 영문주사로 있던 박영식은 성경책의 종이 질이 좋아 버리기 아까워 한 장 한 장 뜯어 집의 벽지로 발랐다.

1891년 소년이었던 최치량은 성인이된 후 넬다리골에 있는 박영식의 집을 매입해 여관을 경영하게 됐다.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새뮤얼 오스틴 모팻(마포삼열) 선교사와 한석진 목사가 우연히 이 여관에 머물게 됐다. 이들은 온통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벽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모팻 선교사는 이 여관주인 최치량과 다른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었다. 결국 널다리골의 그 여관은 예배의 처소로 사용됐는데 나중에 이곳이 평양 최초의 개신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다. 이 교회는 후에 장대현교회가 되어 이곳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후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란 별명을 얻게 됐다.

마포삼열 선교사에 의하면 평양 대동문 안에서 교회를 열었을 때 토마스에게 받은 성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마포삼열 선교사의 아들인 새뮤얼 휴 모팻은 1973년 5월 6일자 '코리아헤럴드'에 이렇게 기록했다.

“제 아버지는 제너럴셔먼호 사건이 일어난 지 24년 후에 평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들이 증언하기를 한 백인이 불에 타고 있던 갑판의 연기 속에서 "예수"라고 외치며 강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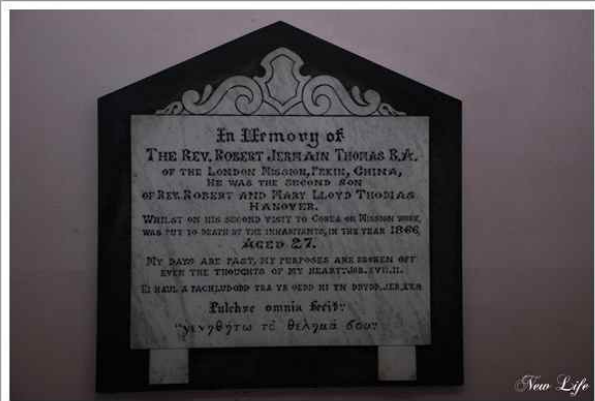
토마스 선교사 출생증명서 (1839년)



토마스 선교사 결혼 증명서 (1863년)



하노버 교회 오른쪽 벽면에 걸려있는 한국 국기와 지도



왼쪽 벽면에 저메인 토마스 목사의 기념비



하노버 교회의 토마스 선교사 초상화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인 로버트 토마스(1810~1884)의 무덤

■ 토마스 목사의 최후 순간에 관한 여러 가지 서술들 - 김택규(전 감신대 객원교수, UMC 원로목사)

토마스 목사는 처음부터 ‘선교사’로 승선했기 때문에, 셔먼호가 정박할때마다, 백령도에서부터 평양까지 배가 정박할때마다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과 전도서 등을 반포하며 전도를 열심히 했던 것이다. 만일 그가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페이지 선장이 혹시 무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당시 조선은 기독교 신앙을 금하고 있던 나라 아닌가?) 토마스목사의 선교활동을 제지할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토마스는 셔먼호가 불에 타서 침몰할때까지 뱃머리에서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던져주었고, 최후에는 성경몇권을 움켜쥐고 물으로 해엄쳐 나가서 계속 성경을 전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칼로 처 죽인 군인에게까지 성경을 전해주다가 순교를 당한 것이다.

토마스목사의 마지막 죽음을 맞는 장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기록들이 있다. 참수당했다는 설, 참수가 아니라 가슴을 칼로 찔려 죽임당했다는 설, 분노에 찬 관민, 군중에게 맞아 죽었다는 설, 칼로 난자당해 죽었다는 설 등이다.

사료(史料)나 기록들이 각기 기술(記述)이나 주장이 다를 경우, 무엇이, 어떤 설이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은

- (1) 사건에 직접참가자, 혹은 목격자의 직접 증언
- (2) 사건 발생 후, 시간적으로 일찍이 나온 자료
- (3) 기록자의 진정성 등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토마스 목사의 죽음에 관한 기록의 사료(史料)로서, 가치있게 볼 수 있는 몇가지 문헌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조선 조정의 공식문서인 ‘고종실록’이다. 실록의 토마스목사 마지막에 대한 기록은 이렇다. “...최난헌(도마스의 한국 이름)과 조능봉이 범선 뱃머리로 나와 강물에 뛰어들어서는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들 모두는 체포되어 묶여서 강변으로 끌려왔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곧 성난 백성들과 군인들에 의하여 매맞아 죽었다.” 이문서는 중요한 ‘1차적 사료’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셔먼호 관련 기록은 승자인 평양측의 일방적 보고를 그대로 기술해놓은 것이고, 또 내용 서술이 오류투성이기 때문에 그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을 신뢰할 수는 없다.

둘째는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안되는 1866년, 10월 30일에, 셔먼호가 처음 조선을 향해 출항했던 항구도시 지푸의 주재 미 영사 E. Stanford가 그의 상관인 북경주재 미국 공사 Anson Burlingame (당시 중국 전체에 나와 있는 미 외교관들의 수장)에게 보낸 ‘보고서’다. 그 보고서에는 “.... 그들은 본토인들에 의해 둘러쌓인후 손이 뒤로 묶여 포박되었으며 그런후 강변에 무릎이 꿇려져 참수를 당했다’ 고 기록되어 있다. 토마스를 포함해서 강변으로 나온 승조원들은 포박당하고 참수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 문서는 시간적으로 사건 발생후 가장 일찍이 나온 자료임으로 그 사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사건의 그 진술은 목격자의 직접 증언이 아니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셔먼호를 대동강에서 항로 안내 했던 중국인 우엔타이 정크선장이나, 특히 조선에서 탈출해온 프랑스 캐톨릭 신부들에 의해 전해진 정보였다.

셋째로, 사료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문서는 셔먼호 사건이 발생된지 30년 후인, 1895년에 나온 James S. Gale의 “The Fate of General Sherman: From an Eyewitness(제너럴 셔먼호의 운명: 한 목격자의 증언)이다. 사건 당시 대동강변 현장에서 실제로 사건을 목격했던, 당시 18세의 청년 (게일 선교사가 교인이 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나이는 40대 말 장년이였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쓴 글이다. 증언자는 그때 “백기를 든 한 두명이 강변으로 올라와 백기를 흔들며 계속 절을 했다..... 그들은 결박되어 난자당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백기를 든 한 두사람이란 토마스 와 조능봉일 것이다.

네째로 60년 후인 1927년에 나온 F.E. Hamilton의 “The First Protestant Martyr in Korea” (한국의 첫 번째 개신교 순교자)를 들수 있다, 해밀턴은 토마스를 칼로 죽였던 ‘군인’의 후손들에게서 들은 증언을 토대로 토마스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그 군인의 ‘조카딸의 아들’ 이영태는 숭실대 졸업생으로, 당시 ‘성경개정위원’인 레이놀즈 박사의 비서로 일하며,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중요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해밀턴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토마스는 2주간동안 성경을 손에 들고 강변에 있는 군중들에게 소리치며 전도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남은 성경을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졌다. 그리고는 자기손에 남은 한두권의 성경을 가지고 물에 뛰어들어 강가로 걸어갔다. 토마스는 그를 죽이려는 한 군인을 만나 그에게 성경을 건네주며 받으라고 간청했으나 그 사람이 거절했다. 토마스는 모래에 무릎을 꿇고 두손을 모아 기도를 하였다, 그후 눈을 뜨고 그 군인에게 미소를 띄며 성경을 받으라고 다시 권하였다.....드디어 그 군인은 칼을 들어 토마스의 심장을 찔러 죽였다. 그가 후에 자신의 가족에게 말했던것처럼 그는 한 선한 사람을 죽였다고 느끼고 그가 죽인 그 사람이 떨어트린 성경을 집어 자기집에 가지고 왔다.”

다섯째로 오문환의 1928년에 나온 ‘토마스목사 전’을 들수 있다. 오문환은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서면호사건의 직접 참가자들 혹은 목격자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증언들을 수집했다. 또 그때까지 나온 그 사건에 관련된 문헌들을 집중 연구하였다. 특히 그는 영어에 능숙하여 학교에서 영어교수로도 활동했다. 그래서 그때 초기 선교사들이 기록한 서면호에 관련된 여러 문헌들을 참고할수 있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토마스 목사전’이기 때문에 그의 책은 서면호 사건과 토마스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오문환은 토마스 목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 뱃머리에서, 한손엔 백기를 들고, 한손엔 성경을 들고, ‘야소(예수)’라고 소리치며 강변에 있는 군중을 향하여 성경을 뿌렸다. 이것은 당시 20대청년으로, 후에 평양의 항 장로교회 초대신자가 되고, 지금은 대동군 대동강면 조왕리교회에 다니는 80 고령의 황명대씨가 그 증언을 한 것이다..... 화염에 쫓겨 마지막으로 1권의 성경을 손에 들고 배에서 내려 언덕으로 나아가자, 한 군인이 달려든다. 토마스목사는 인자한 태도로 그 군인에게 성경받기를 권하매, 그 군인이 들었던 칼을 잠깐 멈추었다. 그동안 토마스목사는 두 무릎을 꿇고 머리숙여 땅에 대인후 얼마동안 최후의 기도를 하였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다시 군인에게 성경받기를 권했으나.....마침내 칼을 그 가슴에 대어 하나님의 증복 토마스목사의 생명을 빼앗고 말았다.” , +)

위에 열거한 토마스의 최후 장면 기록들은 대부분 목격자나 그 후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그리고 비교적 일찍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로 서술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자료들이다. 그러므로 그 모든 서술들 일부를 인정한다면, ‘토마스목사의 마지막 순간’들은 대체로 다음과같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우선 승조원들이 성난 군중에 의해 무조건 맞아 죽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설명했지만, 거기에는 각지에서 차출되어온 군인들의 수가 엄청 많았다. 평양 감사의 지휘 아래 군인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군인들이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죄인들을 맘대로 처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다. 조선 시대에 실제 참수를 집행하는 자는 ‘망나니’라고 따로 있었다. 그들은 단칼에 목을 쳐 죽이는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그때 대동 강변에 있던 군인들은 사람의 목을 쳐본 일이 없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형을 집행하는 군인이 칼을 들어 목을 찢어도 금방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후에 다시 칼을 들어 가슴을 찌르거나, 또 다른 군인이 여러 번 칼질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칼에 찔려’, 혹은 ‘난자당해’ 죽었다는 증언이 나왔을 것이다.

토마스 목사의 경우는

- (1) 토마스가 백기를 들고 강에서 올라오자, 한 군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 (2) 칼을 든 군인에게 토마스는 절을 하며, 부드러운 태도로 성경받기를 권하였다.
- (3) 군인은 성경 받기를 거절하며 토마스를 결박했다.
- (4) 토마스는 참수되기 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를 했다.

사람들은 그가 살려달라고 비는 것으로 보았다.

- (5) 기도를 마친후 토마스 목사는 미소를 띄고 군인에게 성경 받기를 다시 권했다.
- (6) 군인은 칼을 들어 토마스의 목을 찼다.

쓰러진 토마스가 즉사하지 않자, 군인은 다시 칼을 들어 그의 가슴을 찌름으로 토마스를 숨지게 했다.

- (7) 그 군인은 자기가 선한 사람을 죽인 것이라는 자책을 하면서 땅에 떨어져 있던 성경책을 집어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군중들에 의해 ‘매맞아 죽었다’는 기록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고종실록에 수록되어있는 “그들 모두는 체포되어 묶여져 강변으로 끌려왔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곧 성난 백성들과 군인들에 의해 매맞아 죽었다” 라는 기록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먼저 짚어 보아야 할 것은 당시의 조선 문서들은 오류나 혹은 거짓 기록들이 있어서 그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추후 조선 정부가

중국 정부의 예부에 보낸 서면호사건 해명서에서도 “미국배가 불에 타버렸다거나 선주와 선원 24명이 붙잡힌 일은 없다.... 와전된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했었다.

고종실록이 기록하고 있는 서면호 승조원들의 죽음에 대한 서술도 일부 거짓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 사건에 참가했던 당사자나 그 후손이나 또 현장 목격자들이 “칼에 맞아 죽임당했다”고 추후에 진술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종 실록은 왜 그런 기록을 남겼을까? 한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그 실록의 기록은 평양 감사 박규수가 조정에 보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다. 우선 그 기록에 모순이 있다. 먼저 ‘승조원들 모두를 체포, 포박하여 강변에 끌어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누가 승조원들을 체포, 포박했겠는가? 군인들이다. 죄인들을 체포했으면 군인들은 오히려 그들을 상관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 어떻게 군인들과 백성들이 맘대로 죄인들을 때려죽일 수 있겠는가? 그때 총 지휘를 했던 박규수 평양 감사에게 죄인들을 일단 끌고 갔었다는 서술도 있다.

그러면 평양 감사 박규수는 서면호 승조원들을 참수해 죽였는데, 왜 성난 군인들과 백성들에 의해 모두 ‘매맞아 죽었다’라는 보고를 했을까?

박규수 감사는 암행어사 활동을 뛰어나게 할 정도로 우수한 머리를 가진 관료였다. 그는 중국의 수도에 갔을 때, 거기서 발달된 서양 문물들과 서구국가들의 강한 힘의 일부를 보고 온 사람이다. 또 그때는 대원군이 프랑스 천주교 신부들을 죽인 것에 대한 응징으로 중국에 와 있는 로즈 제독의 프랑스 함대가 조선으로 쳐들어 온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실제로 그때 프랑스군은 조선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토마스는 그때 그 함대에 승조하여 조선으로 가려고도 했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반란이 발생하므로 그 계획이 연기되었었다.

그런데 서면호의 승조원들은 그 당시 강대국인 영국과 미국의 시민들이다. 상국으로 모시는 청국인들도 16명이나 된다. 지금은 집권자 대원군의 명령으로 서면호 승조원들을 다 죽였지만, 차후에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 알수없는 것이다. 혹시 살해당한 승조원들이 속한 강대국들 측에서 책임을 묻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청나라 백성 16명 살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나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후일 개화파의 우두머리가 될 정도로 국제 정세를 좀 알고 있는 정치인이다. 박규수로서는 그런 차후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난 병졸들과 백성들이 승조원들을 다 때려죽였다’라고 보고를 한 것이다. 승조원들의 살해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김으로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책임 문제’에 모면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추후에 미국측에서 서면호 사건에 대한 해명과 손해 배상등을 거론할 때 조선 정부측은 ‘그것은 서면호가 악행을 저질러, 성난 군중들에 의하여 배가 불탔고 승조원들이 죽임당한 것이다, 정부는 관여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보면, 실록의 기록도 그런 차원에서 거짓으로 기록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 토마스는 순교자인가, 아닌가?

1980년대부터,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 역사학자들의 행보가 ‘좌향 좌’가 되면서 토마스 선교사 연구에서 그를 ‘순교자’로 볼 수 없다는 반론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처음 도전장을 내민 사람은 이만열(당시 숙대 교수)이었다. 그는 1985년, ‘한국교회사 특강’에서,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로 평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1988년 출간한 ‘한국기독교회 100년사’에서도, “대포로 중무장하고 들어온 상선의 ‘통역사’, ‘항해사’인 토마스를 순교자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데 그의 ‘특강’이나 그의 책에서 이만열은 학자로서의 토마스 연구 과정에 의심이 가는, 한 기초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토마스의 선내 신분을 ‘항해사, 통역사’라고 했고, ‘그 배의 인도자로 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논한대로 토마스 목사는 그 배에서 공식 통역사도 아니고, 더구나 ‘항해사’는 아니었다. ‘항해사’는 함선에서 선장 다음의 중요 간부인데, 토마스는 항해사 자격이나 경험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또 대동강 항행에 전혀 경험이 없는 토마스 목사가 ‘배의 인도자’로 왔다는 것도 ‘영터리’서술이다. 토마스 목사의 제너럴 서면호에 서의 신분은 ‘승객’이었다.

1994년에 한 좌파 역사연구회가 발간한 ‘한국역사’에서는, “미국은... 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추구하면서 조선도 개국시키고자 하였다. 1866년 7월 미국의 제너럴서면호가 열강 중 최초의 침략을 도발하였다.”라며, 이 사건은

전형적 ‘미제국주의 대외정책 반영’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일개 상선이 무역을 하려고 미국정부와는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조선에 들어온 것을 ‘미국의 침략’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2005년 한규무(광주대 교수)는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토마스의 순교 문제 검토’에서 ‘대포를 장착하고 중무장을 한 선박을 타고 와서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고... 선교로 볼 수 없다.’, ‘불법으로 입국해서 전투를 벌이다가 죽은 사람을 순교자로 둔갑시킬 수 없다’는 논지의 글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토마스 목사의 조선 입국 동기와 과정에 대해 ‘선교’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 및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순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는 그들이 사료(史料)나 자료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을 하는 글을 쓴 이들이 보여주는 역사 인식 저변에는 ‘오도된 민족주의’와 ‘반미적’인 ‘평향적’ 시각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좌 편향 학자들의 셔먼호와 토마스 목사에 대한 시각은 북한의 것과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다. ‘셔먼호 사건에 관하여는 북한이 더 깊이 있게 연구했다’며 북한측 자료들과의 연관성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 이미 언급했지만 북한의 셔먼호 사건에 대한 역사 서술은 ‘반미’, ‘오도된 민족주의’, ‘김일성 우상화’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왜곡, 허위, 날조의 ‘가짜(fake) 역사’이다.

기독교인 및 사역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그를 ‘순교자’로 인정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국가나 상아탑이나, 어떤 다른 기관이 간여할 사안이 아니다. 어떤 ‘죽음’에 대하여 공(公)교회가 그것을 ‘순교’라고 정하고 기념할 때는, 그에 관한 충분한 근거나 연구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토마스 목사의 활동을 ‘한국에 온 첫 선교사’, 그의 죽음을 ‘한국에서의 첫 순교자’로 단정한 것은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과 또 한국에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미국의 모(母)교회였다. 그때 한국에 파송되어 왔던 미국 선교사들은 학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신학) 석사학위 소지자들이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선교사들도 많았다. 선교 초기에 미국 교단 선교부 측에서 우수한 목사들을 조선에 선교사로 보낸 것은 그때 조선을 ‘독립 왕국’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선교사들이 충분한 근거나 연구없이 토마스 목사를 한국에 온 ‘첫 선교사, 첫 순교자’로 단정했겠는가?

한국에 온 미국교회의 첫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토마스가 한국에 온 첫 선교사요, 첫 순교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평양지역 선교의 개척자 Samuel A. Moffett 은 1909년 ‘한국의 전도사역’이라는 논고에서 토마스 목사를 ‘한국에 들어온 첫 선교사’라고 밝히고 있다. 인천 및 강화지역 선교개척자인 감리교회 선교사 Herbert Jones 등도 토마스를 한국에 온 첫 선교사요, 첫 순교자라고 했다. 1927년, Floyd E. Hamilton은 ‘The First Protestant Martyr in Korea’라는 논고를 ‘Korea Mission Field’에 실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토마스 목사를 ‘한국에서의 첫 순교자’라고 단언하였다, 미국복장로교 선교사인 그는 당시 숭실학교와 평양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활동했던 지성파 목사다.

1925년, ‘평양노회 지정 각 교회 사기’가 강찬규, 김선두, 변인서의 편찬으로 나왔는데, 거기서도 토마스 목사를 한국의 첫 순교자라고 단정하였다, 1926년 제14회 장로교 총회에서 토마스 목사를 순교자로 정하고, ‘토마스목사 순교 6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듬해인 1927년에는 ‘토마스목사 순교 기념전도회’(회장 : Moffett 선교사)가 설립되었다, 1928년엔 오문환의 역작 ‘토마스 목사전’이 나왔다. 1932년에는 평양 조왕리에 ‘토마스목사 순교기념교회’가 세워졌다, 1934년에는 ‘미 복장로교회 선교사 1권, 1884-1934’이 나왔는데, 그 서두에 토마스 목사의 한국선교와 그의 순교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 선교를 시작했던 모 교회가 토마스의 선교와 순교를 인정한 것이다.

특히 1966년에는 한국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등 여러 교단들이 토마스 선교사 ‘순교 100주년’을 기념했다. 일부 좌 편향 학자들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토마스 목사가 ‘순교자’로 둔갑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일관되게 토마스 목사를 한국땅에 온 첫 선교사, 최초로 이 땅에 피를 뿌린 첫 순교자로 인정하고 기념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입구 벽에는 토마스 목사 순교 장면을 그린 대형 그림이 지금도 전시되어 있는 것이다.

1866년, 그때 토마스 목사는 최초로 한국 땅에 구원의 복된 소식을 뿌린 ‘복음의 개척자’였다. 그가 대동강변에서

뿌린 성경을 통해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 후에 나온 초기 선교사들의 글이나 ‘토마스 목사전’ 책 등에 수록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토마스를 칼로 죽인 군인까지도 토마스가 죽기 전에 건네준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가 읽으므로 예수를 믿게되어 평양 교회의 초대신자가 되었고, 그 가정이 다 믿는 자가 되었으며, 조카 손주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를 도와 한글 성경 번역에 헌신하는 교회 역꾼이 되었다,

그때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받았던 12살 소년 최치량은 그 후 평양지역 교회 초기 교인이 되었으며, 오문환이 ‘토마스전’을 쓸 때 그는 평양 인근 교회의 장로였었다. 사건 때 본부 응수로 활약했던 박영식은 땅에 떨어져 있던 성경책들을 주워 모아 집으로 가져가서 벽지로 사용하여 도배를 하였다. 그 후 그도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 집을 그 후 최치량이 사서 여관을 경영했는데, 추후 그 여관에 언더우드, 마포삼열 등이 그 여관에서 묵으며 성경책을 찢어 도배된 그 벽을 보았다는 것이다. 물론 최치량은 그가 목격했던 장면 등을 선교사들에게 얘기했었다.

서면호 사건 때 (퇴역)교졸로 화공작전 등으로 크게 활약하여 나중에 조정으로부터 ‘오위장’ (혹은 진장) 특전을 받았던 박준권은 역시 토마스 목사가 던져 준 성경을 집어 들고 집에 가서 읽으므로 기독교인이 되어, 평양교회의 초대 신자가 되었고, 그 후 교회의 ‘영수’까지 되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다 초기에 나온 토마스 목사전에 대한 글이나 책에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본인 혹은 후손들에 의해 살아있는 ‘증언’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 후 평양에는 수많은 교회가 들어섰고,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한국 신앙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중심지가 되었다.

한국,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마당에는 하나의 커다란 돌 비(碑)가 세워져 있다. 거기에는 교부 터틀리언이 말했다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 1866년 9월 2일, 평양 대동강변에 뿌려진 27세의 젊은 목사 Robert Jermain Thomas의 순교의 피는 그 후 한국 땅에 기적적인 부흥을 이룬 한국 교회의 밑거름과 씨앗이 된 것임이 틀림없다.

■ 토마스 선교사의 입국, 활동 그리고 죽음

- 이상규(고신대학교, 교회사학)

이 글은 2016년 8월 31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부전교회에서 행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순교 150주년 기념 예배 및 심포지엄’에서 행한 강연을 요약한 것임, 이 글에서 고무송, 『토마스와 함께 떠나는 순례여행』 (쿠팡출판사, 2004),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1』 (생명의 말씀사, 2004), 오문환, 『토마스 목사전』 (평양, 1928), 프라이스 스틸라, 『조선에 부르심을 받다』 (Korea. com, 2016)와 Hamilton, Moffett, Rhodes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나 각주로 처리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다.

○ 시작하면서

부산지역의 부전교회를 비롯하여 주변의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150주년을 기념하여 함께 이를 기념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을 추진하여 주신 한국기독교사연구소의 박용규 소장님과 이 뜻에 공감하여 기꺼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전교회와 박성규 담임목사님, 그리고 당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한다. 부전교회는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건강하고 건실한 교회이고 박성규 담임목사는 부산의 영적 갱신과 부흥을 위해 헌신하시는 영적 지도자라는 점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오늘 모임에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 깊이 연구하신 박용규 교수님이나 토마스 목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고무송 목사님과 같은 학자가 강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양했으나 부산에 살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오늘 필자는 토마스 선교사가 걸어갔던 26년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오늘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 주는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16세기 독일의 위대한 화가였던 알브레히트 뉘러(Albrecht Durer, 1471-1528)는 ‘그림’(painting)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죽은 자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초상화를 그렸다. 오늘 우리의 ‘기념’(commemorate)도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고, 둘째는 토마스 목사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기리는 일이다. 이 목적을 위해 우선 토마스 목사가 살아갔던 삶의 여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과 삶, 그리고 오늘의 교회 현실을 성찰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1. 출생과 가정 배경, 학교 교육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1840-1866)는 로버트 토마스(Robert Thomas, 1810-1884)와 메리 윌리엄스(Mary L. Williams, 1817-1895)의 6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는 당시 웨일즈의 위대한 설교가이자 웨일즈 부흥을 주도한 윌리엄 윌리엄스의 제자인데, 중부 웨일즈에 있는 신학교에서 수학했다. 1837년 4월 18일 목사 안수를 받은 그는 1839년 여름 라야더(Rhayader)의 터바나클 교회 부임했는데, 바로 이곳에서 둘째 아들 저메인 토마스가 출생했다.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일어났고 교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다.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1795년에 창립된 런던선교회에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후에 그의 아들이 런던선교회의 파송으로 중국으로 향하게 된 것은 흥미로운 관련이 아닐 수 없다. 로버트 토마스 목사는 1848년에는 몬머스셔(Monmouthshire)의 하노버 교회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저메인 토마스는 8살이었다. 토마스는 이곳 하노버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된다.

토마스의 교육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최초의 공교육이 이루어진 곳은 란도버리(Landover) 칼리지에 3년간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그는 헬라어와 라틴어, 그리고 프랑스어를 공부했는데 이때부터 다른 아이들에 비해 언어능력이 탁월했다고 한다. 그가 언어에 재능이 있었다는 점은 그 이후의 다른 기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 후 토마스는 옥스포드대학교 지저스 칼리지에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나이 어린다는 이유로 입학이 보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토마스는 도제식 의학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스텔라 프라이스(Stella Price)에 의하며 토마스는 외과 의사가 되는 교육을 받으라는 주변의 권고를 받고 워터만(Waterman) 의사 휘하에서 2년간 의학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왕실의사면허 시험 제도가 있어 공인된 의사 밑에서 훈련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가 2년여 이런 교육을 받았으나 적성에 맞지 않았고, 육신의 치료자보다는 영혼의 치유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잉글랜드 노스햄튼 지역 온들(Oundle)에 있는 알프레드 뉴스 학교(Alfred Newth's school) 보조교사로 부름을 받고 약 1년간 일하게 된다. 이 학교 교장 알프레드 뉴스는 중국선교를 준비했던 사람으로 로버트 모리슨에게 중국어를 배운 인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토마스는 알프레드 뉴스를 통해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토마스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캐롤라인 갓프리(Caroline Godfrey)였다. 토마스는 주일에는 온들 회중 교회에 다녔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중 존 갓프리의 외동딸 캐롤라인 갓프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 여성은 토마스보다 2살 연상으로 후일 아내가 된다.

일 년간의 교사 생활을 마감한 토마스는 고향 하노버로 돌아갔고, 이때 아버지 청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8절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본문의 설교였다. 아마도 이것은 자신의 신앙고백이었을 것이다. 토마스는 1857년에는 런던대학교 뉴칼리지에 입학했다. 온들에 있을 때 교장이었던 알프레드 뉴스의 친형인 새뮤얼 뉴스가 당시 학장이었다. 이곳에서 2년 만에 학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3년간 최고의 금액인 밀스장학금을 받았다. 이 시기가 웨일즈의 영적 부흥기였는데 토마스는 교수드라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 년 간 휴학했는데, 휴학기간동안 지역교회에서 설교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복학한 그는 중국선교에 대한 조바심으로 학교에 조기 졸업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가 선교의 이상을 갖게 된 데는 귀츨라프의 영향 또한 없지 않았다. 토마스는 1832년 충청남도 보령시의 고대도와 조선 해안을 방문했던 귀츨라프의 항해기를 읽은 것으로 보이는데, 귀츨라프가 서해안을 따라 여행하면서 성경을 보급했듯이 후일 토마스도 동일한 방법을 선택했다. 1859년 10월 토마스는 런던선교회 소속의 록하르트(Lockhart) 선교사의 설교 듣고 큰 감명을 받는데, 그의 설교 또한 선교사의 길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록하르트는 1861년에는 영국공사관의 공의로 베이징에서 활동하게 된다.

2. 선교사로의 길

토마스는 1863년 5월 뉴칼리지 졸업했다. 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6년이 소요되었다. 졸업 후인 5월 29일에는 런던의 회중교회에서 온들에서 만난 캐롤라인 갓프리와 결혼했다. 이때 토마스는 23세, 아내는 25세였다. 결혼 6일 후인 6월 4일에는 목사안수 및 선교사 파송식이 거행되었다. 이로부터 7주 후인 7월 21일 토마스 부부는 그레이브센드(Gravesend) 항구 떠나 상해로 출발했다. 그가 중국으로 가게 된 것은 몇 가지 연쇄적 영향도 없지 않았지만 당시 중국은 인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선교지였고,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된 지역이었다.

토마스는 영국을 떠난지 4개월 만인 1863년 12월 첫 주 상하이(上海)에 도착했다. 런던선교회 상하이 지부장 무어헤드(William Muirhead)의 충심의 영접을 받았으나 두 사람 간의 친밀한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상하이 도착 2개월 후인 1864년 2월 4일 자로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남아 있는데 이 문서에는 당시 정황을 헤아리게 해 주는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도착 4개월 후인 1864년 3월 11일 런던선교회의 그리피스 존(Griffith John)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한커우(漢口)로 갔는데 그 기간 동안 임신 중이던 부인은 유산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1864년 3월 24일 2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토마스는 타지에서 아내의 죽음을 맞게 되었고, 이 일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사별의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토마스는 또 다른 고뇌에 빠졌는데, 상하이지부장 무어헤드와의 갈등이었다. 선교관의 차이에서 유래한 갈등은 토마스에게는 심각한 현실이었다. 상하이에 주재하는 영국인을 위해 목회했던 무어헤드는 상하이가 선교 중심이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토마스는 자국민보다 중국인 선교가 우선해야 된다고 보았고, 한커우로 가고 싶어 했다. 토마스에게 신설되는 학교 교장직 요청을 받았으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역은 그에게 매력적이지 못했다. 결국 토마스는 런던선교회를 사임하게 된다. 1864년 12월 7일이었다. 곧 이 일을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후회하게 되지만 토마스에게는 성급함과 무모함이 없지 않았다. 고무송 박사는 토마스에게는 모험정신, 강한 의무감, 무모함, 성급함, 엘리트 의식 등 몇 가지 기질 혹은 특징이 있다고 보았는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런던선교회를 사임한 그는 현재 엔타이(煙臺)라고 불리는 지푸(Chefoo)로 이동하여 이곳 세관의 통역 및 감독관으로 일했다. 이때부터 1865년 8월 31일까지 약 8, 9개월간 일했다.

3. 제1차 조선 방문

지푸는 산둥성 북부의 해안도시로서 조선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당시로 볼 때 외국과의 무역을 허용한 유일한 항구였다. 이곳에서 토마스는 두 사람의 한국인을 만나게 된다. 이곳의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 알렉산더 윌리엄슨(Alexander Williamson)은 두 한국인을 만나게 되는데, 김양선에 의하며 그 두 조선 사람 김자평(金子平)과 최선일이라고 한다. 윌리엄슨은 이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했는데, 토마스도 함께 초대되었고, 이들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듣게 된다. 즉 한국의 로마가톨릭 신자는 5만명이 이르고, 11명의 신부들이 비밀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런 접촉을 통해 토마스는 조선 선교를 자원하게 되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대리인 자격으로 1865년 9월 4일 ‘허락되지 않는 땅’(terra incognita) 조선으로 향하게 된다. 이것이 제1차 조선 방문인데, 윌리엄슨으로부터 한문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보급받았고 또 약간의 경비 지원도 받았다. 이때 김자평이 동행했고, 중국인 우웬타이가 항해를 맡았다. 그달 13일에는 황해도 해안에 도착했는데, 이곳이 황해도 웅진 자라리(紫羅里) 근포(近浦)였다. 이곳에서 성경을 나누어 주며 전도했고 한양까지 가려했으나 배가 파선되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을 떠난 그는 만주의 피쯔위 항구를 거쳐 도보와 말을 타고 여행하여 1866년 1월 4일 혹은 5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지푸를 떠난 지 4개월 만이었다. 조선에 체류한 기간은 2달 반 정도였고, 체류한 곳은 서해안, 곧 황해도나 평안도에 속한 도서 지방이었다. 김양선 교수의 지적처럼 토마스를 인도했던 김자평이 황해도의 ‘육도’였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아는 지역으로 안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곳에서 성경책과 기독교 문서를 배포했다. 이점은 토마스가 두 번째 조선으로 향하기 일주일 전에 런던선교회 지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토마스는 런던선교회 선교사로 재가입 되었고 근무지는 베이징 지부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즉 재가입된 것은 1865년 9월에서 11월 사이로 판단되는데 이 점은 토마스가 런던선교회 소속으로 조선을 방문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토마스가 런던선교회 티드만 회장에게 보낸 조선 방문 보고는 당시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다(스텔라, 100).

4. 제2차 조선 방문

고종 3년인 1866년은 우리나라 최대의 천주교 박해인 병인박해가 있었던 해였고 이때 대원군은 천주교를 금압했을 뿐 아니라 약 8천명의 천주교인이 죽임을 당했다. 이때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던 베르뇌(Berneux) 주교를 비롯하여 9명의 프랑스 주교들이 참수되었다. 천주교도를 색출하기 위해 오가작통법으로 감시했고 해안은 봉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토마스는 두 번째 조선을 방문하게 된다. 토마스는 조선에서의 천주교 박해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선행을 시도했다. 그러던 중 프랑스 해군사령관 로즈 제독으로부터 통역관으로 조선으로의 동행을 요청했다. 로즈 제독은 베이징의 프랑스 대사관을 방문했는데, 프랑스 대리공사 벨로네(Bellonet)에게 조선에서 일어난 천주교 박해 소식, 특히 프랑스인의 처형 소식 알려주었다. 벨로네는 로즈에게 조선 진격을 요구했고, 약

간의 조선어를 알고 있는 토마스에게 로즈 제독의 통역관으로 조선 동행을 요청한 것이다.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았으나 토마스는 조선으로 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서 던진에서 로즈 제독과 합류하여 지푸를 거쳐 조선으로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로즈 제독은 베트남 사이공에서 일어난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그리로 가게 됨으로 원래 계획이 취소되었다.

토마스는 조선으로 갈 길을 찾기 위해 일단 지푸로 갔다. 여기서 필요한 경비도 마련할 계획이었다. 여기서 다시 윌리엄슨과 한국인 김자평을 만났는데 이들을 통해 조선 방문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1884년 7월 29일 지푸에 커다란 선박이 나타났다. 그것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였다. 원래 이 배는 1861년 영국에서 건조한 범선으로 ‘프린세스 로얄’호로 불렸으나 1863년 1월 미국으로 넘겨져 미 해군에서 사용하였고, 1865년에는 경매에 넘겨져 상선으로 개조되었다. 남북전쟁 당시 위력을 떨친 남군의 장군 셔먼으로 이름을 따 제너럴 셔먼으로 개칭되었으나 더 이상 해군 함정이 아니라, 영국의 메도우사(Meadows Company) 소속 상선이였다. 이 배는 조선에서 팔릴만한 비단, 유리그릇, 천리경, 자명종 등을 싣고 던진항을 거쳐 지푸로 온 선박이었다. 토마스가 어떻게 이 배에 승선하게 되었는가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조선행을 의도했던 토마스에게는 조선행의 호기였다. 그 배가 어떤 성격의 배인지, 조선 방문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따질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토마스는 베이징을 떠난지 26일 만인 1866년 8월 9일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했고, 이날 셔먼호는 조선으로 향했다. 알렉산더 윌리엄슨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한문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공급받았다. 제너럴 셔먼호는 무장한 상선으로 승선인은 전주 미국인 프레스턴(W. Preston)을 비롯하여 항해사 윌슨(Wilson), 선장 페이지(Page), 화물관리인 영국인 호가스(G. Hogarth), 토마스 선교사, 두 사람의 중국인 이팔행 등 항해안내원, 그리고 중국인과 말레이아인 선원 등 24명으로 파악된다. 후의 일이지만 고종실록에는 프레스턴을 보래돈(普來敦)으로, 페이지를 파사(巴使)로, 호가스를 하갈특(何噶特)으로, 토마스를 최란헌(崔蘭軒)으로 표기했다. 물론 최란헌이라는 표기가 토마스를 표기한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다.

지푸를 떠난 제너럴 셔먼호의 첫 경유지는 백령도의 두무진 항이었다. 이곳에서 토마스는 성경을 나눠주었고, 이때 제너럴 셔먼호를 목격했던 한 조선인의 목격담이 스틸라 프라이스는 자신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124쪽). 곧 백령도를 떠나 돛섬으로 향했는데, 여기서 중국인 선장 우웬타이(Yu-Wen-Tai) 만나게 된다. 그는 여러 차례 조선의 해안을 왕래하며 장사했던 중국인이었다. 다시 배는 대동강 안쪽으로 행진했다. 외국선박의 입항이나 접촉을 금지했던 조선의 사정을 알고 있던 선원들은 안전을 위해 더 이상 진출 우려했으나 선장과 선주는 우웬타이의 경고를 무시했다. 조선 사정이 밝은 우웬타이는 더 이상 안내할 수 없다며 지푸로 돌아갔다. 그러나 셔먼호는 자만했다.

5. 대치 상황과 제너럴 셔먼호의 최후

8월 16일에는 용강면 다미면 주용포항에, 8월 17일 금요일에는 항주 송산에 정박했다. 예상되는 바이지만 강둑에는 이양선을 보기 위해 조선인들이 몰려들었고, 조선관리는 긴급 회합하여 선박의 철수를 요구했으나 셔먼호는 입항을 고집했다. 고종 3년, 곧 1866년 음력 7월 15일자 고종실록에는 당시의 상황이 언급되어 있다. 배는 더 진행하여 8월 20일에는 평양 초리방 사포구에 이르렀다. 이곳에서도 서양 선박은 구경꺼리였다. 많은 이들이 구경하러 몰려왔다. 오문환에 의하면 홍신길이라는 소년도 작은 배로 셔먼호 근처로 접근했고, 토마스는 갑판에서 그를 맞이하여 방으로 데리고 기독교 문서를 주고 그에게 케이크를 맛보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감자를 보았다고 한다. 또 그날 밤에는 인근 쑥개마을에서 장인국 지달수 지달채 지택구 지택봉 지택주 장용국 지달해 표명보 등 아홉 사람이 토마스를 찾아갔다고 한다. 이 들 중 장용국 외에는 천주교 신자들인데 천주교 신자들을 보호해줄 프랑스 선박을 기다리고 있던 중 셔먼호로 찾아간 것이다. 토마스는 자기는 천주교 신자도 프랑스 함대도 아니라고 말하고 개신교 선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성경과 기독교 문서, 그리고 빅토링여왕 얼굴이 새겨진 동전까지 주었는데, 천주교신자들은 성모 마리아상으로 오인했다고 한다. 오문환 장로 기록의 정확성은 확인할 수 없으나 조선인과의 접촉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얼마 후 지달수와 지달해는 서양인 접촉했다는 이유로 참수되었다고 한다.

다음날 조선 관리가 선박의 철수를 요구했을 때 셔먼호는 교역을 원한다며 비단, 유리, 망원경, 자명종을 조선의 쌀, 인삼, 종이, 호랑이 가죽 등과 교환하자고 했다. 그러나 교역을 금하는 정책에 따라 이를 거절했다.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것은 제너럴 셔먼호의 오만이었고 신중치 못한 처신이었다. 대치 상황은 약 2주일간 계속되었다. 조선

관리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행을 고집하고 8월 21일에는 평양 신장포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도 구경꾼들이 몰려왔고, 토마스는 성경책을 나눠주었다. 토마스로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면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성경 받은 김영섭은 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드렸고, 두 아들 김종권과 김성집은 후일 장로가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도 조선 관리 김낙수는 선박의 도래 경위를 조사하고 철수를 요구했다. 8월 22일 셔먼호는 평양 만경대의 작은 섬 두로도에 닿을 내렸다. 토마스 이곳에서 100권의 성경 배포했다고 한다. 평양 감사 박규수는 셔먼호의 공격에 대비하여 만경대를 둘러싸는 방어선 구축 지시했다. 그럼에도 셔먼호 대동강으로 계속 진입했다. 8월 27일에는 보다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다. 셔먼호 승무원들이 순시 대장 중군(中軍) 이현익을 억류한 것이다. 조선에 무단 침입했을 뿐 아니라 퇴거를 거부하고 조선 관리를 억류한 일은 심각한 일이었다. 셔먼호의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혹은 물이나 식량, 연료를 공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없지 않으나 방자한 행동이었다. 선원 중 한 사람은 이현익의 관원 명찰을 빼앗은 일을 더욱 그러했다.

이현익의 억류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셔먼호에 돌을 던졌고, 석방을 요구했다. 관군은 사격을 가했다. 셔먼호 측에서도 발포했다. 이런 와중에서 박춘권(朴春權)이 혼자 배를 저어 가 이현익을 구출했다고 한다. 오문환에 의하면 그가 후에 평양의 장로교회 첫 인물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셔먼호가 수세에 몰리자 더욱 난폭하게 대응했다. 8월 28일 발포를 시작했고, 8월 31일에는 조선인 7명이 사살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태는 심각하게 전개되었다. 고종의 허락에 따라 평양 감사 박규수는 셔먼호 공격을 지시했다. 9월 3일이었다. 박규수는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로서 개방론자였으나 셔먼호의 무단 접근은 용인될 수 없었다. 곧 강 수위는 낮아졌고 배는 좌초되었다. 9월 4일 달빛도 없는 그믐밤이었다. 결국 선원은 쑥섬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작은 거룻배에 나무를 싣고 불을 붙여 셔먼호로 접근시켜 셔먼호 불태웠다. 선원들은 불길을 피해 강밖으로 헤엄쳐 나왔으나 강변에 정렬해 있는 군인들에 의해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 토마스 목사도 남은 성경책을 안고 배에서 뛰어 내렸다. 강가로 끌려온 그는 모래사장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성경을 관군에게 내밀었다. 관군의 칼은 토마스의 가슴을 내리쳤고 토마스는 9월 5일 대동강 쑥섬 모래사장에서 26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토마스의 시신은 대동 강변에 묻혔다.

6. 토마스의 순교 이후

토마스의 최후에 대해서는 상이한 기록이 남아 있다. 배가 불타고 선원들이 죽임을 당할 때 토마스는 뱃머리에서 홀로 야소(耶蘇)를 외치고 남은 성경을 뿌렸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한석진 목사는 토마스가 순교한지 26년이 지난 1892년 당시 목격자로부터 제널 셔먼호가 불탈 때 토마스가 성경을 던지며 ‘야소’를 외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을 남겨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백기를 흔들며 목숨을 구한 외국인도 한두명 있었다고 한다. 그 한 사람이 토마스였을 것으로 말하는 이도 있다. 기록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균형 있게 판단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토마스의 죽음과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제너럴 셔먼을 구경하러 갔던 소년 최치량(崔致良, 1854-1930)에 관한 이야기가 그것이다. 그는 12살 때 숙부와 함께 1866년 9월 3일 토마스 순교 장면을 목격하였고, 토마스 목사가 뿌린 한문성경 3권을 주었다고 한다. 책 소지자에 체포 명령이 내려 대부분 성경을 소각하거나 강변에 버렸다. 최치량도 이 성경을 집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영문주사(營門主事) 박영식(朴永植)에게 주었다고 한다. 박영식은 이 성경을 가져와 찢어 벽지로 사용했다. 오랜 후 최치량은 사업에 성공하여 물상객주(物商客主)가 되어 평양 대동문 안에 집을 사 여관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여관의 전 주인이 박영식이었다. 최치량은 이 벽지로 사용된 성경을 읽고 또 한석진의 전도로 회심하였고, 평양에서 최초로 마펏에게 세례를 받고 평양지역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널다리골의 홍종대(洪鐘大)의 집을 사서 예배 처소로 사용했는데, 이것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서구와의 불행한 접촉이었으나 그 이후 역사는 흥미롭게 전개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과 미국간의 외교 문제로 발전하였고, 널리 알려진 바처럼 이 일이 신미양요(辛未洋擾, 1871. 6)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대결과 접촉이 후일에는 조미 양국 간의 통상조약(1882)으로 발전하여 외국인의 조선 거주를 보장 받게 된다. 결국 1884년에는 알렌이 입국하게 되는데, 토마스 순교 18년 후의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박용규 교수는 토마스의 순교는 한국교회의 보이지 않는 이정표가 되었다고 말한다. 오문환은, 토마스의 피가 뿌려진 대동강 물을 마신 자마다 예수를 믿었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교회의 거룩한 도성이 되었다고 했다.

7. 남은 문제 : 토마스는 순교자인가 침략자인가?

토마스 목사는 오랫동안 잊혀진 인물로 남아 있었다. 그가 죽임을 당하고 60년이 지난 1926년 평양의 오문환 장로는 토마스 목사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소책자를 발간했다. 그것이 토마스의 생애와 조선 기독교회사의 분수령이 되는 양란(洋亂)에 대한 기록이었다. 1927년에는 토마스 기념회가 조직되었고, 1927년 5월 8일 토마스 목사가 묻힌 축섬에서 토마스 목사 순교 60주년 기념 예배가 거행되었는데, 이때 1천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1932년 9월 14일에는 대동 강변에 토마스기념 예배당을 건립했는데, 1933년 10월 14일 봉헌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10여년 이래로 토마스를 순교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감리교의 존스(G. H. Jones) 이래로 초기 선교사들은 토마스 목사를 순교자로 인정해 왔고, 설사 계일의 경우처럼 순교자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위한 그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고 있고, 그를 정치적 희생자라든가 침략자로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토마스를 순교자로 볼 수 없다거나 심지어는 침략자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토마스는 무장상선을 타고 입국했기 때문에 순교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조선에 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로 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그가 죽은 이유가 기독교 복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제너럴 셔먼호의 부당한 처신과 횡포에 기인하는 정치적인 죽임이라고 주장한다.

일견 고려할 점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1860년대 상황에서 해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토마스가 복음의 열정, 곧 조선 선교의 이상을 가진 점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당시로는 조선 입국 방법이나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설사 무장상선이라 할찌라도 셔먼호 승선이 조선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였다. 제너럴 셔먼호의 신중치 못한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셔먼호로 입국했기 때문에 순교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선교사가 내한 이후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토마스는 1863년 이래로 선교사 신분이었고, 이미 조선을 방문한바 있고 선교사역을 감당했다. 그가 내한 즉시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순교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그의 죽음이 복음 전도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도 고려할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기독교가 금압된 당시 상황에서 서양인의 죽음, 특히 서양 선교사의 죽음을 비종교적 행동으로만 취급할 수 없다. 1866년 병인양요 때의 프랑스 선교사들은 죽음은 정치적 성격이 강했고, 외세에 의한 침략 세력으로 간주되었다. 그 누구도 프랑스 신부의 죽음을 순교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는다. 기독교가 금지된 상태에서 '선교사의 현존' 자체가 정치적 행위일 수 있고, 정치적 침략 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토마스 목사가 제너럴셔먼호로 입국한 일이나 셔먼호의 부당한 혹은 불법적인 행위는 지탄받을 수 있지만 토마스 목사는 조선인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려는 선한 의지는 부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토마스가 죽임을 당한 후 초기 선교사들을 시작으로 한국교회는 토마스를 순교자로 간주하고 그의 죽음의 의미를 기념해 왔다. 15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토마스 목사의 삶과 죽음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로버트 토마스(Robert J. Thomas) 선교사, 역사적 평가

박용규(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김순정 목사 정리

이 글은 박용규 박사가 「신학지남」에 기고한 논문이다. 저자는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연구 동향과 사료문제를 통해 과연 그가 선교사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그의 죽음에 대한 해석들과 그의 순교가 가져다 준 첫 영적인 결실들을 제시하고 있다.

● 들어가면서

- (1) 토마스 선교사 연구 동향과 사료 문제
- (2) 토마스 선교사의 중국 입국과 1, 2차 내한 선교 문제
- (3) 제너럴 셔먼호 입국과정과 관련 고종실록과 기타
- (4) 오문환의 〈도마스 목사전〉을 통해 조명한 토마스의 2차 선교 문제
- (5) 그의 죽음과 관련된 해석
- (6) 토마스의 순교가 가져다 준 첫 영적 결실들

● 맺는 말

● 들어가면서

1866년 8월, 영국의 한 젊은이가 한국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미국상선 제너럴 셔먼호(the General Sherman)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 조선에 입국했다가 평양 양각도에서 그해 9월 5일 세상을 떠났다. 그 젊은이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1839~1866, 崔蘭軒)선교사다. 오문환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전해주다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고, 〈고종실록〉은 토마스가 조능봉과 함께 배어서 나와 결박된채 민관에 의해 맞아 죽었다고 기록했다. 해밀턴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는 “한국의 첫 개신교 순교자”였다.

2016년 9월 5일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 순교 15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그의 순교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왔다. 한국선교, 특히 평양지역 선교의 개척자 사무엘 마펏(Samuel A. Moffett)은 1909년 한국선교 25주년 기념식 때 한국의 “복음전도사역”이라는 자신의 논고 맨 서두에서 “한국에 들어온 첫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가 “죽을 때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을 반포”했으며 “그에게서 성경책을 받은 얼마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한국선교 25주년의 선교사역을 정리하는 순간,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마펏은 주저하지 않고 토마스의 죽음에서 한국선교의 기원을 찾았다.

토마스의 거룩한 죽음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개척선교사는 사무엘 마펏만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한국선교사들은 토마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장로교 개척선교사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1884년 여름 영국 런던선교회를 방문해 그곳에서 런던선교회 소속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했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릴리아스의 증언에 의하면 언더우드는 런던선교회에서 들은 토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 있게 되풀이 하곤 했다. 그만큼 그가 토마스의 죽음을 인지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것이다.

토마스의 순교를 높이 평가한 것은 장로교 선교사들만이 아니었다.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H. G. Appenzeller)는 한국에 입국한지 채 2년도 되지 않던 1887년 1월 29일 미국 슈펠트 제독(Admiral Shufelt)가 자신이 직접 관여한 한국의 개항관련의 증언을 담은 “한국의 개항: 슈펠트 제독의 개항설명”을 전해받았다. 이 원고는 아펜젤러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제너럴 셔먼호를 포함한 상세한 한미관계와 개항과정을 담고 있다.

아펜젤러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토마스의 죽음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는 이 원고를 5년이 지난 1892년 The Korea Repository에 기고했다. 한국에 파송된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입국하기 전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 로스의 저술을 통해 제너럴 셔먼호의 사건을 통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차에 슈펠트가 고종의 초청을 받고 조선에 입국하자 그에게 부탁해 한미관계와 조선의 개항

소식을 직접 전해듣기를 원했다. 아펜젤러의 글은 제너럴 셔먼호와 토마스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1915년 미 감리교 개척 선교사 존스는 제너럴셔먼호를 타고 온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최초의 복음주의 선교사가 그 땅에서 순교자의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교회가 토마스의 순교를 본격적으로 기념하기 전 1925년 강규찬, 김선두, 변인서가 편찬 저술한 <평양노회지경각교회사기>에도 “주후 1867[1866]에 영국 선교사 도마스가 스카턴 성서공회로부터 미국풍선을 승하고 평양에 래하였다가 감사의 습격을 당하여 대동강에서 순교하니 차가 야소교 신도의 혈이 아국강산에 시적한 일이라”며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로 단정하여 기술하였다.

이처럼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한국교회가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로 생각한 것은 후대의 일이 아니라 초기 증언자들, 특히 그에게서 성경을 전해 받고 예수를 믿고 자신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당대의 살아 있는 증언자들로부터 생생한 스토리를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소수의 학자들이 마치 토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순교자로 둔갑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주관적 평가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토마스의 선교적 공헌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먼저 1910년대부터 그에 대한 연구와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다 1920년대부터 토마스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1926년 오문환의 소책자, <평양양란>이 간행되었고, 1926년 11월 14일 제 14회 총회 때 토마스 선교사 순교 60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으며, 1927년 5월 7일에는 토마스 목사 순교 기념전도회(회장 마펏)가 창립되었다.

그해 해밀턴이 <코리아미션필드>에 “한국의 첫 개신교 순교자”를 발표하고 그 이듬해 1928년 오문환의 <도마스 목사전>이 출간되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32년 토마스기념교회가 토마스의 무덤이 있는 조왕리에 건축되었고, 1934년 한국선교 50주년을 맞는 해에 출간된 해리 로즈 편집, <미국복장로교 선교사 1권 1884-1934>에서 상당한 분량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조명에 할애했다. 1936년에는 서해안 지역 도서 전도를 위해 토마스 호가 건조되었고, 해방 후 1947년 8월 12일 토마스 목사 순교기념 전도회가 발족되었으며 1966년 9월 광주에서 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51회 총회는 토마스 선교사 순교 10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거행했다. 명신홍 목사는 “토마스(R. Thomas) 목사의 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라는 글에서 토마스 목사는 “우리 땅에 처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린 “한국교회 순교자 중에 선구자적인 순교자였다”고 평가했다. 한국교회는 ‘순교는 교회의 씨’라는 터툴리안의 증언을 가장 잘 증명해 준 인물이 바로 토마스라고 믿었다.

I. 토마스 선교사 연구 동향과 사료 문제

해밀턴(F. E. Hamilton)이 1927년 “The First Protestant Martyr in Korea”을 <코리아 미션 필드> (The Korea Mission Field)에 기고했다. 이 글은 매우 평범한 연구처럼 보이지만 제너럴 셔먼호는 물론 토마스 목사의 내한과 순교과정을 매우 탁월하게 역사적으로 그려냈다. 해밀턴의 논고는 오문환의 <도마스 목사전> 보다 앞서 발표된 논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사료적 가치가 있다. 해밀턴은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즉 게일과 케이블의 글, 그리고 기타 문헌들을 참고하여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전후관계를 고려하면서 토마스의 선교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으로 기술하였다. 해밀턴은 토마스의 복음전도와 순교가 얼마나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잘 밝혀 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해밀턴의 논고 역시 토마스 연구의 또 하나의 소중한 연구 사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듬해 오문환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기술한 <토마스 목사전, 1928>은 오랫동안 토마스의 연구의 길잡이로 평가 받아온 연구서였다. 그는 이 책을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토마스 기념사업회를 이끌며 토마스기념교회까지 세우는데 큰 기여를 했다. 오문환은 <도마스 목사전>을 기술하면서 3천통의 편지를 주고 받았고, 수많은 국내외 자료를 모으고, 후손들과도 접촉하며 토마스 연구에 천착했다. 오문환은 “The Two Visits of Rev. R. J. Thomas to Korea”라는 영어 논고를 자신의 책에 삽입시켰다. 사실, 이 영어 논고는 새로운 연구라기보다는 자신의 한글판 <도마스 목사전>에 담겨진 내용의 핵심을 영어로 정리한 것이다. 오문환의 <도마스 목사전>이 출간된 이후 이 책은 토마스 선교사 연구에 관한 한 가장 권위 있는 저술로 받아들여졌고, 토마스 선교사 연구자들은 그의 연구에 상당히 의존했다.

10년 후 1938년 케이블(E. M. Cable) 선교사가 영어로 토마스 관련 연구 논고를 발표했다. 케이블 선교사가 기록한 “한미관계 1866-1871”는 토마스 연구의 독보적인 논고였다. 국내외 관련 자료를 섭렵하여 1938년 발표한 케이블의 “The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는 토마스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넓혀주었다. 케이블의 논고는

한미관계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논고이지만 토마스와 관련된 국내외 1차 문헌들을 상당히 섭렵한 가운데 발표한 논문이기 때문에 오문환의 〈도마스 목사전〉에 견줄 수 있는 무게감을 갖고 있다. 이 논고는 영어로 기술했지만 〈고종실록〉을 비롯한 국내 기록들을 영역하여 소개하는 한편 제너럴 셔먼호 사건 관련 편지들과 문헌들을 상당히 발굴하여 1차 문헌들을 그대로 논고에 삽입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논고는 오문환의 관점을 존중하면서도 토마스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마스 연구의 객관성과 풍요로움을 더해주었다. 객관성에 있어서는 오문환의 책을 훨씬 능가한다. 그런 면에서 그의 논고는 토마스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주었다. 오문환의 책이 한글로 된 문헌이고 케이بل의 글은 영어로 된 논고였기 때문에 토마스의 연구의 모든 기록이 오문환의 기록에 의존해서 기록된 것이 사실이다.

이능화, 유홍렬, 김양선, 일본의 재일 학자 오윤태, 민경배는 영국에서 토마스 관련 1차 문헌들을 모아 토마스 연구에 대한 중요한 논고를 남겼다. 유홍렬은 자신의 〈한국천주교회사〉에서 〈고종실록〉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천주교 신자들과 신부들을 순교자로 지나칠 정도로 미화시킨 것과 달리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의 죽음을 “피살”로 기록, 호교론적인 시각이 그의 작품에 강하게 나타난다. 민경배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토마스의 편지들과 관련 개인적 기록들을 참고하여 그의 선교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잘 기술하였다.

그러나 영국 버밍햄대학에서 토마스를 가지고 박사논문을 쓴 고무송이 자신의 논문을 번역하여 출간한 〈토마스와 함께 떠나는 순례여행〉이 출간하면서 토마스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는 방대한 사료를 수집하고 개관적이고 비판적이면서 실증적으로 토마스의 생애, 사역, 죽음, 그리고 그 이후 한국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일련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정리하여 토마스 연구의 기념비적 작품을 남겼다. 그 외에도 근래 스토리 형식으로 토마스의 생애와 사역을 이해하기 쉽게 엮은 유해석의 〈도마스 목사전〉도 토마스 연구의 풍요로움을 더해 주었다.

한국에 파송된 개척 선교사들은 물론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토마스를 순교자로 이해했다. 이것은 오랫동안 한국교회의 전통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여기에 대한 도전이 강하게 일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 첫 포문을 연 사람은 이만열인 것 같다. 그는 1988년에 출간된 자신의 저술 〈한국기독교회 100년사〉에서 토마스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했다.

토마스 목사가 비참하게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단지 그가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위대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가 타고 왔던 미국 선박 제너럴셔먼호는 선교용 선박이 아니라 상선에 불과하였으며, 게다가 대포로 중무장하고 있었다. 그 선박은 입항을 불허하는 한국 정부의 명령에 불복하고 불법적으로 항해하였으며, 따라서 한국의 내륙으로 들어오자 했던 항해 목적이나 과정을 살펴볼 때 그 배를 아름답다거나 거룩하다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토마스 목사는 그 배의 통역사이자 항해사로서 승선하고 있었다. 따라서 토마스 목사 자신을 높이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그가 죽임을 당했던 대동강 굽이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교회들이 토마스 목사의 죽음의 결과와 연관되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를 너무도 안이하게 해석하는 태도에 불과하다.

이만열은 위 글에서 토마스가 선교사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고 그의 죽음이 순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대포로 중무장을 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불법으로 입국해서 정부의 명령에 불복하고 내륙으로 들어온 토마스가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고 해서 “위대한 선교사”로 추앙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게다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대동강 굽이마다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바른 역사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만열의 논고의 핵심은 토마스를 정상적인 선교사로 인정할 수도, 더 더욱 그를 순교자로, 그의 죽음을 한국교회 영적 초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이만열은 1985년 〈한국기독교사특강〉에서 여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로 평가하는 것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엄연히 주권 국가인 조선 정부의 허가도 없이 들어온 불법적인 이 배에 대해 평양 감사 박규수는 입국의 까닭을 묻고 또 제지하려 했지만 무장한 그 배는 이러한 한국 측의 경고에도 개의치 않고 방약 무인하게 행동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좌초된 상태에서 며칠이 지나자 식량과 물이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배에서 총과 대

포를 쏘며 노략질까지 하며 심지어는 교섭에 나선 한국관리를 납치까지 하려다가 결국 조선군의 화공을 받아 결국 불타고 말았던 것이다. 당시 배에 탔던 사람들이 물으로 오르자 혹은 도끼에 혹은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1907년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한창 일어날 때 어느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선교사에게 주며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께서 옛날 토마스 목사가 죽을 때 얻은 성경이다’하면서 내어 놓은 적이 있다고 하나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

아무튼 토마스 목사가 상당히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역사에서 그가 위대하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 또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자체도 그 배의 입국 목적이나 불법적으로 입국한 경위로 보아 성스럽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며 또 토마스 목사도 그 배의 인도자로 왔으니 그 다지 높이 평가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단지 그의 피가 흘렀던 대동강 굽이굽이에 뒷날 많은 교회가 섰다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이지만, 이것을 그의 죽음과 관련시킨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순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한국교회는 이제 정리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이만열의 입장은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평양대부흥운동도 “민족적 울분을 종교적으로 카타르시스”한 현상이고, 1970년대 대중전도운동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1995년 한규무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토마스(R. J. Thomas) 목사의 ‘순교’ 과정에 대한 사료 검토”를 발표했다. 토마스에 대한 귀중한 서지학적 정보를 제공한 것과 많은 자료를 분석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규무는 제너럴 셔먼호의 입국과정을 1차 사료는 물론 여러 학자들의 저술이나 논고를 참고해 도표를 만들어 토마스의 ‘순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995년 발표 때 “그의 죽음을 과연 ‘순교’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평가의 문제를 후일로 미루었다가 2005년 그동안의 연구를 정리하여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토마스의 ‘순교’ 문제 검토”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순교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조선 후기 이 땅에 들어왔던 천주교 신부들이 처형된 이유는 확실히 그들의 선교활동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분명한 순교이다. 만약 토마스도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벌였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다면 그 역시 분명한 순교자가 된다. 그러나 그는 조선의 주권을 무시하고 저지른 침략적 행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설령 토마스의 장엄한 최후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같은 필자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 그가 죽은 순간에 형리에게 성경을 주었다 해서 그의 이전 실책이 씻겨지지는 않는다. 적어도 사료상으로는 제너럴셔먼호 사건의 책임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토마스이며, 그는 성경 반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어떤 이는 결국 토마스가 그토록 무리하면서까지 평양에 가려 한 이유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였으므로, 넓게 보면 그 역시 선교활동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 하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일면 타당해 보인다. 결국 ‘순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어느 지점으로 가는데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선교사가 있다면 그 죽음을 ‘순교’로 볼 수는 없다. ‘순교’는 그 직접적 사인이 선교활동 때문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본다. 그런 이유에서 필자는 선교를 위해 남부지방으로 가던 도중 병으로 죽은 데이비스(J. H. Davis, 1858~1890)의 경우도, 목포에서 열리는 회의에 가려다 군산 앞바다에서 빠져 죽은 아펜젤러(H. G. Appenzeller, 1858~1902)의 경우도, 모두 값지고 안타까운 죽음임에 틀림없지만 순교로는 보지 않는다.

이처럼 한규무는 토마스는 물론이고 심지어 헨리 데이비스와 H. G. 아펜젤러도 병이나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한규무는 토마스에 대한 오문환의 글의 내용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를 순교자로 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국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대포를 장착하고 중무장을 한 선박을 타고 와서 성경을 나누어주었다고 그것을 선교로 볼 수 있으며, 게다가 불법으로 입국해서 전투를 벌이다 죽은 사람을 순교자로 둔갑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의 주장의 논지다. 2016년 6월 한규무는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토마스의 ‘순교’ 문제 검토”라는 동일한 성격의 글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발표했다. 이 논문은 앞서 큰 맥락에서 볼 때 앞서 발표한 같은 논제의 반복으로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라고 볼 수 없다는 논지의 반복이다.

최근 “토마스 목사의 죽음은 순교인가”라는 논고에서 옥성득은 1차 사료들과 시각적인 도표까지 만들어 토마스를 순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의 논고를 발표하였다. 그의 논지와 주장은 앞서 의견을 개진한 이만열 교수나 한규무와 큰 차이가 없다. 옥성득은 초기 문헌들 모두가 토마스를 순교로 보지 않았으며, “1905년 이전 한국이나 중국에서 토마스 목사의 죽음을 순교로 본 선교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초기 문헌들에서는 전혀 토마스를 순교로

보지 않았으며, 순교로 미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1909년에 접어들어서이며, 특별히 1915년 존스가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라고 처음 언급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그 글의 전반적인 논지는 중무장을 하고 제국주의 사고를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민관들에 의해 비참하게 처형당한 전혀 순교와 무관한 토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순교자로 둔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 같은 비평적 재평가가 최근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토마스의 입국과 죽음에 대한 오문환, 케이블, 민경배, 고무송의 연구에 다른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토마스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제기한 토마스의 재평가가 자칫 객관적인 연구를 넘어 이데올로기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만열, 한규무, 옥성득의 접근방법은 방법론적으로 각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중무장을 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불법으로 입국해 활동한 토마스를 과연 선교사로 볼 수 있으며, 전투를 벌이다 죽은 그를 순교자로 미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상호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로 보지 않는 이들은 오문환의 〈토마스 목사 전〉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고종실록〉을 비롯한 국내 기록들을 논지의 근거로 삼았다. 〈고종실록〉의 기록을 권위 있는 글로 수용하면서도 오문환의 기록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이상 앞으로 사료 선택의 문제가 토마스 선교사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토마스와 관련된 초기 관련 자료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원군 치하에서 일어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기록한 주요 국내 1차, 2차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高宗實錄〉, 〈매천야록〉, 〈大韓季年史〉, 〈涇江錄〉, 〈日省錄〉, 〈同文彙考〉, 〈龍浩閑錄〉, 〈獻濟集〉, 〈籌辦夷務始末〉, 〈청계중일관계사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평양감영등록〉(平壤監營啓錄), 〈순무영등록〉(巡撫營膳錄), 전남 담양 장흥 고씨(長興高氏) 소장문서 〈조지난편〉(朝紙爛片), 〈기백장계〉(箕伯 狀啓), 〈용호간록〉(龍湖間錄), 〈평안장계〉, 〈평안감영장계〉, 〈동산일기〉(東山日記), 〈정치일기〉(政治日記), 〈어양수록〉(禦洋隨錄). 이 중에서 아마도 제너럴 셔먼호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고 인용되고 있는 자료는 〈일성록〉과 함께 〈고종실록〉이 아닌가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고종실록〉은 제너럴 셔먼호와 관련된 일종의 보고서로 토마스 연구에 중요한 1차 자료이다. 〈고종실록〉은 보고서 형태를 취하고 있어 보고자의 주관과 생각 그리고 시각이 강하게 담겨 있다.

최근 토마스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단순히 순교여부 문제를 넘어 토마스의 신분과 입국 동기 문제까지 도전하고 있어 토마스의 내한을 선교 활동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국내외 문헌에 기초하여 토마스의 1차 내한과 2차 내한과정과 그의 순교과정을 가능한 객관적이고 비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토마스 선교사의 중국 입국과 1, 2차 내한 선교 문제

토마스의 생애와 선교사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반복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다만 간단하게 중국입국과 1차, 2차 내한 선교의 핵심 문제를 짚어 보려고 한다.

1. 토마스 중국 입국

토마스는 1839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의 라야다(Rhyader, Radnoshire)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863년 5월 런던대학교 뉴칼리지에서 대학과정(B.A.)과 신학과정을 마친 토마스는 선교사에게 요구되는 “훌륭한 교육,” “강직한 성품,” “외국어 습득 능력” “자기희생의 정신”을 자신이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기도 가운데 선교사가 되길 갈망했다. 그는 그해 6월 4일 고향 하노버 교회에서 회중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은 후 런던선교회 소속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받았다.

7월 21일 중국을 향하는 폴메이스(Polmaise)호에 승선한 토마스가 아내와 함께 상해에 도착한 것은 한창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1863년 12월이었다. 중국에 도착하여 상해를 거점으로 막 선교를 시작하려는 바로 그때, 불행하게도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 갓프리(Caroline Godfrey)가 낯선 타향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864년 4월 5일자 런던선교회에 보낸 그의 첫 편지는 선교 보고서가 아닌 아내의 사망 보고서가 되고 말았다.

토마스는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으로 안정을 찾지 못한데다 현지 런던선교회 총무 무어헤드(William Muirhead)와도 의견이 맞지 않아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산둥성 지푸에 가서 1864년 12월 8일 청국의 황립해상세관(皇立海上稅關)에서 통역으로 취직했다. 1985년 1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8개월을 세관에서 봉직한 토마스가 다시 선교열을 재충전하고 한국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알렉산더 윌리엄슨과 박해를 피해 목선을 타고 피신해온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면서였다.

토마스는 지푸에서 세관 통역으로 일하고 있는 동안 그곳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던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 알렉산더 윌리엄슨(Alexander Williamson) 선교사의 충고와 격려로 다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충전할 수 있었다. 세관에 봉직하는 동안도 그는 중국인 주일예배를 윌리엄슨과 함께 교대로 인도하는 등 선교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조선의 천주교 박해를 피해 목선을 타고 산둥성에 온 두 명의 한국인 천주교 신자들을 통해 조선에 대한 실정을 전해 듣고 한국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오문환이 자신의 저서 〈토마스 목사 전〉에서 토마스의 내한을 1차와 2차로 나눈 이후 토마스의 한국선교 활동을 1865년 1차와 1866년 2차로 대별하여 기술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그 전통을 따라 고무송도 1차와 2차로 대별하여 기술하고 있다.

2. 토마스의 1차 내한과 선교 문제

토마스는 한국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조선으로 향하는 “中國木船”이 있어서 1865년 9월 4일 두 명의 한국천주교인을 동반하고 윌리엄슨이 전해 준 상당량의 한문 성경들을 지니고 스코틀랜드 국립성서공회 소속 권서인으로 서해안으로 떠났다. 오문환은 〈도마스 목사전〉에서 이 때 길안내를 맡아준 사람이 중국인 수부 유웨이(Yu Wen Tai)라고 밝혔다. 1865년 9월 13일 창린도(昌麟島)로 알려진 황해도 연안의 한 섬에 도착한 토마스는 12월 초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한편 가지고 온 성경을 섬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1866년 1월 12일 그가 티드맨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난다.

토마스는 심한 광풍으로 인한 생명의 위기 속에서 가까스로 생명을 건지고 우장(牛莊)과 산해관(山海關)을 경유하여 북경으로 간신히 돌아왔다. 두 달반의 시간은 단순한 체류가 아니라 한국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간이었고, 그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1866년 1월 12일자 토마스의 편지에서 몇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토마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조선에 입국해서 2개월 반 동안 한국어를 배웠으며 비록 많은 결실은 없었지만 선교사역도 병행했다. 둘째, 몇몇 한국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전해준 성경을 받았는데 토마스가 볼 때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읽기를 간절히 열망했다는 증거였다. 셋째, 토마스는 한국선교를 앞으로 지속하겠다는 암시를 편지에서 밝혔다. 그것은 위 편지 내용 중에 “수도에서 통용되는 상당한 어휘들과 언어들(dialogues)을 습득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과 향후 교섭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토마스의 고백 속에 잘 담겨져 있다. 토마스가 한국선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조선에 입국해서 애써서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넷째, 토마스는 1차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주변의 사람들을 방문하고 기도회를 계속 인도하며 선교열을 불태우고 있었다. 당시 쇄국정책에다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입국해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성경을 전해주고 다시 한국인들에게 선교할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은 한국에 대한 선교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비록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이후 한 동안 위기를 만난 것이 사실이지만 이 때쯤에는 이미 토마스는 선교열을 충분히 재충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오문환은 토마스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마틴(W. A. P. Martin)의 부탁으로 그가 운영하던 북경에 있는 “중서학원”(Chinese Government Anglo-Chinese Shool) 교장 대리를 맡았다고 말한다. 토마스는 북경에 온 조선의 동지사 일행을 만났다. 1866년 4월 4일자 편지에서 토마스가 밝힌 것처럼 그즈음 한국선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토마스에게 격려가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났다. 북경에 온 동지사 일행 중 한 사람이 토마스 목사의 포켓에 한문으로 된 쪽지 하나를 집어넣었는데, 거기에는 “어느 외국인이 서해안에서 배포한 것과 같은 마태복음 책 하나를 구득(購得)해 달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이런 일련의 긍정적인 상황은 토마스를 더욱 고무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1866년 토마스는 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북경에 돌아온 후 런던선교회로부터 다시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다. 아내를 잃은 후 계속해서 새로운 선교지를 찾고 있던 토마스는 조선이 새로운 선교지라는 확신이 들었다. 제 1차

내한 과정과 이후의 토마스의 행적을 살펴볼 때 그의 조선 입국은 선교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는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선에 입국했고 성경을 반포했다. 필자가 볼 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토마스의 2차 내한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3. 토마스의 2차 내한과 선교 문제

1차 내한 후에 토마스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1차 내한 후에 그가 보여주었던 일련의 행적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토마스는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열어 놓고 길을 찾았다. 그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한국에 입국하기를 갈망했다. 심지어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리텔 신부로부터 세 명의 불란서 신부의 처형 소식을 전해 듣고 한국정부를 문책할 목적으로 불란서 함대를 출동시켜 한국을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안내자 겸 통역으로 동승해 줄 것을 제안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갑자기 인도차이나 폭동이 발생해 로즈 제독이 그곳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한국정벌은 취소되고 말았다.

그러던 중 토마스는 미국인 프레스톤의 소유인 상선,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 호가 조선에 입국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1866년 7월 “한국에서 반포하기 위해 몇 권의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통역 겸 안내자로 승선했다. 우리는 토마스의 2차 한국방문과 관련하여 3가지 사실을 먼저 풀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제너럴 셔먼호가 어떤 형태의 배였는가. 둘째, 제너럴 셔먼호의 내한 목적이 정확히 무엇이었는가. 셋째, 토마스가 이 배에 승선했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1) 제너럴 셔먼호는 어떤 형태의 배였는가?

비록 상선이기는 하지만 그 배는 현대식 무기로 중무장한 “순양함”이었기 때문에 외국과의 교류가 금지된 조선인들에게는 순수 무역선으로 보이지 않았다. 제너럴 셔먼호가 상선으로 무기를 싣고 간 것과 본래 전투함으로 건조된 것은 다른 문제이다. 오문환은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이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외국선박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무기를 싣고 출항한 것이라고 말한다.

“쇄국주의를 고집하여 외국인에게 적개심을 품고 잇섯슴으로 처음 사업차로 오는 제네랄셔만호는 무기를 싣게 되었고 그로인하여 도마스 목사의 심중에도 얼마큼 염려되는 점도 업지 안엇을 것이며 그의 친구들도 그것을 염려하엿슬것이나 그것은 다만 만일을 위함이었고 기목적으로는 단순한 상업이라 하엿스니 동선의 목적에 대하여도 별로 히 꺼릴바가 업섯슬 것이다.”

제너럴 셔먼호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임시로 무기를 싣고 떠난 것이라는 오문환의 주장은 비약이다. 제너럴 셔먼호는 처음부터 전쟁을 위해 전선으로 건조된 범선, “순양함”으로 미해군 전함(the US navy gunship Princess Royal)으로 사용되다 민간에게 매각되어 선주 미국 상인 프레스톤(W. B. Preston)이 천진에 있는 영국 메도우 회사와 계약을 맺고 한국에 파송한 것이다.

2) 제너럴 셔먼호의 내한 목적이 정확히 무엇이었는가.

제너럴 셔먼호에는 배 소유주 미국인 프레스톤(W. B. Preston)이 천진에 있는 영국의 메도우(Meadows) 상사와 함께 조선과의 통상의 길을 트기 위해 1866년 7월 하순 천진에 도착했다. 선적한 면포(cloth), 유리그릇(glass), 철판(tin plate), 자명종 등 많은 상품과 선장 미국인 페이지(Page), 화물 감독 영국인 선원 호가쓰(George Hogarth), 항해사 미국인 윌슨(Chief Mate Wilson), 그리고 로버트 토마스 등 5명의 서양인과 19명의 청나라와 말레이시아인이 승선했고 있었다. 제너럴 셔먼호는 <고종실록>의 기록을 보니 자신들이 가지고 온 양포(洋布), 기명(器皿) 등 이들 물품들을 한국의 “종이, 쌀, 금(金), 삼(蔘), 초피(貂皮) 등의 물품들과” 교환하기를 원했다. 오문환은 제너럴 셔먼호에 실은 물품 가운데 바늘도 있었는데 제너럴 셔먼호가 불탄 후 평양 대동강에는 몇해 동안 목욕을 하지 못할 만큼 바늘이 많았다고 말한다. 고무송도 사료를 통해 이 사실을 재확인했다. 그리피스도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의 왕릉 도굴과 관련 있다고 강하게 의심했지만 천진에 있는 메도우 회사가 1866년 10월 27일 벌링게임(Burlingame)에게 보낸 편지는 제너럴 셔먼호의 한국입국 목적은 상업이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통사〉에서 한우근도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까지 올라와 요구한 것이 통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제너럴 셔먼호의 조선 입국 목적이 무역 거래가 목적이란 사실은 8월 21일 신장포구에서 문정관에게 “서양 사람으로서 자기들은 단지 통상과 무역을 하려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밝힌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의 무역거래를 틀 목적으로 제너럴 셔먼호가 내한했음을 알 수 있다. 토마스는 제너럴 셔먼호 탑승이 조선선교를 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저하지 않고 승선한 것이다.

그러나 반 외국인 정서가 극에 달하고, 외국과 문호 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도 천주교와 불란서에 대한 반대 정서가 극심한 가운데, 중무장을 한 순양함을 타고 조선에 입국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다. 건강을 위해 승선했다고는 하지만 선주가 배에 승선했다는 사실은 제너럴 셔먼호가 안전보다는 상업적 목적을 앞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해 준다.

3) 토마스가 이 배에 승선한 목적이 무엇인가.

토마스의 2차 내한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또 하나는 토마스가 제너럴 셔먼호에 어떤 자격으로 승선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가 셔먼호에 승선한 목적이 통역이라고 당시 토마스 관련 편지 문헌들에 등장하고 대부분의 2차 자료들이 이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한규무는 토마스가 통역이었다고 단정하지만 고종실록은 “최난헌이라는 사람은 중국말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조금 알고 있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있어서 의사소통은 전적으로 이팔행이라는 사람한테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토마스는 제너럴 셔먼호 대리점인 메도스 회사가 1866년 10월 27일 북경주재미국공사 버닝게임에게 보낸 보고서에 “선객”이라고 명시되었고, 박규수 문집과 기타 자료에도 그렇게 명시되었다. 오문환은 “도마스 목사가 통역이었다는 말은 와전된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한다. 오문환은 또한 토마스가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한 것이 항해사나 한 국어 습득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선교사역을 위해서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는 항해사로 입국한 것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입국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에 개신교 선교회를 세우기 위해 완벽한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메도우 회사가 공식적으로 벌링게임에게 보낸 편지에서나 그리피스가 자신의 저서에서 토마스가 한국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선 입국을 시도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필자가 볼 때 이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토마스의 셔먼호 탑승이 만약 단순히 한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했다면 지푸에 있을 때 그곳으로 피신해온 조선 천주교인들을 통해 얼마든지 한국어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구태여 위험을 무릅쓰고, 무역 거래를 위해 단기간 입국하면서 얼마나 한국어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의문인데다 토마스가 1866년 1월 12일자 편지에서 1865년 9월 한국을 방문해 2개월 반 동안 머무는 동안 복음전도에 필요한 한국어를 충분히 습득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승선 목적이 통역과 안내자이지만 그를 다른 서양승무원들과 달리 선교사라고 보고되었고, 그의 1차 내한이나 활동 그리고 사고가 나기 전에 그가 남긴 여러 기록들을 종합할 때 그가 셔먼호에 승선한 것은 선교 목적이 주였다고 보아진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면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1) 한국인들에게 성경을 반포할 목적으로 여러 권의 한문성경을 가지고 입국했다. (2) 문정관에서 야소교 전파에 대한 것을 무역과 함께 조선 입국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3) 1차 내한 때도 그랬지만 그는 2차 내한 때도 여러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입국해서 성경을 반포했다. (4) 셔먼호 일반 승무원 19명 가운데는 중국인권서인도 포함되었다. (5) 그의 조선 선교활동을 뒷받침하는 사료들과 증언자들이 있다. 토마스는 제너럴 셔먼호의 조선 입국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야말로 조선에 입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토마스의 방문과 활동 그리고 그의 죽음을 순교로 보지 않는 이들은 토마스와 제너럴 셔먼호의 입국목적과 행동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한데 토마스의 제너럴 셔먼호 승선 동기와 목적을 제너럴 셔먼호의 한국 방문 목적이나 동기와 동일시 할 수 없다. 또한 그가 쇄국정책 하에 이런 범선을 타고 조선에 입국한 것이 사려 깊지 못하고,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탑승 자체를 가지고 한국선교에 대한 그의 열정 자체를 폄하하거나 제국주의 침략에 편승하거나 수중든 침략자로 치부하는 듯한 평가는 비약이다. 기독교 역사는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전파가 금지된 쇄국통치 하에서 정부의 허락을 받고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입국해서 선교활동

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토마스가 합법적인 선교사 신분으로 선교사 전용 선박을 타고 합법적인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선교를 했어야 한다면,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을 제기 한다면, 정부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입국해 프랑스 군대가 침입 해서라도 천주교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려고 했던 프랑스 신부들, 프랑스 침략선의 노골적인 안내원을 자칭했던 신부들이나 여기에 동조한 조선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황사영의 백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또 프랑스 선교사들과 사제들이 실천에 옮겼던 것처럼 노골적인 침략적 제국주의적 패권주의가 19세기 천주교의 조선선교 과정에서 만연했기 때문이다. 1866년 7월 13일 북경 주재 프랑스 대리 대사 M. de Bellonet는 황태자 쿵(Prince Kung)에게 조선정부가 천주교 신부들과 신자들을 처형한 것을 묵과하지 말고 응징하라며 편지를 보냈다.

프랑스 신부들과 지도자들의 제국주의적 사고는 한국의 주교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리피스와 다음의 지적은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한국과 그 밖의 아시아에서의 로마 가톨릭의 전도 방식의 윤리적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로마 가톨릭 회심자들은 교황의 교회 절대권만 아니라 하늘 대리자(the Vicar of Heaven)로서의 세상의 일시적 권세에 대한 교황의 주장의 정당성을 믿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신약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들과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의 말씀 곧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는 사실에 무지했다. 한국인들은 교황제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후에 부르봉 통치 하에 강력한 유럽의 국가들에 의해 옹호되는 교황의 정치적 권세를 묵도하면서 한국의 천주교인들은 자신들의 선생들의 윤리를 답습해 자신들의 조국에 배반자로 활약하였고, 따라서 그들은 정부 관리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조국의 법률을 범했으며, 황사영의 백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천주교의 포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프랑스 군대가 무력으로 침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로마 가톨릭은 애국주의적 사고에 있어서 반역행위나 강도행위와 관련이 있었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프랑스 군대와 침략자의 선봉으로, 프랑스 사제들이 포함(gunboat)의 안내자 역할을 한 것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차후의 설명이 보여주듯 엄격한 논리며 실제적 사실이다. 주교가 프랑스 전함에서 스파이와 안내자로 활동했고 신부들이 약탈을 위한 안내자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적들의 진술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들의 진술이었다. 따라서 [조선에서] 교황의 기독교[로마 가톨릭]의 이야기는 불가피하게 ‘프랑스 원정’이었다.

그리피스는 수많은 자료들을 동원하며 이 사실을 매우 설득력 있게 논증해 나갔다. 필자는 호교론적 시각을 가지고 천주교의 한국선교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저 객관적 사실을 지적할 뿐이다. 최근 일부 진보주의 역사관을 가진 비평 학자들이 토마스에게 적용하는 동일한 평가 기준을 천주교 신부들과 조선 천주교인들의 죽음에는 달리 적용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토마스의 제 2차 조선입국과 관련하여 더 큰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토마스가 한국선교를 낙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가 순교하기 전 조선을 향해 떠나면서 런던 선교회에 보낸 1866년 8월 1일 지푸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에 질게 담겨져 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희망에 부풀니다.” 토마스는 조선인들이 자신의 한국방문을 대대적으로 환영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

아마도 1차 방문 때 조선인들이 보여주었던 복음에 대한 반응과 환대 그리고 그가 얻은 여러 정보들을 통해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마스의 한국선교는 다음 몇 가지 면에서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첫째, 주지하듯이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반 외국인 정서(anti-foreign feeling)가 정점에 달하고 있었다. 둘째, 당시 조선에는 불란서 함대가 조선을 공격해 올 것이라는 소문이 팽만했고, 조선 사람들이 외국인이라면 모두 불란서인으로 인식할 정도로 반불란서 정서가 충천했다. 셋째, 비록 상선이라고 하지만 중무장을 한 서면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다.

토마스가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입국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런던 선교회 총무 멀린스(J. Mullens)가 “무장한 선박을 타고 조선에 나간다니 이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요, 더욱이 당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곧 북경에 돌아와서 당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십시오”라고 경고성 편지를 서둘러 보낸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 편지가 도착하기 전 토마스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을 향해 떠났다.

III. 제너럴 셔먼호 입국과정과 관련 고종실록과 기타

국내 사료 문제

필자가 볼 때 토마스의 제 2차 내한 선교문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제너럴 셔먼호의 입국과정에 대한 세밀한 일정 검토, 선교 관련기록, 그리고 사료의 객관적 검토이다. 그것은 입국 동기는 물론 사건의 인과관계를 밝혀줄 것이기 때문이다. <고종실록>에 있는 제너럴 셔먼호 관련 기록은 보고 형식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그렇듯이 사건 발생 장소와 날자가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되었다. <고종실록>에 있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기록에 담겨진 셔먼호 입국 과정을 먼저 면밀하게 검토한 후 선교관련기록과 <고종실록>의 사료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1. 고종실록의 제너럴 셔먼호 입국과정 문제

1866년 7월 29일 제너럴 셔먼호가 천진을 출발할 때 그 배에는 토마스, 프레스턴, 윌슨, 페이지 등 4명의 외국인 선단 승선했다. 그러다 지푸에 도착하였을 때 영국인 호가스(Hogarth)를 화물관리인으로 그리고 메도우 회사 소속한 관동사람 금전교환인(a Cantonese schroff)을 승선시켰다. 이 배에는 북경의 중국기독교청년 조능봉도 승선했다. 1866년 8월 9일[음력 7월 1일] 지푸를 떠날 때 제너럴 셔먼호에는 5명의 외국인들과 중국인[청나라]과 말레이시아인 19명등 총 24명이 승선했다. 1866년 8월 9일[음 7월1일]부터 8월 16[음 7월 7일]일까지의 1주일 간의 일정을 재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종실록에 의하면 이 기간 제너럴 셔먼호는 백령도, 초도곶, 석도를 거쳐 대동강을 향해 항해를 계속했다. 민정배는 8월 16일[음 7.7] 셔먼호가 평남 용강현 다미면 영주포에 도착했다고 기록하나 고종실록에는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1) [고종실록] 1866년 음력 7월 8일 [8월 17일]

황주목 삼전면 송산리 <고종실록> 3권 음력 1866년 음력 7월 15일[양력 8월 24일]에 황주목사 정대식이 올린 보고에 의하면 제너럴 셔먼호는 1866년 음력 7월 8일[8월 17일]에 대동강 어귀의 황해도 황주목(黃州牧) 삼전방(三田坊) 송산리(松山里) 앞바다에 닻을 내렸다. 제너럴 셔먼호가 관리들에 의해 처음으로 목격된 것이 바로 이날이었다.

인시는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를 지칭하는 것이다. 음력 7월 8일 [8월 17일] 이른 새벽 이양선 제너럴 셔먼호가 나타나자 황주목사 정대식이 그곳으로 황급히 달려가 승선해 글로 어느 나라 사람이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가를 물었다. 이 때 제너럴 셔먼호는 백령도, 초도곶, 석도를 거쳐 송산리 앞바다까지 항해했다는 사실과 배와 승객들이 어느 국가 출신인지를 밝혔다. “우리들은 서양의 세 나라 사람들입니다. 뢰자리에 앉은 토마스 [崔蘭軒 : Thomas, Robert Jermain]와 호가스[何噶特]는 다 같이 영국 사람이며, 프레스턴[普來屯]은 미국 사람이며, 뻬지[巴使]는 덴마크 사람입니다.” <고종실록>에는 이들 4명이 셔먼호에 혹 기대어 앉거나 혹은 배의 고물에 앉은 후에 문정관들에게 함께 앉자고 제안하였다고 한다. 셔먼호에는 다섯 명의 외국인이 탔는데 4명만 기록하고 있다. 윌슨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문정관이 배에 오른 것을 보면 셔먼호가 정박했고, 한국인들과의 첫 만남을 갖는 공식적인 자리라 다 모였을 텐데 왜 1명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지 알 수 없다. 또 하나 <고종실록>의 기록에서 의문이 가는 것은 셔먼으로 문정을 했다고 하는데 “뻬지”를 덴마크 사람이라고 기록한 부분이다. 분명 프레스턴과 페이지, 그리고 윌슨은 미국 사람이고 토마스와 호가스는 영국 사람이다. 덴마크 사람은 외국인 다섯 명 가운데 1명도 없다. 그런데 <고종실록>에는 페이지가 미국 사람이 아닌 덴마크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덴마크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고 답한 기록도 등장한다. 국가간의 만남에서 국적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종실록>은 가장 기본적인 국적 기록조차 정확하지 않다. 공식적인 만남 첫날 문정기록부터 <고종실록>의 기록상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고종실록>은 이들 서양인의 생김새를 기록하면서도 4명만 언급하고 있다. 토마스 그

리고 동행한 인물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거의 모두가 움푹 들어간 눈, 높이 솟은 콧마루, 파란 눈, 노란 머리카락을 지니고 있어, 확실히 서양인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라는 사람은 중국말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조금 알고 있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있어서 의사소통은 전적으로 이 팔행(李八行)이라는 사람한테 맡겼는데, 배 안의 일에 대해서는 그가 모두 주관하였습니다. 이른바 이팔행(李八行)과 조반량(趙半良)은 중국인들로서 영국인이 데려다가 자기 막료로 삼은 사람들이었으며 그 나머지 24명(名)은 혹 태국인이거나 광둥(廣東) 상해현(上海縣) 사람들로서 길안내를 하거나 품팔이를 하거나 뱃사람 일을 하거나 하였는데, 모두가 종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물으려고 하니 『우리 배 안의 일과 관계되는 것이지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

“최난헌은 나이가 36살, 키는 7척(尺) 5촌(寸), 얼굴빛은 검붉고, 머리칼은 노란 곱슬머리이고, 수염은 검다. 옷차림은 회색 모자를 썼고, 검은 색과 흰 색의 언급되고 있다. 반점이 있는 용으로 만든 저고리를 입었으며, 검은 색 목화(木靴)를 신었습니다. 허리에 혁대와 자그마한 서양식 총과 환도를 찼습니다. 그는 문직(文職)의 4품 관리로서 영국인이었습니다. 호가스는 나이가 37살, 키는 7척, 얼굴빛은 검붉으며, 머리칼은 노랑고, 수염이 덩수룩하게 났습니다. 옷차림은 흰 서양 천으로 감싼 모자를 썼으며, 누런색의 견사(繭絲)로 만든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으며, 맨발에 등(藤) 줄기로 만든 신을 신었습니다. 혁대에 자그마한 서양식 총과 환도를 찼습니다. 그는 무직(武職)의 1품 관리로서 영국인이었다.

프레스톤은 나이가 48살, 키는 7척 5촌, 얼굴빛은 검붉으며, 머리칼은 노란곱슬머리였으며, 흰 수염이 길게 났습니다. 옷차림은 검은색의 모자를 썼고, 흰빛의 서양 무명으로 만든 저고리를 입었으며, 누런색의 견사로 만든 홀바지를 입고, 색실로 섞어 짜서 만든 신을 신었습니다. 혁대에는 자그마한 서양식 총과 환도를 찼습니다. 그는 무직(武職)의 1품 관리로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빼지는 나이가 45살, 키는 7척 5촌, 얼굴빛은 붉고, 수염과 머리칼은 노란 곱슬이었습니다. 옷차림은 검은색 비단으로 감싼 모자를 쓰고, 자주색 용으로 만든 저고리와 흰 무명으로 만든 홀바지를 입었습니다. 검은색 가죽신을 신고, 혁대에는 자그마한 서양식 총과 환도를 찼습니다. 그는 덴마크 사람이었습니다. 이팔행(李八行)의 나이는 30살이었고, 조반량(趙半良)의 나이는 28살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키가 7척이었고, 얼굴빛은 검붉고, 머리는 땅아 올렸고, 수염은 없었습니다. 옷차림은 흰 무명으로 만든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검푸른 색의 삼승포(三升布)로 만든 신을 신었는데, 그들은 다 같이 청나라 사람이었습니다. 24명의 이름과 나이에 대하여 물어보니 토마스가 하인으로 범칭하면서 자세히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굴 생김새와 옷차림, 머리칼과 수염은 모두 청나라 사람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첫째, 최난헌이 중국어에 대해서는 잘 구사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말도 조금 알고 있는 정도여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있어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팔행이 “전적으로” 의사소통의 책임을 맡았다는 사실이다. 최난헌이 토마스와 동일 인물이라면 그가 통역의 자격으로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해 입국하고 활동했다는 한구무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고종실록>에서는 이팔행을 두 번이나 중국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학자들이 이팔행이 누군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첫문정을 기록한 <고종실록>에는 청국인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나 후에 중국 예부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내막을 알리면서는 11월 5일자 <고종실록>은 그를 덴마크 인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청국인과 서양 덴마크 인은 모습부터 다르다. 어떻게 한 곳에서는 청국인으로 다른 곳에서는 덴마크 인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둘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몇 명이며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외국인으로는 4명이고, 막료로 삼은 이팔행과 조반량 그리고 그 외 길 안내, 품팔이, 뱃사람 일을 위해 승선한 “종복” 24명으로 그들은 모두 태국인이거나 광둥 상해현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했다. <고종실록>에는 이날 제너럴 셔먼호 탑승자들은 입국 목적이 무엇인지를 문정관에게 선명하게 밝혔다.

『세 나라 사람들은 다 같이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7월 1일 산둥(山東)에서 출발하여 백령도(白翎島), 초도곶(椒島串), 석도(席島)를 거쳐 방향을 바꾸어 평양(平壤)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 배가 모양은 전선(戰船) 같지만 실은 통상(通商)을 하려고 한다. 귀국(歸國)의 종이, 쌀, 금(金), 삼(蔘), 초피(貂皮) 등의 물품을 우리들이 가지고 온 양포(洋布), 기명(器皿)들과 바꾸면 서로 해롭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을 것이다. 물품 교환이 일찍 끝나면 곧 평양에서부터 뱃머리를 돌리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비록 서울로 가더라도 통상한 뒤에야 돌아가겠다.』 라고 하였습

니다. 그래서 문기를, 『이미 평양에 가서 통상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에 호응하여 교역을 하는 자가 있는가?』라고 하니,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위 기록은 제너럴 셔먼호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첫째, 제너럴 셔먼호가 음력 7월 1일[8월 10일] 산둥성을 출발해서 백령도 초도곶 석도를 거쳐 음 7월 8일[8월 17일] 송산리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제너럴 셔먼호가 보통 상선과 달리 “모양은 전선과 같지만” 상선이며 이들의 입국 목적이 통상이며, 목적지가 평양이라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제너럴 셔먼호가 침략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제너럴 셔먼호 탑승 승무원들도 군인들도 아니고 침략을 목적으로 해서 모집한 이들도 아니었다. 셋째, 물물교환이 끝나면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양에서 통상을 할 수 없다면 반드시 서울로 가서라도 통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입국의 목적이 통상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외국과의 무역은 국법으로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먼 바다에 와서 정박한다면 혹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당신들은 남의 나라 앞바다에까지 넘어들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본래부터 국법(國法)으로 금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전진해갈 수 없다.” 이에 제너럴 셔먼호는 “누가 감히 우리를 막겠는가?”라고 말하고는 이내 “우리는 곧바로 가려고 한다. 만약 서풍을 만나면 바람을 따라 곧 떠나겠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종실록〉에 실린 보고서에는 제너럴 셔먼호가 어떤 외관을 갖고 있는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배의 모양은 길이가 18장(丈), 넓이가 5장, 높이가 3장이었고, 돛대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높이가 15장, 하나는 높이가 13장이었으며, 굵기는 세 아름 정도 되었습니다. 두 개의 큰 돛은 흰색이었으며, 돛대의 밧줄에는 또 작은 돛 두 개를 얹어매었는데 역시 흰색이었고, 숙마(熟麻) 줄을 돛대와 돛 좌우에 각각 12줄씩 늘어뜨려 놓았습니다. 나머지 배에서 사용 하는 잡다한 물건들에 대해서 모두 물어봤으나 저들이 글로 써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잡다한 물품들과 기계들, 각 사람들의 소지품 외에도 배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으나 보여주지도 않았고 또 자세히 대답해 주지도 않았으므로 그 수량을 맞추어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큰 배에 딸려 있는 작은 배는 길이가 3파(把), 넓이는 2파였으며 푸른색으로 칠하였는데, 돛대와 돛은 없었습니다.”

“배의 모양과 규격을 보면, 안은 하얗게 칠하고 밖은 검게 칠하였는데 그 위에 옷칠을 하듯이 기름을 발랐으며 위에는 흰 가루가 있었습니다. 사면을 판자로 만든 집이 두 칸 있었는데, 한 곳에는 관인(官人)들이 거주하고 한 곳은 종복들이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판옥 벽면에 창문이 있었는데, 모두 우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두 개의 돛대는 모두 소나무로 만들었는데, 잘 다듬고 그 위에 기름칠을 하였으며, 배의 위에는 백양목의 네모진 깃발을 달아 세웠고, 돛은 흰 색의 올이 굵은 서양 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좌우의 두 편에 각각 대포(大砲) 1문씩을 설치하였으며, 하가(下架)와 목륜(木輪) 위에는 철통을 놓았는데 윗부분은 좁고 밑이 넓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시범적으로 쏘아보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요란한 천둥이 치는 것과 같아서 사람들의 이목을 몹시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밖에 또한 밤에 순찰할 때에 메는 장총이 3자루 있었는데, 총구멍 끝머리에 1척(尺)쯤 되는 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조총은 차고 다니는 자그마한 것과 메고 다니는 큼직한 것 등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환도(環刀)는 서양인 4명이 각각 한 자루씩 찼는데, 모두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방안에는 책과 그림책, 금(琴)과 종(鍾), 고약(膏藥) 등 잡다한 물건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한번 죽 훑어보아서는 이루 다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복들이 거쳐하는 방을 보려고 하자, 예의상 가서 볼 필요가 없다고 하며 막고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배 밑에는 작은 배를 매어 놓았는데, 우리나라의 작은 고깃배 모양이었으며 푸른색이었습니다. 거기에 실은 물품들은 양목(洋木) 등 무역할 물품들이라고 말하였으나, 배 안은 보지 못하게 하여 물품을 실은 실태와 그 수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었습니다.”

〈고종실록〉은 제너럴 셔먼호가 어떤 모양을 갖추었는지, 얼마의 규모인지를 밝히고 있다. 돛대가 둘이고, 길이가 18자[54.54m], 넓이가 5장[15.15m], 그리고 높이가 3장[9.09m]이었다. 게다가 제너럴 셔먼호에는 상당한 무기들이 탑재해 있었다. 무엇보다 대포가 장착되었다. 90 이날 문정관에게 셔먼호는 “청하건대 당신들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대미(大米), 우육(牛肉), 닭, 청채(菁菜), 시목(柴木) 등의 물품을 준다면 양포(洋布)로 답례하겠다.”고 부탁했다. 그러자 문정관은 어찌다 표류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라면 고려할 수 있지만 “서양인들이 함부로 우리나라 앞바다에까지 넘어 들어온 것은 뜻밖의 일이라 또한 아랫사람으로서 마음대로 처리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식량을 요구하자 “이처럼 외진 마을에서 갑자기 그런 물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고 또 순풍을 기다

려서 곧장 출발한다는 것은 더욱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대답했다. 최난헌이 제공해줄 의사가 있다면 줄 수 있을텐데 의사가 없는 것 같으며 성낸 표정으로 문정을 하던 종잇장을 접어서 품에 넣고 떠나자고 재촉하자 문정관은 “어쩔 수 없이 떠나는 배에서 곧 마련해 보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최난헌이 “화를 풀고 기뻐하면서 문정(問情)을 하던 종잇장을 꺼내주고는 다시 물품을 보내주면 틀림없이 답례하겠다.”고 말하였다. 문정관은 “꼭 답례할 것까지는 없다고 말하고, 대미 1석, 우육 30근, 계자 60알, 청채 20묶음, 시목 20단을 해아려서 들여보냈다.” 지방 관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제너럴 셔먼호에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다.

(2) [고종실록] 1866년 음력 7월 9일 (양력 8월 18일)

송산리 출발 <고종실록> 음력 7월 15일[8월 24일]자 황주 목사 정대식이 올린 첩보 기록에 의하면 음 7월 9일 [8월 18일] 오후 3시 30분과 5시 30분 사이 즉 신시에 제너럴 셔먼호는 송산리를 출발해 평양으로 떠나갔다. 황주 목사 정대식은 쌀과 고기 등 물품을 배에 싣고 제너럴 셔먼호에 가서 물품 제공의사를 전달했다.

물품 제공 이 면에는 동정을 탐색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제너럴 셔먼호가 나타나자 그 지역 지방 관리들은 각 고을에 이양선의 소식을 전하고 감시와 방어를 할 것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3) [고종실록] 1866년 음력 7월 9일 저녁~11일 [8월 18~20일]

오후 - 평양 초리방 사포구 음력 7월 9일 오후 송산리를 출발한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으로 항해를 계속했다. <고종실록> 은 7월 9일 저녁부터 7월 11일 술시(저녁 7시 30분-9시 30분)이전까지 2일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제너럴 셔먼호가 7월 11일에 평양 초리방 사포구에 정박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아마도 셔먼호는 음력 7월 9일 저녁에 평양 초리방 사포구에 도착하여 그곳에 정박하여 7월 11일 오후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셔먼호가 어느 다른 곳에 정박했다면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고종실록] 1866년 음력 7월 11~12일 [8월 20~21일]

평양부 신장포구 <고종실록> 의 1866년 음력 7월 18일자[양력 8월 27일] 평양 병사 이용상이 평양 서운 신태정에게 한 보고에 의하면 이용상과 신태정이 음력 7월 11일[8월 20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사이에 확인하니 초리방 사포구(草里坊沙浦口)에 정박해 있던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부 신장포구로 옮긴 상태였다. 이용상과 신태정은 너무 시간이 깊어 그 다음날 음 7월 12일[8월 21일] 오전 7시 30분-9시 30분에 배에 올라 문정을 했을 때 제너럴 셔먼호는 이렇게 답변했다:

“이양선(異樣船) 1척 이 평양 경내의 초리방 사포구(草里坊沙浦口)에 와서 정박하였으므로 11일 술시(戌時) 쯤에 그들의 배가 정박하고 있는 곳에 가보니, 이미 본 평양부의 신장 포구(新場浦口)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벌써 밤이 깊었기 때문에 12일 진시(辰時)에 그곳에 달려가서 문정(問情)을 하니, 서양 사람으로서 자기들은 단지 통상과 무역을 하려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역하는 한 가지 문제로 말하면 법적으로 엄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관 이 마음대로 허가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7월 12일[8월 21일] 유시(酉時)에 그 나라 사람 6명이 작은 푸른색 배를 타고 물깊이를 탐지하기 위해서 상류로 올라갔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다.”(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7월 18일) 유시는 저녁 5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를 가리킨다.”

여기서도 제너럴 셔먼호는 통상과 무역이 입국의 목적이란 사실을 재차밝혔다. 중무장을 한 상선으로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를 받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셔먼호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국 목적이 통상과 무역이라는 사실을 전달했다. 우리는 <고종실록> 에 이 사실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외국과의 무역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게다가 지방관리가 마음대로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

(5) [고종실록] 1866년 음력 7월 13일[8월 22일] - 평양 만경대 아래 두로도

“그리고 7월 13일 인시(寅時)에는 배를 출발시켜 본 평양부 만경대(萬景臺) 아래 두로도(豆老島) 앞에까지 다다랐는데 그대로 그곳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떠나고 머무는 것과 일의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탐지하여 치보(馳報)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제너럴 셔먼호의 음력 7월 13일의 행동을 잘 보여준다. 셔먼호는 전날 6명이 물깊이를 탐지하기 위해 상류로 올라갔다 날이 저물어 돌아와서는 그 다음날 음력 7월 13일[8월 22일] 새벽 인시[새벽 3시 30분-5시 30분]에 이동을 해서 만경대 아래 두로도에 정박했다. 두로도에서 셔먼호가 며칠을 정박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신태정이 음력 7월 19일에 가서야 이양선 한 척이 한사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한 것을 보면, 제너럴 셔먼호는 만경대 아래 두로도 앞에 적어도 5일 이상을 정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고종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문환은 이 기간 목격자들을 인용하여 토마스가 성경과 기독교 문서를 전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측 다른 문헌에 이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고종실록] 1866년 음력 7월 18일 [8월 27일] - 평양 양각도

[고종실록] 1866년 음력 7월 19일 [8월 28일] - 평양 황강정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7월 22일]

7월 13일 새벽 만경대 아래 두로도로 이동한 후에 제너럴 셔먼호의 행방에 대해 <고종실록>이 다시 언급한 것은 5일이 지난 음력 7월 18일의 행적이다.

[고종실록] 음력 7월 22일[양력 8월 31일] 신태정의 보고에는 제너럴 셔먼호 관련 기록이 담겨져 있다.

평안 감사(平壤監司) 박규수(朴珪壽)의 장계(狀啓)에, “방금 평양 서윤(平壤庶尹) 신태정(申泰鼎)이 이달 19일 술시(戌時)에 치보(馳報)한 것을 보니, ‘큰 이양선(異樣船) 1 척이 한사정(閑似亭)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으며, 어제[7월 18일] 유시(酉時)[17:30~19:30] 쯤에는 그들 6명(鳴)이 작은 푸른색 배를 타고 점점 위로 거슬러 올라갔기 때문에 순영중군(巡營中軍)은 그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타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갑자기 오더니 중군이 타고 있던 배를 끌어갔고 중군을 그들의 배 안에 억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윤(庶尹)이 그들의 배 옆에 가서 밤새도록 효유(曉諭)하였지만, 끝내 돌려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다음]날[19일] 사시(巳時)[9:30~11:30] 쯤에 그들의 배가 또 출발하여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대완구(大碗口)와 조충을 마구 쏘아댔으며 황강정(黃江亭) 앞에 이르러 그곳에 정박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 5명은 작은 푸른빛 배를 타고 물의 깊이를 탐지하기 위하여 오탄(烏灘) 일대를 거슬러 올라갔는데 온 성안의 백성들이 강변에 모여들어 우리 중군을 돌려보내 달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들이 성안에 들어가서 분명히 알려주겠다고 하자, 모든 사람들이 분함을 참지 못하고 돌을 마구 던졌으며, 장교와 나졸들이 혹 활을 쏘아대기도 하고 혹은 총을 쏘아대기도 하며 여러 모로 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도망쳐 돌아갔으며 그 큰 배는 이에 양각도(羊角島) 하단(下端)으로 물러가서 정박하였습니다. 신시(申時) 쯤에 퇴직한 장교 박춘권(朴春權)이 앞장서서 배를 타고 그들의 배에 돌진해 들어가 중군을 구원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중군이 찢던 인장이 물에 떨어져 분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군이 잡혀갈 때 따라간 시종 유순원(俞淳遠)과 통인(通引) 박치영(朴致永)은 그들이 배에서 강물 속에 던져 넣은 후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중군이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수치를 끼친 데 대해서는 더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선 파출(罷黜)시키고 그의 죄상에 대해서는 유사(攸司)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중군(中軍)이 그들 배에 붙잡혀가 곤욕을 당한 것은 그 잘못된 바를 논하여 마땅히 엄하게 감처(勘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이 뜻밖에 벌어져 미처 손 쓸 수가 없었으니, 이는 우직하고 지략이 부족한 소치에 지나지 않으니 또한 어떻게 깊이 책망할 것인가? 그러나 수치를 끼친 것은 크니, 그 벼슬에서 체차시키고 통진 부사(通津府使) 양주태(梁柱台)를 차하(差下)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되, 조정에 사직하는 것은 그만두고 역마(驛馬)를 주어 밤을 새워 내려가게 하라. 퇴직 장교 박춘권이 앞장서서 있는 힘을 다하여 그들의 배에 뛰어들어가 중군을 구출해서 돌아온 것으로 말하면, 그 공로가 가볍지 않으며 매우 가상(嘉尙)한 일이다. 그런 만큼 은전을 보이지 않을 수 없어서 특별히 상가(賞加)하니 오 위장(五衛將)을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도록 하라.” 하였다.

<고종실록>에 수록된 이날 기록을 시간의 선후관계를 고려해가면서 면밀하게 검토하다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음력 7월 18일 제너럴 셔먼호의 몇몇 승무원들이 셔먼호를 감시하던 중군이 타고 있던

배를 끌고 가서 그를 셔먼호에 억류했다. 둘째, 같은 날 서운 김태정이 제너럴 셔먼호에 가서 중군을 풀어달라고 밤새 간청했는데도 돌려주지 않았다. 셋째, 그 다음날 음력 7월 19일 사시에 제너럴 셔먼호는 황강정으로 가면서 대완구와 조총을 마구 쏘았다. 넷째, 같은날 음력 7월 19일 황강정에 정박한 후 5명이 푸른 배를 타고 물의 깊이를 탐지하기 위해 오탄 일대를 거슬러 올라갈 때 강변에 모인 온 성안의 백성들이 “중군을 돌려달라”고 외쳤고, 이 때 제너럴 셔먼호는 성안에 들어가서 정확히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민관들이 돌, 화살,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다섯째, 셔먼호 일행 중 일부가 제너럴 셔먼호로 돌아갔고 이어 셔먼호가 음력 7월 19일 양각도 하단으로 이동했다. 여섯째, 바로 그날 음력 7월 19일 양각도 하단에 정박해 있을 때 박춘권이 신시에 제너럴 셔먼호에 올라 중군을 구출해 왔다.

여기 중군이 누구인지 다른 기록은 이익현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군 이익현은 제너럴 셔먼호에서 이들을 볼모로 잡혀 있다 구출된 셈이다. 중군 이익현을 볼모로 잡고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를 볼모로 성안에 들어가 협상하겠다는 것은 민관군을 지극히 자극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장교와 나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활을 쏘고 총을 쏘며 맞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다. 어떻게 이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제너럴 셔먼호 측에서 남긴 자료가 전혀 없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익현을 볼모로 가두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제임스 게일이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1895년에 기술한 “제너럴 셔먼호 운명”(The Fate of the General Sherman)에는 조선군이 무장 태세를 갖추는 것을 보고 경계해서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기록했다. 〈패강록〉에 따르면 문정에 나선 진사 안상협이 배가 중군 이현익의 배보다 앞서 제너럴 셔먼호에 접근했을 때 소청선이 이들을 납치하여 휴대한 공식문서를 탈취해 번역하니 셔먼호 모든 승무원들을 평양으로 유인 상륙시켜 몰살시키라는 계획을 탐지하고는 승무원들이 놀라 순시대장 이익현을 억류해 셔먼호에 가두게 되었다. 〈평양지〉에는 제너럴 셔먼호에서 글을 보내 중군과 상의할 것이 있다고 유인한 뒤에 억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해밀턴(Floyd E. Hamilton)의 “The First Protestant Martyr in Korea”에 의하면 제너럴 셔먼호를 방문한 중군 이현익의 인신을 탈취하고 나서 반환을 요구하자 그를 억류했다. 〈통문관지〉는 제너럴 셔먼호 승무원들이 중군 이익현을 풀어주는 대신 쌀과 금, 은, 인삼 일천 자루를 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오문환은 평양감사 박규수와 의 협상을 요구하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말한다. 이 때 어떤 기록에 의하면 전주 프레스톤이 이익현을 계속 볼모로 잡아두려하자 토마스가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국내 각각의 문헌들이 달리 기록하고 있다.

국내 자료들이 사건 기술에서 통일성이 없기는 박춘권의 잠입과 이익현의 구출과정도 마찬가지이다. 〈고종실록〉은 위 기록에 있듯이 제너럴 셔먼호가 양각도에 정박해 있을 때 박춘권이 잠입해 구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패강록〉에는 퇴교 박춘권이 중군의 아들로 변장해서 셔먼호에 올라 강변의 군민들이 공격을 하자 셔먼호 승무원들이 중군에게 공격을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신인을 돌려받은 뒤에 중군 이익현이 박춘권이 대기시켜 놓은 배로 뛰어 내려 탈출했다고 기록한다. 〈평양지〉에 따르면 박춘권이 제너럴 셔먼호에 접근하여 장문의 편지를 던진 뒤 그 편지를 선원들이 읽는 사이 중군을 구출했다. 다른 기록과 달리 게일의 “제너럴 셔먼호의 운명”은 박춘권이 먼저 화공작전을 전개했고, 혼란한 틈을 타서 박춘권이 제너럴 셔먼호에 잠입하여 중군 이익현을 구출했다고 말한다.

신인을 잃어버린 것도 기록에 따라 상이하다. 〈고종실록〉은 중군이 탈출할 때 물에 빠뜨려 분실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패강록〉은 중군이 가지고 탈출한 것으로 그리고 〈평양지〉는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화공이 시작되기 전에 토마스가 관가에 찾아와 반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박춘권이 이익현을 구출하는 구출과정, 신인의 분실과 취득에 대해서도 국내 사료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고, 어떤 자료는 일어난 사건의 순서마저 다르게 기록되었다. 셔먼호 관련 국내 사료들 대부분이 다량의 출판이 아닌 개인들이 친필로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고 소문을 들은 정보에 근거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순서가 바뀌고 사건의 묘사와 기술이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여겨진다.

(7) [고종실록] 1866년 9월 3일[음력 7월 25일] - 평양 방수성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7월 25일]

7월 18일 [8월 27일] 제너럴 셔먼호가 이익현을 볼모로 잡아둔 이후 심각한 대치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상

호 대치 국면과 발포과정에 대해서도 국내 자료들이 약간씩 다르게 기술되었다. <고종실록>에 따르면 중군 이익현을 납치하고 돌려주지 않자 “모든 사람들이 분함을 참지 못하고 돌을 마구 던졌으며, 장교와 나졸들이 혹 활을 쏘아대기도 하고 혹은 총을 쏘아대기도 하며 여러 모로 위세를 보였다.” 먼저 발포하고 활을 쏜 쪽은 조선군 쪽이다. 계일의 “제너럴 셔먼호의 운명”에 보면 중군 이익현이 납치당한 뒤 조선군이 먼저 발포했고, <패강록>에도 퇴교 박춘권이 중군 이익현을 구출하려고 제너럴 셔먼호에 접근했을 때 조선군이 셔먼호를 향해 먼저 발포하였다. 그리고 <평양지>도 중군 이익현이 납치를 당한 뒤 소청선이 강변에 접근할 때 조선군이 먼저 발포했다고 기록하였다. <고종실록>, 계일의 <제너럴 셔먼호의 운명>, <패강록> 그리고 <평양지> 모두 제너럴 셔먼호와 조선군 사이의 대치 국면에서 먼저 발포한 쪽은 조선군 쪽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단 시작된 양측의 치열한 대치와 싸움은 강도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얼마나 심각하게 대치국면이 전개되었는지는 9월 3일[음 7월 25일] <고종실록>의 기록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규수(朴珪壽)의 장계(狀啓)를 보니, ‘평양 방수성(防水城)에 정박한 이양선(異樣船)이 상선을 약탈하며 총을 쏘아대는 통에 우리 사람 7인(人)이 피살되었고 부상자 또한 5인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영(監營)과 평양부(平壤府)에 신직하여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처하게 해서 곧 소멸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번에 멀리 있는 나라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의리로써 좋은 뜻으로 타이르고 식량을 넉넉히 주어 그들을 도왔는데, 도리어 갈수록 더욱 더 포악한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군(中軍)을 잡아가다 역류하였고, 나중에는 또 백성들에게 까지 상해를 입혔으니 어떻게 제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군사(軍事)와 관련된 모든 일은 도신(道臣)에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좋을 대로 처리하게 하여 모두 무찔러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우리는 여기 <고종실록>에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제너럴 셔먼호가 상선을 약탈하고 총을 쏘아 7명이 피살되고 부상자가 5명이 발생했다. 정확히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고종실록>의 제너럴 셔먼호와 관군의 대치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다보면 이익현을 볼모로 붙잡아 둔 사건으로 인해 민관과 제너럴 셔먼호 사이에 전투를 벌이면서 생겨난 일인 것이 분명하다. 서윤(庶尹)의 간절한 요구도 무시하고 백성들의 석방 요구도 무시한 상황에서 박춘권이 중군을 구출해 오자 관군들의 사기가 대단히 높아졌고, 음력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너럴 셔먼호와 민군관의 싸움이 강도 높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급한 박규수는 제너럴 셔먼호를 무찔러 없애기로 결심하고 대원군에게 이를 윤허해 줄 것을 요청해 음력 7월 25일 [9월 3일]에 윤허가 떨어졌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13년 후 존 로스는 <한국, 역사, 예절, 관습> (Corea, Its History, Manners, and Customs)에서 “유럽인들은 며칠 동안[얼마 동안]은 친절할 대접을 받았으나 수도 서울로부터 전갈이 온 후에는 승무원들이 해변으로 유인되어 죽임을 당했으며, 배[셔먼호]는 포위되어 불탔다”고 증언한다. 수도 서울로부터 대원군의 전갈이 온 후 제너럴 셔먼호를 대하는 군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가 하는 것보다도 맞물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감사의 습격”으로 토마스가 순교했다는 초기 평양교회 지도자들의 기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피스도 그의 책 <한국, 은둔의 나라>에서 셔먼호와 조선군관의 대치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는 대포로 무장한 셔먼호 “무장범선이 프랑스 배로 분명히 인식되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애국적 복수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너럴셔먼호가 평양까지 입국한 것을 천주교 박해에 대한 프랑스 함대의 공격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조선 군관이 제너럴셔먼호를 공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관련 기록들은 분명히 제너럴셔먼호를 대하는 조선군관 측의 태도가 처음과 나중이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8) [고종실록] 1866년 9월 5일 [음력 7월 27일] - 평양 양각도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7월 27일]

음력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너럴 셔먼호와 민관군 사이에 더욱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식량도 충분하지 않고 훈련된 군인들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닌데다 전투요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도 불과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또 그 즈음에는 주변지역은 물론 조선 전역에서 훈련된 활사수와 포수까지 착출되어 온 상황에서 조선군관과 맞서는 것은 아무리 중무장을 한 범선이라고 해도 역부족이었다. 그런데다 홍수로 물이 불어 대동강을 거슬러 양각도까지 올라 갈 수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급격하게 물이 빠지는 바람에 양각도 모래사장에 그만 좌초하여 배가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군관의 대치 속에 배라도 기동성이 있어야 할 텐데 제너럴 셔먼호는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미 제너럴 셔먼호를 무찔러 없애기로 결정한 박규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

다. 그는 화공전술을 통해 제너럴 셔먼호에 불길이 번져가게 만들었다. 제너럴 셔먼호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1866년 음력 7월 27일[9월 5일] 고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규수(朴珪壽)의 장계(狀啓)에, “평양부에 와서 정박한 이양선(異樣船)에서 더욱 미쳐 날뛰면서 포를 쏘고 총을 쏘아대어 우리 쪽 사람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들을 제압하고 이기는 방책으로는 화공전술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므로 일제히 불을 질러서 그 불길이 저들의 배에 번져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쪽 사람들인 최난헌(崔蘭軒)과 조능봉(趙凌奉)이 뱃머리로 뛰어나와 비로소 목숨을 살려달라고 청하므로 즉시 사로잡아 묶어서 강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을 본 군민(軍民)들이 울분을 참지 못해 일제히 모여들어 그들을 때려죽였으며 그 나머지 사람들도 남김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제야 온 성안의 소요가 비로소 진정될 수 있습니다.”

이날(1866년 음력 7월 27일[9월 5일]) 〈고종실록〉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조선군과의 대치 속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포를 쏘고 총을 쏘아 조선 사람들을 살해했다. 둘째, 양각도에 좌초를 당해 움직이지 못하는 제너럴 셔먼호가 화공전술의 공격으로 인해 불타올랐다. 셋째, 셔먼호에 타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묘사해주고 있다. 〈고종실록〉은 “저쪽 사람들인 최난헌(崔蘭軒)과 조능봉(趙凌奉)이 뱃머리로 뛰어나와 비로소 목숨을 살려달라고 청하므로 즉시 사로잡아 묶어서 강안으로 데려왔다.”고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이 눈에 정확히 들어오지 않는다. 케이블(E. M. Cable)은 〈고종실록〉 해당부분을 시각적으로 잘 번역하였다.

“평양에 정박한 외국 범선이 무자비하게 우리 백성에게 총을 쏘고 죽이고 부상을 입혔습니다. 범선을 파괴시킬 수 있는 책략을 숙고한 후 최종적으로 불타는 나룻배들을 사용하여 불을 지르는 시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타는 배가 그 범선에 닿아 불이 번지자 최난헌과 조능봉이 범선 뱃머리로 나와 거의 동시에 강물에 뛰어들어서는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체포되어 묶여져 강변으로 끌려왔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곧 성난 백성들과 군인들에 의해 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이어 제너럴 셔먼호 승무원 나머지 사람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제너럴 셔먼호의 마지막 사람이 처형되었을 때 백성들의 분노와 흥분이 진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너럴 셔먼호와 그 배에 승선한 외국인 5명, 청국인과 말레이시아 인 19명 합 24명이 살해당했다. 조정에서는 셔먼호를 물리친 노고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포상을 내렸다. 〈고종실록〉은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이양선[셔먼호]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보고 형식으로 간단하게 기록했다. 배에 승선한 사람들의 처형 순서가 토마스와 조능봉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로 기술하였다. 최난헌[토마스]이 조능봉과 함께 제너럴 셔먼호에서 먼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훗날 그 현장의 증언자들의 증언과 어느 정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토마스의 순교 상황 문제는 본 논문 후반부에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려고 한다.

2. 〈고종실록〉에 실린 제너럴 셔먼호 선교관련 기록 문제

토마스의 제 2차 내한과 선교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종실록〉에 담긴 선교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종실록〉은 조선 측의 입장을 중심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한 토마스의 선교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선교와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종실록〉은 음력 7월 12일[8월 21일] 문정관에게 최난헌이 종교적인 질문을 던진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최난헌 [崔蘭軒 : Thomas, Robert Jermain] 가 말하기를, 『귀국은 무엇 때문에 천주교인들을 쫓아내는가? 지금 우리 예수성교[耶蘇聖敎]는 천도(天道)를 체험하고 인심(人心)을 바르게 하여 나쁜 풍속을 교화시키기 때문에 인의충효(仁義忠孝)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교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히 마음대로 익히지 못한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위 간단한 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최난헌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문정관에게 서양종교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둘째, 최난헌은 조선에서 천주교가 강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간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난헌은 야소교가 천주교와 다르다는 사실을 문정관들에게 주지시키려고 했다. 특별히 야소교(개신교)가 동양사상이나 유교문화 그리

고 심지어 동양의 정치질서와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 예수교[耶蘇聖敎]는 천도(天道)를 체험하고 인심(人心)을 바르게 하여 나쁜 풍속을 교화시키기 때문에 인의충효(仁義忠孝)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기록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고종실록>은 최난헌이 천주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야소교에 대해 설명한 인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문맥에서 볼 때 최난헌이 국가, 지방관리, 백성들이 천주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인지하고 야소교가 천주교와 다르다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느껴진다.

제너럴 셔먼호의 입국이 선교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제너럴 셔먼호의 행방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중국을 통해 진상을 조선에 요구하자 조선정부는 중국 예부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냈다.

“중국 예부(禮部)에 회답한 자문(咨文)에, … 7월에 평양부(平壤府)에 와서 정박하고는 장변(將弁)을 붙잡아가고, 백성들을 살해하며, 재물을 약탈해가고, 총포를 마구 쏘아대다가 얇은 물에 걸려 불에 타 침몰된 것은 곧 자칭 영국인 최난헌 [崔蘭軒 : Tomas, Robert Jermain], 덴마크인 리바향 [李八行] 과 오귀자 [吳鬼子] 등입니다. 원래 미국인과 돛을 두 개 단 배 1척이 얇은 물에 걸려서 불에 타버렸거나 선주와 배군 24인이 붙잡힌 일은 없는데, 이번에 윌리엄스 [衛廉士 : Williams, S. W.] 로부터 온 편지는 평양부에서 영국 배가 침몰된 사실이 와전된 것을 근본을 잘 따져보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영국, 프랑스 양국과 본래 교섭도 없었는데 어찌 화의를 잃을 수 있겠습니까? 통상과 선교의 문제는 나라의 법에 의하여 거절하였고, 선교사의 문제는 다른 나라의 나쁜 사람이 번복하고 사람들을 현혹시켰기 때문에 배척하고 제거한 것일 뿐입니다. … 이것은 곧 약탈을 일삼는 포악한 도적 무리와 한가지입니다. 통상이 과연 이와 같은 것입니까? 선교라는 것이 과연 이와 같은 것입니까?

우리는 위 보고서에서 2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제너럴 셔먼호 탑승객 가운데 2사람을 언급하면서 최난헌과 리바향을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리바향을 덴마크 인이라고 기술한 점이다.

셋째, 제너럴 셔먼호 입국 목적이 통상과 선교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다. 특히 세 번째는 불란서를 염두에 둔 언급이지만 제너럴 셔먼호 관련하여 이를 언급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고종실록>에 실린 제너럴 셔먼호 관련 기록의 문제

우리는 국내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국내 자료들이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기술에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많은 오류들을 담고 있다. <고종실록>에 실린 제너럴 셔먼호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이양선(제너럴 셔먼호)과 첫 문정을 기록한 1866년 음력 7월 15일자(첫 문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내용부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객관적인 기록이라기보다 보고자가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먼저 7월 8일[8월 17일] 제너럴 셔먼호를 문정하면 서 배에 승선할 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쪽 사람들 수십 명(名)이 각기 총칼을 지니고서 뱃머리에 정렬해 선 다음 비로소 배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 ”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한 사람은 외국인 5명과 청국인과 말레이시아인 19명 등 전체 24명이다. 뱃머리에 정렬해 섰다는 것은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관리를 맞을 때 수행하는 일종의 사열의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이다. 그 같은 해석적 여지는 외국과 통상을 금하고 국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셔먼호 관계자들이 조선의 관료들과 첫 만남을 가지면서 일종의 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기 <고종실록>에 있는 “그쪽 사람들 수십 명”이라는 내용은 정확한 기록이 아니다. 19명이 사열하고 5명이 그를 맞았다고 볼 때 문정관들이 위협감 속에서 수십 명으로 느껴졌는지 몰라도 수십 명이라고 상부에 보고한 것은 보고자가 제너럴 셔먼호가 상당한 세력을 가진 이양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한 의도가 있다고 느껴진다. 사실 20명을 수십 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히 과장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고종실록>의 오류는 셔먼호 서양 승무원들의 수와 국적이다.

“우리들은 서양의 세 나라 사람들입니다. 뢰자리에 앉은 최난헌[崔蘭軒 : Thomas, Robert Jermain]와 호가스[何

噶特이 다같이 영국 사람이며, 프레스톤[普來屯]은 미국 사람이며, 빼지[巴使]는 덴마크 사람입니다. ... 이른바 이 팔행(李八行)과 조반량(趙半良)은 중국인들로서 영국인이 데려다가 자기 막료로 삼은 사람들이었으며 그 나머지 24명(名)은 혹 태국인이거나 광둥(廣東) 상해현(上海縣) 사람들로서 길안내를 하거나 품팔이를 하거나 뱃사람 일을 하거나 하였는데, 모두가 종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지하듯이 제너럴 셔먼호에 탄 외국인은 미국과 영국 국적의 5명이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고종실록〉에는 외국인을 4명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들 4명의 외국인들의 국적도 미국 영국 덴마크 세 국가의 사람들로 기술하고 있다. 자신들이 미국과 영국 사람들이라고 국적을 분명히 밝혔을 텐데 왜 3개국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분명히 〈고종실록〉에 서면으로 문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말이다. 〈고종실록〉의 기록상의 오류 문제는 이것만 아니다. 〈고종실록〉 음력 7월 15일자에는 이팔행이 두 번이나 청국인이라고 기록했다가 음 11월 5일자 기록에서는 덴마크 인으로 기록되었다. 〈고종실록〉은 문정 첫날부터 기록상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고종실록〉은 이들 서양인의 생김새를 기록하면서도 5명 중 4명만 언급하고 있다.

“최난헌은 나이가 36살, ...그는 문직(文職)의 4품 관리로서 영국인이었습니다. 호가스는 나이가 37살, 키는 7척, ...그는 무직(武職)의 1품 관리로서 영국인이었다. 프레스톤은 나이가 48살 ...그는 무직(武職)의 1품 관리로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빼지는 나이가 45살, ...그는 덴마크 사람이었습니다. 이팔행(李八行)의 나이는 30살이었고, 조반량(趙半良)의 나이는 28살이었는데, ... 그들은 다 같이 청나라 사람이었습니다. 24명의 이름과 나이에 대하여 물어보니 토마스가 하인으로 범칭하면서 자세히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굴 생김새와 옷차림, 머리칼과 수염은 모두 청나라 사람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고종실록〉의 위 기록에서도 서양인으로는 4명만 기술하고 있고 이들 4명의 서양인들의 나이도 틀리다. 최난헌이 토마스와 동일 인물이라면 그의 나이는 입국할 때 27세였다. 수염을 길렀기 때문에 36살로 보였는지 모르지만 보고와 문정은 대충 적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고종실록〉의 서양인들의 연령에 대한 기록도 신뢰하기 힘들다. 게다가 흥미로운 사실은 최난헌, 호가스, 프레스톤 모두 국가관리로 보고 무직, 문직으로 구분하고 직책서열까지 매겨 최난헌은 문직 4품으로, 호가스는 무직 1품으로, 프레스톤은 무직 1품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기술한 것이다.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한 이들은 주지하듯이 관리들이 아닌 민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공직에 해당하는 어떤 서열도 갖고 있지 않았다. 서양의 모든 기록도 프레스톤이 민간 상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들 다섯 명의 서양인들은 무직도 문직도 아니고 1품 관리도 4품 관리도 아니었다.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한 서양인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거짓으로 그렇게 밝혔을리 없다. 보고자가 “이양선”이 침략선이라는 의심을 하고 자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내린 것이다. 보고의 생명은 객관성인데 〈고종실록〉은 보고자의 주관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고종실록〉에 있는 제너럴 셔먼호 관련 기록을 살펴보았듯이 몇 가지 점에서 제너럴 셔먼호의 실제 사실과 차이가 있다. 첫째,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한 전체 승선자들의 숫자가 다르다.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한 사람이 외국인 5명과 승무원 19명 등 전체 24명인데 고종실록은 외국인 4명, 이팔행과 조반량, 그리고 24명의 승무원 등 모두 30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제너럴 셔먼호 출항 기록에 있는 탑승자들과 〈고종실록〉에 있는 셔먼호 탑승자 수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둘째는 외국인 4명의 국적도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24명 종복들의 국적도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는 미국과 영국 국적의 사람들인데 고종실록은 미국, 영국, 덴마크 3개국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셋째, 5명의 서양인들 외에도 일반 승객들의 국적과 숫자도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제너럴 셔먼호에는 서양인 5명 외에 청국인과 말레이시아인 합 19명이 승선했는데 이들 ‘하인’의 수를 24명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들의 국적도 중국 광둥 사람과 태국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넷째, 게다가 4명의 외국인들에 대한 연령이 다르다.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고종실록〉의 기록의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종실록에 실린 제너럴 셔먼호 관련 기록 문제점

〈고종실록〉 제너럴 셔먼호 기록 문제 실제 고종실록 오류

- 1 상선의 국적 미국 영국
- 2 제너럴 셔먼호 전체 탑승자 24명 30명
- 3 탑승 서양인들 수 5명 4명

- 4 탑승 서양인 5명의 국적 미국 영국 미국 영국 덴마크
- 5 탑승자 신분 민간인 문관과 무관, 1품, 4품
- 6 탑승 아시아인들 수 19명 24명
- 7 탑승 아시아인들 국적 청국, 말레이시아 청국, 태국
- 8 탑승 서양인 나이 (예, 토마스) 27세 38세
- 9 토마스[崔蘭軒] 민간인 문직 4품
- 10 호가스[何噶特] 민간인 무직 1품
- 11 프레스톤[普來屯] 민간인 무직 1품
- 12 빼지[巴使] 미국인 덴마크
- 13 덴마크 위치 1500리
- 14 리바항 [李八行] 중국인 덴마크 인

확실히 〈고종실록〉의 제너럴 셔먼호 관련 기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고종실록〉의 셔먼호 관련 기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의 부정확성은 국내 다른 관련 기록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종교의 〈대한계산사 권1〉에는 활자본에는 1866년 9월에 일어난 사건을 고종 5년 1868년으로 기술하고 있고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최난헌)도 프랑스 선교사로 기술하고 있다. 동일한 문제가 구한말 매천 황현이 1864년부터 1910년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매천야록〉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매천야록〉은 제너럴 셔먼호사건을 기술하면서 이 사건이 무진년(고종 5년, 1868)에 박규수가 평양감사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무진년(고종 5. 1868) 박규수가 평안감사로 있을 때 미국인 최난헌이 군함 1척을 이끌고 밀물을 따라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조수로 밀려 나가다가 움직이지 못했다. 박규수는 능히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구했는데, 한 교졸이 지원했다. 어호의 파피션 수백 척을 동원해서 썰 묶은 것을 가득실어 불을 지르게 하고 또한 노수를 뽑아서 배에 주살을 매고 일제히 화살을 당겼다. 쇠뇌는 맹렬하고 배는 가벼운지라 미국 군함을 쉽게 위집하고 군함 안에 있는 인화물에 불이 붙어 군함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한명의 적이 불길 속에서 뛰어나오면서 나는 듯 개펄을 밟고 달아나므로 4,5차례 포를 쏘아서 쓰러뜨렸다. 이 일이 조정에 전해지자 박규수는 승자하고 그 교졸은 공을 높이 사 진장으로 삼았다.”

여기 한 교졸이 박준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종실록〉은 그에게 “오위장”을 특전했는데 〈매천야록〉에는 “진장”을 삼았다고 말한다. 그는 평양지역 초기 신자 가운데 한명이었다.

무슨 기록이던 기록의 의도와 성격이 반영되게 마련이다. 〈고종실록〉은 보고의 생명인 객관성을 상실하고 보고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보고한 부분과 사실적 오류를 상당히 담고 있으며 〈고종실록〉 외 〈매천야록〉은 소문에 근거해서 기록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사건의 전후관계와 가장 기본적인 그 사건이 일어난 발생연도마저 틀리다. 그것도 실제 보다 2년이나 늦은 1868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고종실록〉과 기타 국내 자료들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IV. 오문환의 〈도마스 목사전〉을 통해 조명한 토마스의 2차 선교 문제

그렇다면 오문환의 〈도마스 목사전〉은 어떤가. 지금까지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순교라고 하지 않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60년이 지난 뒤 증언들을 모아 기록했다는 오문환의 〈도마스 목사전〉이 신뢰할 수 없고 반면 〈고종실록〉에 실린 제너럴 셔먼호 관련 기록은 신뢰할 수 있는 논리를 저변에 깔고 논점을 전개했다면 오문환의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도마스 목사전〉을 통한 제너럴 셔먼호 입국과 토마스 선교문제

〈고종실록〉이 보고서이기 때문에 셔먼호의 입국과정을 잘 기술해준다면 오문환의 기록은 토마스의 선교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문환에 따르면 8월 9일 지푸를 떠난 셔먼호는 하루 이틀 황해바다를 횡단해 진남포 항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토마스는 제일먼저 백령도 서단연화동에서 성경 얼마를 반포하였으며, 그리고 진남포 항구에서 1년 전 자신을 한국에 데려다 준 중국인 수부 유원태(Yu Won Tai)와 그의 일행을 만나 평양까지 인도해주길 요청했다. 유원태가 수락해 그들의 안내를 받으며 강서 보산까지 항해를 계속해 8월 20일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하류인 보산에 정박했다. 조선군이 제너럴 셔먼호를 처음 목격한 장소와 시점이 〈고종실록〉은 8월 17일 삼전면 송산리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오문환은 8월 20일 보산이라고 밝히고 있다. 처음 셔먼호가 조선군 측에 노출된 날짜에 대한 오문환의 기록은 〈고종실록〉의 기록과 3일간의 차이가 난다. 송산과 보산이 같은 지역인지, 과연 첫 만남이 8월 17일인지 8월 20일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일이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오문환은 이 때 낮선 배를 목도한 별장이 병졸을 통해 제너럴 셔먼호에 먼저 사격을 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음 낮선 배를 목도하고 즉시 조선군측이 먼저 사격을 가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국내 어떤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문환에 의하면 중국인 수부가 “동선의 목적이 순전한 상업임을 설명”하였으나 조선군측은 제너럴 셔먼호가 무기를 적재한 것을 보고 여전히 의심을 했다. 이것은 〈고종실록〉의 기록과 비교할 때 일치는 보는 내용이다.

오문환은 보산에서 중국인 수부가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중국으로 귀환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종실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메도우 회사가 별릴게임에게 보낸 서신에 언급된 것을 보면 사실로 보인다. 토마스의 보산에서의 선교사역과 관련하여 오문환은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오문환에 의하면 8월 20일 토마스는 자신을 찾아온 천주교 신자 지달수, 지달호, 지달유, 지달제 등 10여인을 만났으며 이들은 훗날 토마스 선교사에게서 자신들이 성경을 전해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제너럴 셔먼호가 보산에 나타났을 때 19세의 홍신길이가 시장에 갔다 제너럴셔먼호 입국 소식을 듣고 해안에 나가 일행과 함께 셔먼호에 올라 토마스를 만나 그에게서 성경을 전해 받고 훗날 기독교인이 되었다. 훗날 홍신길은 81세의 고령의 나이에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목도한 것을 오문환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해 주었다.

내가 정식으로 신자가 되기는 지난 을미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종자를 밋기는 지금으로부터 육십 삼년 전 병인년 포리에서 잇을 때 도마스 목사의게서 밋었습니다. 81세의 늙은 것을 아직도 하남께서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아마 도마스 목사의 전도사적을 증거하라하심인가 보외다.

홍신길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그가 직접 토마스에게서 성경을 전해 받았고 먼 훗날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그가 살아 있을 때 직접 오문환에게 그 사실을 증언해주었기 때문이다. 오문환의 기록에 의하면 이 때 토마스가 그 곳에서 성경 약 500여권을 반포했다. 500여권의 수치가 어떤 기준에 의해 산술되었는지 몰라도 이 수치는 과장일 수도 있다. 아마도 증언자가 추론적으로 한 말에 기초하여 기술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토마스가 전해준 중국어 문리 성경은 쪽복음이 아니라 신약전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500권의 신약전서는 분량이나 부피로 대단한 것이다. 그가 가지고 온 성경을 여기서 전부 반포했다면 몰라도 그 수치는 적어도 어느 정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오문환의 기록에 의하면 포리에서 1박을 보낸 후 8월 21일[음력 7월 12일]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을 향해 항해를 계속해서 수심이 깊은 석정호에 잠시 정박하였다. 석정호에서 토마스는 육지에 상륙하여 다수의 성경과 전도문서를 반포하였다.

“포리에서 1일 간 정박하였든 제네랄 셔만호는 발진하여 다시 평양방편으로 올라가기를 시작하였다. … 토마스 목사는 … 정박기에 양호한 석정호에 잠시 정박한 후에 상륙하여 다수의 성경과 전도문서를 분급하였다. 그 때에 대동군 남조면 원암리에 거주하는 김영섭씨라는 1청년이 유하였는데 거기 구경하려고 나아갔다가 도마스 목사의게 약 45권의 서적을 얻어가지고 귀가하였다. 그는 본래 한학자인지라 기 서적이 비범함을 발견하고 매일 심독하는 중에 기교훈이 참으로 신중할만한 것으로 알고 기후 천도교에 입교한 자기의 자제 종기씨를 권하여 천도교를 중지하고 그리로 귀화하라고 하였다한다. 불행히 정식의 신자가는 되지 못하고 별세하였으나 그의 권면으로 인하여 종섭씨도 신자가되고 기친척되는 김성집씨도 신자가 되었는데 종권씨는 다년간 대동군남조면 대송리교회와 평양서성리교회의 조사로 시무하였스며 김성집은 다년간 강서사천교회의 장로로 열심시무하다가 기년전에 별세하였다. 그 때에 밋은 서적중에는 성경외에 진리역지와 여한 전도서적도 잇섯다고 한다 김종권씨는 부친의 별세후에도 시시로 기 서적을 열람하든 중 불행히 오년전 대홍수로 전부 유실하고 말었다. 석정호서 약 백여권의 성서와 전도서적을 분급한 후에 제너랄셔만호는 다시 발진하여 8월 이십일일[음 7월 12일 화요일] 만경대에 도착하였다.”

오문환의 이와 같은 기록은 한국선교에 대한 토마스의 열정을 잘 보여준다. 8월 21일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만경대에 도착했다. 오문환의 만경대 정박 부분 기록에서는 〈고종실록〉의 기록과 하루 차이가 난다. 관리들이 여러 차례 돌아갈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셔먼호는 평양을 향해 항해를 계속했다. 조정이나 지방 관리들이 볼 때 이것은 분명 “양선침입”이었다. 포리와 석정호에서는 배에 올라 성경을 빗기도 했으나 만경대에서는 경비가 삼엄해 어느 누구도 제너럴 셔먼호에 오를 수 없었다. 셔먼은 문정을 하면서 “산천구 경검견찰리”는 임의에 맡겨 권한이 있지만 교역물화는 지방관리가 허락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도마스 목사전〉에 의하면 제너럴 셔먼호는 4일간 만경대에 머물다 8월 25일[음 7월 15일, 토]에 다시 발진해 거기서 조금 상류인 봉황진에 정박했다. 바로 이날 중군 이익현이 제너럴 셔먼호를 경계하기 위해 배를 타고 계속해 제너럴 셔먼호를 따라 가며 순찰 감시하다 붙잡혔다.

중군 이익현을 볼모로 잡은 사건에 대한 오문환의 기록은 〈고종실록〉과 약간 차이가 있다. 〈고종실록〉은 이익현을 나포해서 제너럴 셔먼호로 끌고 갔다고 기록한 반면 오문환은 상의할 것이 있다고 청해 제너럴 셔먼호로 데리고 갔다가 볼모로 잡았다고 말한다. 오문환은 중군 이익현을 붙잡아 둔 날이 “8월25일[음 7월 15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고종실록〉은 양력 8월 27일[음력 7월 18일]이라고 말한다. 둘 사이에 양력으로는 이틀 그리고 음력으로는 3일이나 차이가 있다. 음력의 차이가 더 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오문환이 음력 일을 하루 당겨 일관되게 오기했기 때문이다. 중군 이익현을 볼모로 잡아두는 행위는 당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고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관을 자극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실을 오문환도 인정하고 있다. 상업을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하지만 중무장을 한 상황에서 중군을 볼모로 잡아두자 “상하제관원은 적기심이 흥구되야 전투준비를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평양양란의 전단이다.”

〈고종실록〉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은 평양양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왜 중군을 볼모로 잡아 놓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볼모로 잡았는지, 그 과정에서 대치와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오문환의 기록은 이 사건의 전후와 이유 그리고 과정을 상술하지 않았다. 반면 〈고종실록〉에 의하면 셔먼호는 중군을 태우고 무모하게 총을 난사하면서 항해를 시작, 황강정(黃江亭)에 정박했고, 이어 5명의 외국인들이 작은 초록색 보트를 타고 강을 관찰하기 위해 마탄(馬灘)으로 이동하자 마을 사람들이 강에 모여 그들을 향해 “우리의 중군 이현익을 돌려주소”라고 큰 소리로 외쳤으며 점점 흥분하기 시작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고 그들 중 몇이 화살을 쏘았고 몇몇은 그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듯이 대치국면에서 조선군 측이 먼저 공격했다. 셔먼호는 다시 이동을 시작, 양각도 하단으로 기수를 돌려서는 그곳에 정박했다. 양각도에서 박춘권(朴春權)이 이현익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작은 배를 타고 셔먼호에 올라 그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오문환은 〈도마스 목사전〉에서 중군 이익현을 볼모로 가둔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를 구출한 박춘권이 훗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면서 믿음의 목격자들과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나 토마스 선교사역을 연결시켜 자신의 기록의 신뢰성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익현을 구출하는데 앞장선 주인공 박춘권이 훗날 평양장로교회 최초의 교인 중의 한 명이 되었고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가 많은 사실들을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출석하는 교회나 선교사들에게 증언해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마스 목사전〉에 따르면 1866년 9월 2일에 제너럴 셔먼호는 한사정 상편 모래에 좌초하고 말았다. 오문환은 여기서 〈고종실록〉이 밝히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좌초로 인해 제너럴 셔먼호가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더욱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자 사태의 심각성과 위기를 느낀 제너럴 셔먼호 대표와 통역이 9월 3일 상륙해서 탈취한 중군 이익현의 인신을 돌려주고 서류를 가지고 생환을 보장해 줄 것을 애걸하자 조선군 군관들이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상륙해서 항복하면 허락하겠다고 답했다. 셔먼호 대표가 이 사실을 셔먼호에 있는 다른 승무원들에게 알리자 셔먼호에서 갑자기 포를 쏘기 시작했다. 오문환은 셔먼호가 왜 발포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정상적이라면 분명히 계속전투를 벌인다면 죽을 텐데 무모하게 포를 쏘며 맞서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어느 기록에 보니 조선군측은 셔먼호의 포탄이 고갈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평양감사 박규수는 이현익 대신 중군에 임명된 백낙연과 평양서윤 신태정을 독려해 “한사정 상편 사상”(閑似亭 上便 砂上)에 좌초한 셔먼호와 접전을 벌여 셔먼호를 침몰시키는데 성공했다. 조선군과 셔먼호간 대치 국면에서 조선군 측 누가 전투를 진두지휘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내자료는 통일성이 없다. 게일의 기록에 의하면 박춘권이 동일한 화공전법을 3번을 시도했고, 세 번째 성공을 거두었다. 양각도 모래 위에 좌초된 셔먼호는 돌을 던지고 활과 화승포를 쏘며 공격하는 군졸과 관민들을 더 이상 당할 수 없었다. 이를 이용해 관민들이 작은 배들을 연결하고 그 위에 술가지를 가득 쌓

아놓은 후 유황을 뿌린 다음 불을 붙여 서면호로 떠내려 보냈고, 불타는 이들 배가 서면호에 닿자 서면호는 곧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오문환에 의하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분노한 관민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오문환은 제너럴 서면호가 불타고 승선했던 이들 모두가 죽임을 당한 날이 1866년 9월 3일이며 음력으로 7월 24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2년 앞서 출간된 “조선기독교회사의 일대 분수령인 평양양란” 소책자에서도 제너럴 서면호 소실이 음력 7월 24일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9월 3일은 음력으로 7월 25일이고, 토마스가 탄 제너럴 서면호가 소실된 것이 〈고종실록〉에는 음력 7월 27일, 양력 9월 5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오문환의 기록이 〈고종실록〉의 기록과 2일의 차이가 있다. 서문에서 “오기된 년대를 정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자신이 발생연도도 음력 역월(曆月) 환산도 착각한 것이다.

오문환의 기록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토마스의 마지막 선교활동에 대한 기록이다. 그는 토마스 목사 전에서 “백기투장과 성경분급”이라는 소제목 하에 토마스의 마지막 극적인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마침내는 포연탄우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손에는 백기를 잡고 한 손에는 성경 들어 강변에 잇는 군중을 향하여 성경을 뿌리기 시작하였다. ... 총성포성의 뒤끝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 이 23인의 등승자 중에는 1인도 감히 엄두를 못하는데 용감하게 홀로 야소라고 고성을 치며 무수한 성경을 선두에서 뿌려주었스니 이 장절쾌절한 극적 광경은 당시 근 이십의 청년으로 외성에 거주하면서 강변성상에서 이 광경을 친히 목격하고 후에 평양부근장로교회 초대신자가 되야 80고령인 금일에도 충실학 대동군 대동강면 조왕리교회에 출석하는 황명대 씨가 증명하고 있다.”

증언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오문환의 기록에 의하면 군관과 제너럴 서면호가 서로 격전을 벌이는 그 사이에 토마스는 “예수”라고 갑판에서 외쳤고 한 손에 백기를 들고 [서면호에서 나와] 성경을 반포했다. 토마스의 선교활동이나 마지막 순간까지 서면호에서 “예수”를 외치며 성경을 반포한 사실을 목도한 많은 증인들을 실명으로 밝혔다. 박춘권, 황명대, 김연필, 한석진, 최치량, 이신행, 박영식, 마포삼열 등을 거론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자녀들 혹은 가까운 지인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증언은 비록 60년이 지난 뒤에 일이지만 목격자들의 증언, 그것도 동일한 사건에 대한 여러 명의 증언이라 사료적 가치가 높다.

2. 오문환의 〈도마스 목사전〉에 실린 내용과 역사서술 문제

주지하듯이 〈도마스 목사전〉은 많은 증언과 사료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정리하여 기술한 책으로 토마스 선교사 내한과 선교사역을 이해하는 매우 소중한 사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문환의 〈도마스 목사전〉에는 다음 몇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제너럴 서면호 입국 일정에 대한 기록의 부정확성이다. 서면호 입국과정과 입국활동과 관련하여 이동장소와 일자가 〈고종실록〉과 다르다. 조선군에 의해 처음 목격된 장소가 〈고종실록〉은 8월 17일 삼전면 송산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도마스 목사전〉은 8월 20일 보산이라고 되어 있다. 발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3일간이나 차이가 난다. 3일간의 차이는 무시하기에는 큰 차이이다. 이동과정과 정박에 있어서도 그의 기록은 〈고종실록〉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2일간의 차이가 난다. 그런데다 양력과 음력을 병기하면서 양력에 해당하는 음력일이 양력일보다 하루 앞서 전체가 오기되었다.

둘째, 오문환의 기록은 제너럴 서면호의 입국과정에서의 정박지도 〈고종실록〉과 차이가 많다. 이 때문에 〈도마스 목사전〉으로는 입국과정을 일자별로 이동경로를 재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오문환이 제너럴 서면호 입국과정이나 활동 자체보다 토마스의 선교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성경과 책자를 반포한 것을 무게 있게 서술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고 고려할 수 있지만 일자와 정박지가 통일성이 없는 것은 역사적 기술에서 큰 약점이 아닐 수 없다. 정박지역의 부정확성 역시 일제에 의해 일부지역이 편제되거나 이름이 바뀐 경우가 없지 않지만 주요지역은 1866년 제너럴 서면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와 오문환이 〈도마스 목사전〉을 기록할 1928년경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셋째, 〈도마스 목사전〉은 한 개인의 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변증적으로 때로는 지나치게

변호적으로 사건을 기술해 나갔다. 한 사건에 대한 기술을 할 때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서술이 역사기술에서는 생명이다. 그런데 오문환의 책은 토마스 목사나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의도적 변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넷째, 앞서 언급한 입국일정과 이동경로가 〈고종실록〉 기록과 다를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이 일어난 날짜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올라 탑승자 전원이 죽은 날자가 오문환은 9월 3일[음력 7월 24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고종실록〉은 9월 5일로 기록하고 있고, 음력으로는 오문환이 주장하는 7월 24일이 아니라 7월 27일이다.

다섯째, 오문환은 〈도마스 목사전〉 부록에서 몇 가지 연구결과물을 제시하면서 〈고종실록〉에 기록된 최난헌이 토마스가 아니고, 어느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한 다른 인물이거나 더 확실하기는 제너럴 셔먼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한다. 오문환은 토마스와 최난헌이 동일 인물임을 부정하면서도 만약 동일인물이 아니라면 토마스가 〈고종실록〉에 기록된 서양인물 중 누구인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필자가 볼 때 최난헌이 탑승자가 아닌 셔먼호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오문환의 〈도마스 목사전〉의 큰 약점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고종실록에 탑승자들을 언급하면서 최난헌을 탑승자 명단에 언급하면서 제일먼저 언급했고 또 나이까지 명시했기 때문이다.

여섯째, 오문환의 〈도마스 목사전〉은 많은 자료를 동원하고 증인들의 고증을 거쳐 기록한 것임을 높이 사면서도 인용된 것 중에서 자료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다. 다만 1867년 2월 〈런던선교회 잡지〉에 실렸다는 “북경 토마스의 죽음”에 대한 기사는 실제로 The Chronicle of the London Missionary Society, 1867년 2월호 36쪽에 실린 것이 확인되었다. 오문환이 사실 확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오문환은 토마스의 죽음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런던선교회가 토마스의 죽음을 기록한 기사도 “순교전말을 상세히 알지 못하고” 기록한 기사라고 단정했고, 〈고종실록〉의 제너럴 셔먼호의 관련기록도 부분적으로만 수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토마스를 지나치게 순교적 영웅으로 미화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전기라는 것이 그럴 가능성이 늘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오문환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가 당대의 시대적 산물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

“영웅열전”(hagiology)과 “전기”(biography)는 다르다. 앞으로 토마스 연구를 위해서는 오문환의 〈도마스 목사전〉이 지닌 중요한 증인들의 가치와 연구 업적들을 존중하면서도 그의 기록을 기타 자료들과 면밀하게 비평적으로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V. 그의 죽음과 관련된 해석

이제 남은 문제는 토마스의 죽음에 대한 서술과 해석 문제이다. 토마스의 마지막 순간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그것은 단순히 지금부터 150년 전의 일이라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죽음과 관련하여 남겨진 1차 사료가 거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제너럴 셔먼호의 생존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온전한 재구성에는 한계가 있다. 제너럴 셔먼호 측 자료와 조선군관측 자료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정보는 조선군관측 기록, 증언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한쪽의 입장이 반영된 자료라는 한계를 전제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1차 자료로 〈고종실록〉과 기타국내자료들, 지푸 주재 미 영사 샌포드가 북경 미국 공관 별령게임에게 보낸 보고서, 제임스 게일의 “제너럴 셔먼호의 운명,” 해밀턴의 “한국의 첫 개신교 순교자,” 오문환의 〈도마스 목사전〉, 그리고 1934년 〈북장로교 선교회 역사 1884-1934〉이 있다. 문제는 여러 기록들이 토마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서술에서 통일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고종실록〉은 전투를 벌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기록이고, 샌포드의 보고서도 두 명의 불란서 신부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며, 게일의 “제너럴 셔먼호의 운명”은 30년이 지난 후 사건 당시 18세의 한 목격자의 증언에 기초한 것이고, 오문환의 경우는 여러 증언에 기초한 기록이며, 그리고 1934년의 〈한국북장로교선교사〉의 기록은 선교사들의 증언과 오문환과 기타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기록한 것이다. 각기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면 토마스의 죽음과 관련된 특징들을 어느 정도 도출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들 사료들을 중심으로 토마스의 죽음을 면

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고종실록의 기록(1866)

1866년 9월 5일[음력 7월 27일] 고종실록에 있는 대로 평양감사 박규수는 제너럴 셔먼호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는가를 이렇게 기록해서 보고했다.

“평양에 정박한 외국 범선[제너럴셔먼호]이 무자비하게 우리 백성에게 총을 쏘고 죽이고 부상을 입혔습니다. 범선[제너럴셔먼호]을 파괴시킬 수 있는 책략을 숙고한 후 최종적으로 불타는 나룻배들을 사용하여 불을 지르는 시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타는 배가 그 범선에 닿아 불이 번지자 최난헌과 조능봉이 범선 뱃머리로 나와 거의 동시에 강물에 뛰어들어서는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체포되어 묶여져 강변으로 끌려왔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곧 성난 백성들과 군인들에 의해 매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이어 제너럴 셔먼호 나머지 승무원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제너럴 셔먼호의 마지막 사람이 처형되었을 때 백성들의 분노와 흥분이 진정되었습니다.”

〈고종실록〉에는 전혀 선교적 활동은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난헌과 조능봉이 뱃머리로 나와 강물에 뛰어들어 강변으로 나와 살려달라고 간청했고, 그들이 체포되어 묶여져 강변으로 끌려와서 죽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토마스와 조능봉 그리고 그 외 승무원 모두가 비참하게 관민들에 의해 살해를 당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2. 지푸주재 미영사 Mr. E. Sanford가 북경주재 미공사 Mr. Anson Burlingame에 보낸 보고서(1866)

“...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그 지방 수도 평양에 도달했는데 ... 곧 지방 장관[박규수]은 대원군에게 배에 탄 승무원들을 죽일 것인지 그들과 배를 같이 불태울 것인지 지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원군은 그 배와 탑승객 모두를 불태우라고 답했다. 이 잔혹한 명령은 집행되었다.’ ... 1866년 10월 7일 두 중국 정크선이 한 국에서 도착해 한 외국 범선의 좌초와 소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토마스가 그를 이전부터 알고 있던 중국인들 가운데 한 명에게 토마스가 평양까지 배 안내를 해 달라고 중재했고 그가 그러겠다고 하고 그 배를 4번의 조류 동안 안내했다. 이 때까지 이양선에 대한 경고가 조선 본토인들에게 널리 확산되었고, 길 안내를 맡은 중국인이 그들[문정관]에게 그 배가 평화적인 무역거래선이라고 말했지만 해적으로 여겨 그를 믿지 않았다. (제너럴 셔먼호는 중무장을 하고 있었다.) ... 27일 밤에 한국의 산간에서 숨어 있던 두 명의 불란서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도착했다. 그들은 진술하기를 한 외국 범선이 평양 반대편에 좌초를 당했으며, 본국인들과 그 범선에 타고 있는 이들 사이에 얼마동안 전투가 벌어진 후에 본토인들이 [화공]전략을 써서 그 사람들을 강변으로 끌어오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본토인들에 의해 둘러싸인 후 손이 뒤로 묶여 포박되었으며 그런 후 강변에 무릎 꿇려져 참수를 당했다. 선교사들은 20명이 죽임을 당했고 보고했다.

셔먼호 승무원들이 포박되어 무릎 꿇린 상태에서 참수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참수를 당했다는 기록은 그 리피스도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토마스의 마지막 순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본다.

3. 게일, “제너럴 셔먼호의 운명”(The Fate of the General Sherman, 1895)

제임스 게일은 당시 목격자의 증언에 기초하여 기술한 “제너럴 셔먼호의 운명”이라는 한 글에서 서양인들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승무원들은 셔먼호 화재로 인해 연기를 피해 셔먼호 양측에서 물로 뛰어 들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병을 가지고 뛰어 들었는데 열어보니 그 병에는 한국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짙은 브라운 색 기름이 담겨진 듯했다. ... 그 불쌍한 외국인들은 이제 성난 군중들에 의해 난자를 당했다. 백기를 가지고 강변에 이른 한 두 명은 계속해서 절을 하면서 백기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채 결박되어 난자당했고, 그 남은 자들은 더욱 정교하게 난자를 당했으며, 신체의 어떤 부분들은 의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려내졌고, 나머지 부분들은 끓여 모아져서 불에 태워졌다.

게일은 위에 있듯이 강변에 백기를 들고 한 두 명이 접근했다는 사실, 백기를 흔들며 계속 절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토마스가 한 손에는 백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예수”라고 외치며 성경을 반포했다는 오문환의 증언과 맥을 같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백기는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투항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해서 백기투항을 했을 텐데 오문환은 조선군관들이 그 백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사실은 토마스가 자기를 죽이려는 군인에게 성경을 받으라고 하며 최후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기록과도 어떤 면에서 상응하는 유사성을 담지하는 내용이다.

4. F. E. Hamilton, “The First Protestant Martyr in Korea”(1927)

해밀턴은 1927년 9월에 발표한 토마스 관련 논고에서 그가 “한국의 첫 개신교 순교자”라고 분명히 명명하고 그 제목으로 자신의 글을 전개해 나갔다. 그는 토마스의 죽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솔가지를 잔뜩 실은 한 큰 강배에 불이 붙었다. 이 배가 제너럴셔먼호에 맞게 낮게 묶여져 있어 그 불길이 번져 셔먼호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그 배에 남아 있던 22명의 사람들은 그 배가 최후를 맞는 것을 목도하고는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물로 뛰어들어 강변으로 걸어났다. 그러나 가는 도중 그들 모두는 검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학살당했다. 몇 사람은 물에서 살육 당했고 다른 사람들은 강변에서 살육 당했으며 그리고 적어도 한 사람은 물에 뛰어들기를 거부하다 화염 속에서 최후를 맞았다. 2주간 동안 여러 차례 성경 한권을 손에 쥐고는 강변에 모인 군중들에게 소리치며 전도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그들을 이해시킬 수 없었던 토마스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남은 성경을 강가에 운집한 군중들에게 던졌다. 그리고는 자기 손에 마지막 남은 한 두권의 성경을 가지고 물에 뛰어들어 강가로 걸어갔다. 토마스가 그를 죽이려는 한 군인을 만나 그에게 성경을 건네주며 받으라고 간청했으나 그 사람이 거절하였다. 토마스는 모래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후에 그 군인은 비록 토마스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고 진술했다. 그런 후 토마스는 눈을 뜨고 군인에게 미소를 머금고 그 책을 받기를 다시 간청했다. 감히 용기를 내서 무릎을 꿇은 그 사람을 죽이려 했던 군인은 드디어 토마스의 심장을 찔러 그를 살해했다. 그가 후에 자신의 가족에게 말한 것처럼 그는 한 선한 사람을 살해했다고 느끼고 그가 죽인 그 사람이 떨어트린 성경을 집어 자기 집에 가지고 왔다. 토마스를 살해한 그 사람은 지난해 평양숭실대학을 졸업한 졸업생 중의 한 명인 이영태 모친의 삼촌이었다. 이영태는 지금 성경개정위원 가운데 한명인 레이놀즈 박사의 비서로 현재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해밀턴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제너럴셔먼호와 토마스의 마지막 장면을 생생하게 그렸다. 이 기록은 토마스의 죽음과 제너럴셔먼호의 최후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다.

5. 오문환의 〈도마스 목사전, 1928〉

오문환은 자신의 〈도마스 목사전〉에서 “최후기도와 순교”라는 소 제목 하에 토마스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도마스 목사의 전도 상황을 기록하려고 한다. … 한 손에는 백기잡고 한 손에는 성경들어 강변에 있는 군중을 향하여 성경을 뿌리기 시작하였다. … [도마스는] 용감하게도 홀로 야소라고 고성을 치며 무수한 성경을 선두에서 뿌려주었스니 이 장절쾌절한 극적광경은 당시 근 20세의 청년으로 … 후에 평양부근장로교회 초대 신자가 되어 팔십고령인데 금일에도 충실하게 대웅군 대동강면 조왕리교회에 출석하는 황명대씨가 증명하고 있다 …도마스 牧師는 殘餘의 聖經과 傳道書類를 힘이 미치는 全部 傳播코저 努力하였스나 그만 다 맞초지 못하고 火焰에 쫓기여 나리게 되었다. 내려가면 軍人의게 被殺될 것은 事實인데 最後로 自己의 生命을 빼앗는 軍人의게까지도 福音을 傳하리라 하고 一券의 聖經을 手中에 잡은 後 배에서 내려 언덕으로 나아가니 企待리고 있든 軍人은 어느 듯 달너든다. 임의 朝鮮으로 쉼날 때부터 豫測하고 決心한 것이 매 무삼 意外의 일이 되며 무삼 무서움이 잇섯스랴! 도로혀 仁慈한 態度로 죽이려는 軍人의게 聖經 밧기를 勸하매 某軍人도 赤是人이 잇는지라. 들엇든 칼을 暫間멈추었다. 그 동안 도마스 牧師는 두 무릅을 沙場에 꿇고 머리를 숙여 쌍에 대인後 얼마 동안 最後의 祈禱를 올니고 다시 니러나서 軍人의게 聖經밧기를 勸하였스나 某軍人은 그의 말을 充分히 理解치 못하였슬거도 事實이려니와 環境이 그것을 許諾지 안는지라. 밧침내 칼을 그 가삼에 대여 하나님의 忠僕 도마스 牧師의 貴여운 生命을 빼앗고

말었다. ... 이 얼마나 의로운 죽음이며 이 얼마나 고상한 최후이였는가! ...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힘이 아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자의 타인과 상이한 점이 아닌가! 순교자의 혈이 교회의 종자라는 말과 갖치 복음을 위하여 흘린 도마스 목사의 순교한 혈이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소리를 칠날이 있을 것은 의심없는 바이다.

6. 해리 로즈 편집, 〈복장로교 선교 역사 1884~1934〉

한국인들이 이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기로 결정하고 1866년 9월 3일 마른 소나무 가치를 잔뜩 실은 큰 나룻배에 불을 붙여 제너럴 셔먼호로 떠내려 보냈다. 피신하려는 승무원들이 물에 뛰어들었고 그들이 강변에 도착하자 살해당했다. 그들은 24명(19명의 말레이시아인과 중국인, 그리고 5명의 서양인들)이었다. ...강변에 나온 토마스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성경을 건네주었으나 거절당했다. 그런 후 토마스는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몇 가지 공통적인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토인들과 셔먼호 탑승자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둘째, 셔먼호가 좌초를 당했고, 조선군의 화공전법에 의해 셔먼호가 불타올랐다. 셋째, 조선인들이 셔먼호 탑승자들을 강변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넷째, 몇 명이 백기를 들고 투항했고 백기를 흔들며 절을 했다. 다섯째, 이들 셔먼호 탑승자들이 묶여져 참수를 당했다.

셔먼호의 승무원들의 최후 장면의 기술들 가운데 화공전법에 의한 셔먼호의 화재, 승무원들의 탈출, 이들의 백기 투항여부, 강변에 올라오거나 끌려온 여부, 포박여부, 무릎을 꿇었는지 여부, 기도여부, 그리고 참수여부를 담고 있는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건의 통일성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오문환의 〈도마스 목사전〉에 의하면 토마스는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는 가운데서 “예수”라고 외쳤고, 한 손에 백기를 들고 강변에 나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한 군인에게 성경을 전해주려고 시도했다. 토마스의 마지막 순간의 사건 묘사와 관련하여 위 도표에서 보듯이 화공전법에 의한 제너럴 셔먼호 화재, 승무원의 셔먼호 탈출, 백기투항, 강변 도달, 포박, 무릎, 기도 그리고 참수 가운데 적어도 셋 혹은 그 이상의 다른 자료들이 〈도마스목사전〉의 기록을 지지하고 있다. 토마스가 포박되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전해줄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는 그가 셔먼호에서 나와 바로 포박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너럴 셔먼호 측이 남긴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 완전한 재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관련 여러 자료들을 종합할 때 토마스는 한손에 백기를 가지고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불타는 제너럴셔먼호에서 강변으로 나와 절을 하며 성경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선교사 제임스 게일이 증언을 토대로 “셔먼호 운명”에서 밝힌대로 “백기를 가지고 강변에 이른 한두 명은 계속해서 절을 하면서 백기를 흔들었다.” 이것은 토마스가 바로 포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요한 사건 맥락에서 셔먼호의 운명과 〈도마스목사전〉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 특별히 “셔먼호의 운명”은 사건 발생 30년 후의 목격자의 증언을 기초로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게일은 “제너럴 셔먼호의 운명”에서 당시 18세였던 증인의 말을 인용해 강변에 이른 한두 명이 계속 절하면서 백기를 흔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지푸 주재 미국 공사 샌포드의 보고서에 있는 내용 즉 탑승자를 무릎을 꿇게 하고 참수를 했다는 것과 토마스가 강변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한 군인에 의해 칼에 맞아 죽었다는 오문환의 증언 사이에는 상호 유사성이 존재한다. 심지어 〈고종실록〉의 기록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정황을 뒷받침해 준다.

불타는 배가 그 범선에 닿아 불이 번지자 최난헌과 조능봉이 범선 뱃머리로 나와 거의 동시에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체포되어 묶여져 강변으로 끌려왔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곧 성난 백성들과 군인들에 의해 매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이어 제너럴 셔먼호 나머지 승무원들도 죽여 버렸습니다.

오문환의 〈도마스 목사전〉이 비록 토마스가 세상을 떠나고 60년이 지난 뒤에 토마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토마스에게서 성경을 전해 받은 이들이 당시까지 생존해 있었고, 이들이 거의 동일한 내용을 증언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 목격자들이 아직 생존했을 때 그 증언에 기초해 책이 출판되었다고 한다면 그 책의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비판적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증언과 여러 연구 자료들을 통해 저술한 〈도마스 목사전〉의 내용이 허구였다면 게일, 마펫, 헬버트 등 국내 역사에 깊은 관

심을 갖고 연구해 온 선교사들로부터 또 심지어 토마스의 선교와 순교를 목도한 증언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을 것이고, 토마스 기념사업회 역시 그토록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VI. 토마스의 순교가 가져다준 첫 영적 결실들

그렇다면 토마스 선교사 순교 조명이 왜 늦었는가? 어느 한 사람의 죽음이 순교냐 하는 것은 한 개인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토마스는 개신교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던 대원군의 쇄국통치 하인 1866년 8월에 선교사로 입국해 9월 5일 세상을 떠났다. 미국이나 외국 정부가 조선 정부를 통해 얻은 것은 제너럴 셔먼호의 입국일정과 최후 사실은 그 배가 불법으로 입국했고 그 배를 타고 입국했던 승무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조선군과 전투를 벌이고 민관에 의해 살해당해 죽었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정부가 줄 수 있는 정보는 그 외에는 없었다. 1866년 이후 조선은 한동안 열강들과 대치국면을 이어갔고 1876년 강화도조약, 1882년 조미수호조약에 이어 1884년 9월 20일 첫 개신교 선교사 알렌이 입국했다. 이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하고 20년이 가까이 지나서이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한 평양지역에 선교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다시 거의 10년이 지난 1893년으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 발생 27년 후다. 토마스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고 30년 동안은 교회가 그의 죽음을 순교로 논할 수 있는 장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으며 그런 환경도 주어지지 않았다. 마포삼열이 고백하는 대로 1893년 평양에서 서양 종교가 “외국 귀신”의 종교로 여전히 인식되고 배척을 당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더 더욱 그랬다. 그런 가운데서도 마뻬은 1893년 10월 22명의 학습반 신자 가운데 토마스로부터 성경을 전해 받은 사람 1명이 있다고 증언했고, “중국어 한문성경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제너럴 셔먼호-토마스-성경반포를 실제로 실증해 준 것이다. 사건 당시 12살의 소년으로 토마스에게서 성경을 전해 받은 최치량이 훗날 평양지역 초기 교인이 되었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박춘권이 평양지역의 초기 교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 제임스 게일에게 생생한 증언을 전해주어 게일이 “제너럴 셔먼호의 운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 18세[증언당시 약 48세]의 증언자도 신앙인으로 여겨진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토마스를 순교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의 순교로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상>은 토마스 선교사 순교는 “예수교의 파종한 의혈”이라며 그의 순교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1865년(一八六五年) 을축(乙丑)에 북미합중국(北美合衆國) 목사(牧師) 도마스가 중국(中國)으로부터 풍범선(風帆船)을 탑승(搭乘)하고 황해도연안(黃海道沿岸)에 잠박(潛泊)하여 한문복음(漢文福音)을 전파(傳播)하고 익년(翌年) 즉(卽) 1866년(一八六六年) 병인(丙寅) 천주교도(天主教徒) 학살(虐殺) 시(時)에 미국상선(美國商船)을 편승(更乘)하고 한문성경(漢文聖經)을 다재(多載)하고 평양(平壤) 대동강(大同江)에 래박(來泊)하였더니 관찰사(觀察使)의 습격(襲擊)을 조(遭)하여 해상민(該商民) 등(等)과 도마스가 불행(不幸)히 동시병사(同時並死)하니 합도군(蓋道君)은 당시(當時)에 국금(國禁)을 명지(明知)하되 사(死)를 모(冒)하고 도(道)를 전(傳)하였나니 시(是)난 아(我) 예수교(敎)의 파종(播種)한 의혈(義血)이라 위(謂)하리로다. 이후(爾後) 평양교회(平壤教會) 성립(成立)시(時)에 도군(君)의 휴전(携傳)한 성경(聖經)을 득견(得見)하고 신교(信敎)한 자(者)가 잇섯다 운(云)하니라.

위 글이 “예수교의 유래”라는 제목 하에 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한다. 한국선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깊은 저술 <미국북장로교선교역사 1884~1934년>에서도 초기 서양선교사들은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의 사역을 “개신교 선교사역의 출발”로 인식하고, 그를 “한국의 첫 개신교 순교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제너럴 셔먼호는 1866년 8월 한 국에 도착했으며,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올라갔다. 강서포산에서 토마스는 강변에 있는 얼마의 한국인들에 성경을 건네주었다. 여러 해가 지나 마포삼열에 의해 학습문답을 받은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이들 전도 책자 성경 가운데 하나를 받았다고 말했다. ... 한국인들이 이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기로 결정하고 1866년 9월 3일 마른 소나무 가치를 잔뜩 실은 큰 나룻배에 불을 붙여 제너럴 셔먼호로 떠내려 보냈다. 피신하려는 승무원들이 물에 뛰어들었고 그들이 강변에 도착하자 살해당했다. 그들은 24명(19명의 말레이시아인과 중국인, 그리고 5명의 서양인들이었다. ... 강변에 나온 토마스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성경을 거주었으나 그가 거절했다. 그런 후 토마스는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 그를 죽인 그 사람은 자신이 죽인 사람이 선한 사

람이라고 느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집에 왔다. 이 사람의 조카, 이영태는 몇 년 전 평양숭실대학을 졸업하고 후에 선경번역 사역을 하는 레이놀즈 선교사를 도왔다. 제너럴 셔먼호의 파멸을 목격한 군중들 가운데는 토마스가 건네준 3권의 성경을 받은 12살 먹은 최치량이라는 이름의 소년도 있었다. 그는 이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워 그것들을 한 군인에게 주었는데 그는 낱낱이 찢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집의 방을 도배했다. 기독교인 된 후 최치량은 그 집에 가서 그 벽에 성경으로 도배한 것을 보았다. 토마스는 한국의 “첫 개신교 순교자”였다. 그의 사역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아무 성과 없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토마스가 최치량에게 전해준 3권의 성경으로 한 군인이 자신의 집 방을 도배했고 최치량이 그 집에 가서 성경으로 도배한 것을 보았다는 증언은 바로 선교사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오문환은 최치량이 박영식에게서 이집을 사가지고 여관을 경영했고 언더우드, 마포삼열, 한석진 등이 처음 평양에서 그 여관에 투숙했다고 증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토마스에게서 성경을 전해 받은 최치량과 중군 이익현을 구출해 낸 박춘권은 초기 평양지역 첫 개신교 열매 가운데 하나였다. 1934년 한국선교 50주년을 맞으면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한국선교의 기원과 발전 그 출발점에 토마스의 방문과 선교사역 그리고 순교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에게서 성경을 전해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초기 신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오문환의 서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토마스로부터 전해 받은 복음의 씨앗은 선교의 결실로 이어져 한국교회 초석이 되었다. 초기 서양서적이나 국내서적을 막론하고 한국선교나 역사를 거론할 때 반드시 그 출발점으로 삼는 사건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입국해 성경을 반포하다 세상을 떠난 토마스 선교사 선교활동과 순교였다. 이처럼 토마스를 순교자로 먼저 평가한 사람들은 오문환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서양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객관적인 고증과 증언을 토대로 토마스에 관심을 갖고 그를 연구하고 그를 순교자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그를 한국기독교 출발점에 위치시켰다.

● 맺는말

제너럴 셔먼호와 토마스 관련 〈고종실록〉의 기록과 오문환의 저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모두 사료적 가치로 중요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각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고찰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토마스가 1차, 2차에 걸쳐 한국에 입국한 동기가 선교라는 사실은 여러 사료가 뒷받침하고 있다. 토마스가 남긴 편지들, 토마스에게 보낸 런던선교회 편지들, 그리고 메도우 회사가 제너럴 셔먼호와 관련하여 남긴 기록들과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후 작성한 보고서 등이 그것이다.

둘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입국했을 때 토마스가 성경을 반포하며 선교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수많은 증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물론 이들 증언자들이 주로 오문환의 기록을 통해서 나온 것이 사실이지만 오문환 외에도 여러 증언들이 선교사들과 한국인들 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종실록〉에도 토마스[최난헌]가 “야소교”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문정관에게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셋째, 사료의 신뢰성 문제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제너럴 셔먼호 관련 〈고종실록〉의 기록들 가운데 적지 않은 오류들이 나타나 〈고종실록〉의 내용을 무조건 다 신뢰할 수 없다. 심지어 적지 않은 조선측 자료들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난 년도조차 오기하고 있다. 〈고종실록〉과 오문환의 기록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면 증언에 기초한 오문환의 기록은 토마스를 순교영웅으로 미화시키는 약점이 있지만 사실 규명을 위한 증거 자료 수집 과정을 거친 노력이 책에 잘 배어난다. 이와는 달리 〈고종실록〉은 1차 자료이긴 하지만 때로는 보고자에게 유리하도록 보고한 부분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가장 기본적인 사실(fact)조차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필자가 볼 때 오문환의 기록은 신뢰할 수 없고 〈고종실록〉과 조선측 사료들은 신뢰할 수 있다는 논리는 토마스를 연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토마스는 순교자가 아니다’는 이미 설정된 비판적 논제를 가지고 제기되고 있는 지금의 편향적사료 비평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언제 최후를 맞이했는지에 대해 통일성이 없다. 해밀턴(F. E. Hamilton), 오문환은 1866년 9월 3일로, 백낙준, 김경창, 한국기독교의 역사는 9월

2일로 그리고 고종실록과 민경배는 9월 5일로 기술하고 있다. 최근 옥성득은 그 사건이 1866년 9월 2일에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기록은 이 사건이 1866년 9월 2일에서 9월 5일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고종실록〉에 근거할 때 9월 3일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박춘권이 이익현을 구출해 난 사건과 제너럴 셔먼호의 최후가 동일한 날에 발생했느냐 하는 것이다. 옥성득은 계일의 〈제너럴 셔먼호의 운명〉에 근거한 것인지 몰라도 동일한 날에 일어난 것으로 주장하지만 〈고종실록〉의 기록이나 기타 기록들은 분명히 두 사건을 구분하고 있다. 필자가 볼 때도 두 사건은 일자를 달리하여 일어난 분명히 구분되는 사건이다.

다섯째, 토마스를 순교로 보지 않는 비평가들은 토마스의 죽음의 극적 장면의 역사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표면적인 이유다. 토마스를 침략적 제국주의를 배경으로 한 힘의 선교의 전형으로 이해하는 이만열-한규무-옥성득의 시각은 공교롭게도 제너럴 셔먼호를 바라보는 진보주의 국사학계의 시각, 심지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전형적인 제국주의 침략으로 간주하는 북한의 시각과 상당히 일치한다. 필자 역시 알렉산더 윌리엄슨에게서 찾아 볼 수 있듯이 19세기 서구 선교사들이 제국주의적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런 제국주의적 영향 때문에 토마스의 입국이 선교적 동기가 아니라거나 그의 활동이 선교활동이 아니었다거나 그의 죽음이 순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상당히 주관적 평가이며 또 다른 비약이다. 순교에 대한 판단도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한규무는 토마스만 아니라 병으로 죽은 헨리 데이비스도 성경번역자 목포로 가다 난파당해 죽은 아펜젤러도 순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규무는 사고로 죽었다면 순교가 아니라고 단정한다. 이런 시각에서 한규무는 설령 토마스가 성경을 반포하다 마지막 죽음을 맞았다고 해도 순교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진보주의 노선에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의가 있지만 필자는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살펴볼 때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로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문환의 기록을 다른 사료들과 비교 검토할 때 제너럴 셔먼호 승무원들의 최후 기록과 토마스의 순교장면이 상호 본질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다. 토마스의 죽음에 대한 오문환의 설명은 다른 사료들과 비교 검토해 볼 때 단순히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신화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접한다고 판단된다.

그 순교 장면이 사실이 아닌 허구냐 아니면 사실에 가까운 기록이냐 할 때 필자는 후자라고 확신한다. 토마스 전기를 쓰면서 그를 미화시킨 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오문환의 〈도마스 목사전〉의 큰 약점이지만 이는 증언에 기초하여 순교 장면을 극적으로 기술하다보니 생긴 문제라고 판단된다.

필자가 그의 죽음을 순교로 평가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한국교회와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필자가 볼 때 〈고종실록〉의 내용과 오문환의 기록 그리고 수많은 증언자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렇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언어습득과 선교를 위해 1차 내한했고, 지푸에서 한국인들에게 복음전파를 위해 조선어를 배웠고,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입국했고, 실제로 성경을 반포하는 등 많은 선교적 노력을 기울인 이상 그의 죽음을 순교로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그의 죽음은 많은 결실을 가져다주었다. 고무성이 지적했듯이 제너럴 셔먼호의 사건과 토마스의 죽음을 계기로 외국과 국교관계가 수립되었고,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입국하게 되었으며, 토마스에게서 성경을 전해 받은 이들이 훗날 평양지역의 신앙공동체의 초석들이 되었다. 한국교회가 그의 피가 이 땅의 예수교 파종의 씨가 되었다고 믿었다면 비약인지 몰라도 ‘순교는 교회의 씨’라고 말했던 초대교회 라틴 교부 터툴리안의 기록을 가장 한국적 상황에서 실증해준 인물이 바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였다.